

2026 한국중동학회 춘계학술대회

중동 질서 재편과 한국의 역할

걸프 국가의 부상과 분쟁국 재건

|일 시|

2026년 6월 13일 토요일
12:30~18:00시

|장 소|

한국외국어대학교 오바마홀
국제회의실

|주 최|

|후 원|



한국중동학회
Korean Association of Middle East Studies



한국-아랍소사이어티
Korea-Arab Society

2026년 한국중동학회 춘계학술대회

중동 질서 재편과 한국의 역할: 걸프 국가의 부상과 분쟁국 재건

| 일 시 | 2026년 6월 13일(토), 12:30~18:00

| 장 소 | 한국외국어대학교 오바마홀 국제회의실

| 후 원 | 한국-아랍소사이어티

PROGRAM

12:30~13:00 학술대회 참가 등록

제1부 (13:00~15:30)

13:00~13:30 개회식

사회: 김강석 (한국중동학회 총무이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오바마홀
국제회의실

개회사 장세원 (한국중동학회 회장, 단국대학교)

축사 최성수 (한국-아랍소사이어티 사무총장)

13:30~15:30

[제1부 1분과]

중동 질서 재편 속 걸프 국가들의 중재 노력과 한국의 전략

좌장: 오종진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경제
분과

/
오바마홀
국제회의실

- 1) 발표 주제: 2026년 이란 전쟁을 통해 살펴본 걸프 국가들의 방기와 연루의
안보 딜레마

발표자: 안소연 (한국외국어대학교)

토론자: 한새롬 (숙명여자대학교)

- 2) 발표 주제: 중동 지역 질서 재편과 GCC의 역할 전환: 경제적 상호의존과 평화 구축

발표자: 최지현 (명지대학교)

토론자: 이은경 (선문대학교)

- 3) 발표 주제: From Oil Embargo to Chokepoint Disruption: The Strait of
Hormuz Crisis and the Changing Logic of Middle Eastern
Energy Leverage

발표자: 건하산 (한국외국어대학교)

토론자: 이주한 (한국외국어대학교)

- 4) 발표 주제: 카타르의 소국 딜레마: 제3자 중재와 중견국 정체성 사이

발표자: 남옥정 (조선대학교)

토론자: 이수진 (한국외국어대학교)

13:30~15:30

[제1부 2분과]

중동 질서 재편과 사회문화적 변동의 양상

좌장: 김수완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회·문화
분과

본관 115호

- 1) 발표 주제: 사우디 비전 2030과 감정통치

발표자: 엄익란 (단국대학교)

토론자: 강원구 (한국외국어대학교)

- 2) 발표 주제: 경유지에서 기착지로: 마그레브 이주 질서의 재편과 서브사하라
비정규이주

발표자: 김효정 (한국외국어대학교)

토론자: 김선우 (한국외국어대학교)

- 3) 발표 주제: 아랍 커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이후 국가정체성으로서의
활용: 사우디아라비아 사례 연구

발표자: 양정아 (선문대학교)

토론자: 김은지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 4) 발표 주제: 가자 지구 재건과 평화 구축

발표자: 김은비 (국방대학교)

토론자: 이경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15:30~15:50

휴식 시간

제2부 (15:50~17:50)

15:50~17:50

[제2부 3분과]

중동 질서 재편 속 분쟁국 재건 담론과 서사의 형성: 언어·문학·통번역의 매개 구조

좌장: 이종화 (명지대학교)

언어·문학
분과
/
오바마홀
국제회의실

- 1) 발표 주제: 고전아랍어와 암하라어의 생성과정 고찰: 음운론적 특징을 중심으로
발표자: 고재우 (한국외국어대학교)
토론자: 김대환 (한국외국어대학교)
- 2) 발표 주제: 학문 권력의 재배치: 아랍어문학 연구와 걸프 지역의 전략적 부상
발표자: 백혜원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토론자: 이계연 (한국외국어대학교)
- 3) 발표 주제: 종교적 금기 요소 번역에서의 생성형 AI 활용 가능성 탐색
발표자: 김보영 (단국대학교)
토론자: 안현주 (육군사관학교)

15:50~17:50

[제2부 4분과]

중동 정세 변화에 조응하는 종교적 해석과 역사적 기억

좌장: 김정명 (명지대학교)

종교·역사
분과
/
본관 115호

- 1) 발표 주제: 플라톤의 “하나와 대소(또는 부정 이원성)” -고대 근동과 이슬람 수학/철학의 영향
발표자: 박제남 (인하대학교)
토론자: 김동환 (한국외국어대학교)
- 2) 발표 주제: 정착 식민주의로서의 시온주의와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 노력(1919~현재)
발표자: 홍미정 (단국대학교)
토론자: 이지수 (한국외국어대학교)
- 3) 발표 주제: 중동 지역 불교 수용의 변화상
발표자: 정진한 (안양대학교)
토론자: 김성환 (명지대학교)
- 4) 발표 주제: 이란의 환경 문제와 소수민족 권리 문제의 영향
발표자: 황의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토론자: 김혁 (한국외국어대학교)

17:50~18:00

폐회식

사회: 김강석 (한국중동학회 총무이사, 한국외국어대학교)

폐회사 장세원 (한국중동학회 회장, 단국대학교)

목 차

[제1부 1분과]

중동 질서 재편 속 걸프 국가들의 중재 노력과 한국의 전략

- 2026년 이란 전쟁을 통해 살펴본 걸프 국가들의 방기와 연루의 안보 딜레마 11
안 소 연 (한국외국어대학교)
- 중동 지역 질서 재편과 GCC의 역할 전환: 경제적 상호의존과 평화 구축 19
최 지 현 (명지대학교)
- From Oil Embargo to Chokepoint Disruption: The Strait of Hormuz Crisis and the Changing Logic of Middle Eastern Energy Leverage 29
건 하 산 (한국외국어대학교)
- 카타르의 소국 딜레마: 제3자 중재와 중견국 정체성 사이 37
남 옥 정 (조선대학교)

[제1부 2분과]

중동 질서 재편과 사회문화적 변동의 양상

- 사우디 비전 2030과 감정통치 49
엄 익 란 (단국대학교)
- 경유지에서 기착지로: 마그레브 이주 질서의 재편과 서브사하라 비정규이주 55
김 효 정 (한국외국어대학교)
- 아랍 커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이후 국가정체성으로서의 활용: 사우디아라비아 사례 연구 .. 65
양 정 아 (선문대학교)
- 가자 지구 재건과 평화 구축 71
김 은 비 (국방대학교)

[제2부 3분과]

중동 질서 재편 속 분쟁국 재건 담론과 서사의 형성: 언어·문학·통번역의 매개 구조

- 고전아랍어와 암하라어의 생성과정 고찰: 음운론적 특징을 중심으로 83
고 재 우 (한국외국어대학교)
- 학문 권력의 재배치: 아랍어문학 연구와 걸프 지역의 전략적 부상 95
백 혜 원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 종교적 금기 요소 번역에서의 생성형 AI 활용 가능성 탐색 97
김 보 영 (단국대학교)

[제2부 4분과]

중동 정세 변화에 조응하는 종교적 해석과 역사적 기억

- 플라톤의 “하나와 대소(또는 부정 이원성)” -고대 근동과 이슬람 수학/철학의 영향 101
박 제 남 (인하대학교)
- 정착 식민주의로서의 시온주의와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 노력(1919~현재) 111
홍 미 정 (단국대학교)
- 중동 지역 불교 수용의 변화상 125
정 진 한 (안양대학교)
- 이란의 환경 문제와 소수민족 권리 문제의 영향 137
황 의 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제1부

[제1부 1분과]

중동 질서 재편 속 걸프 국가들의 중재 노력과 한국의 전략

정치·경제 분과

오바마홀 국제회의실

- 2026년 이란 전쟁을 통해 살펴본 걸프 국가들의 방기와 연루의 안보 딜레마
안 소 연 (한국외국어대학교)
- 중동 지역 질서 재편과 GCC의 역할 전환: 경제적 상호의존과 평화 구축
최 지 현 (명지대학교)
- From Oil Embargo to Chokepoint Disruption: The Strait of Hormuz Crisis and the Changing Logic of Middle Eastern Energy Leverage
건 하 산 (한국외국어대학교)
- 카타르의 소국 딜레마: 제3자 중재와 중견국 정체성 사이
남 옥 정 (조선대학교)

2026년 이란 전쟁을 통해 살펴본 걸프 국가들의 방기와 연루의 안보 딜레마

안 소 연 (한국외국어대학교)



2026년 이란 전쟁을 통해 살펴본 걸프 국
가들의 방기와 연루의
안보 딜레마
한국외국어대학교
안소연



1.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동맹 딜레마
3. 미국과 걸프 국가 안보 관계의 역사
4. 걸프 내 미국 군사기지 설립 배경과 역할
5. 2026년 전쟁에서 걸프 국가들의 방기와 연루의 딜레마
6. 걸프 국가들의 안보 전략 전망
7. 결론

3. 서론

1. 미국과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걸프 국가들은 오랜 기간 안보 대 에너지 교환 원칙을 기반으로 굳건한 연대 관계를 이어 옴
2. 특히 1차 걸프전을 거치면서 미국은 걸프 국가들에 군사 기지를 구축하면서 군사·안보 협력을 강화해왔음
3. 하지만 2026년 전쟁에서 걸프 국가에 위치한 미군 기지가 공격의 주요 대상이 되면서 걸프 국가들은 방기와 연루라는 전형적 동맹 딜레마에 고스란히 노출되었음
4. 이번 전쟁을 계기로 걸프 국가들의 미국 의존 안보 전략에 대한 재검토가 대대적으로 있을 전망이며 이에 따른 한국의 대응책 수립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음

4. 연구목적

1.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걸프 국가들 간 안보 협력의 역사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걸프 국가가 직면할 수 밖에 없는 방기와 연루의 딜레마 구조를 살펴보고자 함
2. 2026년 전쟁에서 걸프 국가들의 대응을 재고찰하고 이후 걸프 국가들의 새로운 안보 전략 방향을 전망하고자 함

3. 이론적 배경: 방기와 연루, 동맹 딜레마

1. 동맹

- 동맹이라는 것은 둘 혹은 그 이상 국가들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상호가 지닌 힘 또는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취하는 안보 협력을 의미함

2. 비대칭 동맹

- 동맹을 맺은 국가들 사이의 국력, 자원, 군사력 등의 체급 차이가 현저하게 크고, 상호 간에 기대하는 이익의 종류가 비대칭적인 관계

3. 방기와 연루

방기: 동맹 파트너에 대한 배반으로 적과 새로운 동맹을 결성하거나, 동맹의 책임을 방기하고 동맹에서 탈퇴하거나 책임을 이행하지 않거나 혹은 동맹 상대국의 지원을 필요로 할 때 이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연루: 자국의 이익과는 무관하거나 중요성이 높지 않는 동맹 상대국의 이익을 위해 원하지 않는 갈등에 의도치 않게 끌려가는 것

약소국이 강대국의 분쟁에 연루되지 않고자 하면 방기될 가능성이 높으며 반대의 경우에는 연루될 가능성이 높아짐

3. 이론적 배경: 걸프 국가들의 방기와 연루 사례

방기

- 1) 2019년 아람코 (Aramco) 석유 시설 드론 피격 사건
- 2) 예멘 내전에서 후티 반군 테러와 미국의 '테러 지정 해제'
- 3) 아프가니스탄 철군 (2021년)

연루

- 1) 이란 핵합의(JCPOA) 파기와 '최대 압박 전략'
- 2) 우크라이나 전쟁과 석유 증산 압박
- 3)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및 가자지구 전쟁

4. 미국과 걸프 국가 간 안보 관계의 역사

1930-40년대
1933년: 미국과 사우디 간 석유 개발 계약 체결로 걸프 국가와 관계 시작
1943년: 미국 무기 대여법 지원



1950-60년대
1951년: 사우디 미국 간 상호방위원 조협정 체결



1970년대
닉슨 독트린:
이란과 사우디 위임을 통한 안보 전략-> 대 이란 및 사우디 미국 무기 수출량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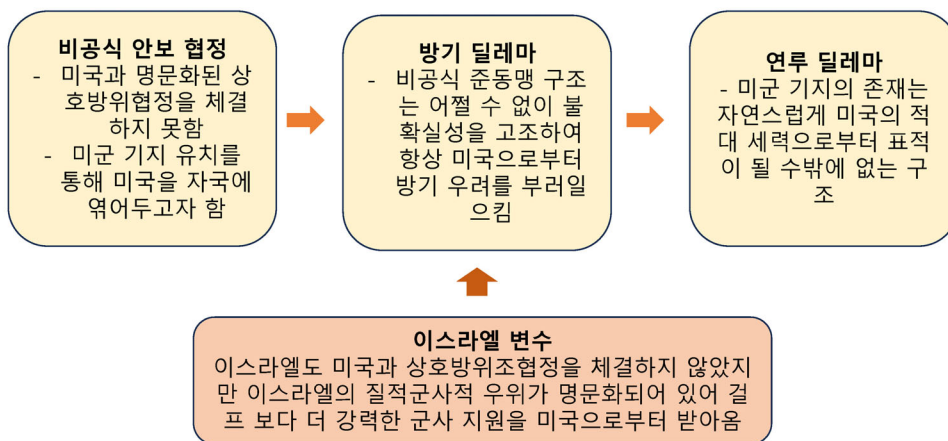
1980년대
카터 독트린:
신속대응합동태스크 포스 창설

5. 미군 군사 기지 설립의 배경

1991년 걸프전 이후 사담 후세인 정권을 억제하고 이라크와 이란과 같은 역내 강국의 위협으로부터 안정을 유지하고자 본격적으로 걸프 국가들과 방위협력협정을 체결하기 시작함

국가	주요 협정 (DCA방위협력협정 등)	핵심 미군 시설	주요 특징 및 역할
쿠웨이트	1991년 DCA 체결	캠프 아리프잔 (Camp Arifjan)	미 육군 중부사령부의 병참 및 군수 지원 허브
바레인	1991년 DCA 체결	NSA 바레인 (미 제5함대 사령부)	페르시아만 해상 안보 및 해군 작전의 중추
카타르	1992년 DCA 체결	알 우데이드 (Al Udeid) 공군기지	중동 내 최대 미군 기지, 미 중부사령부 전방본부 소재
UAE	1994년 DCA 체결	알 다프라 (Al Dhafra) 공군기지, 제벨 알리 항구	F-22 등 최첨단 항공 전력 배치, '리틀 스파르타'로 불리는 강력한 실전 협력
사우디	1951년 MDAA(상호방위원조협정) 체결	프린스 술탄 (Prince Sultan) 공군기지	양국 안보의 상징적 파트너, 최대 규모의 미국산 무기 구매국

6. 중동 역내 정치 구조 속 걸프 국가들의 딜레마



7. 2026년 전쟁에서 방기 딜레마

조건부 안보 체계의 한계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핵 프로그램 저지와 수뇌부 암살을 위해 전격적인 공습을 감행하면서, 걸프 동맹국들이 입을 보복 피해에 대해서는 방어 대책을 제공하지 않음

이스라엘 우선주의에 밀린 걸프 안보
미국의 첨단 방공 자산과 정보 역량이 이스라엘 방어와 이란 내 핵심 기지 타격에 집중되면서, 걸프 영토로 쏟아지는 이란의 미사일 세례를 완전히 막아 주지 못함

7. 2026년 전쟁에서 연루 딜레마

미군 기지 이용
사우디와 UAE 등은 이란과의 전면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자국 내 미군 기지(사우디 킹 파하드 기지, UAE 알 다프라 기지 등)를 미국의 대이란 공격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완강히 거부하거나 제한

이란 공격의 주요 대상
이란은 미국·이스라엘에 대한 반격 과정에서 걸프 지역 내 미군 인프라와 친미 성향 걸프국을 동일한 적대 세력으로 묶어 보복

8. 걸프 국가의 새로운 안보 전략

독자적 방위 산업 육성
단순한 무기 수입국에서 벗어나 자체적인 드론, 미사일, 다층 방공망의 국산화 및 공동 개발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됨

다자 안보 체제 구축
튀르키예, 파키스탄, 이집트 등 지역 내 이슬람 국가들과 새로운 다자간 지역 안보 협력체를 구상

이란과 불가침 조약 체결 모색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 및 다른 중동 국가들과 '중전 후 불가침 조약 (Non-Aggression Pact)'을 체결하는 방안 논의

9. 한국에의 함의점

방산 및 안보 협력 강화
한국과 방산 및 안보 부문 협력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 전략이 필요함

소다자 안보 협의체 구축
걸프-인태 지역-한국을 연계하는 새로운 안보 협의체 검토

균형잡힌 걸프 지역 외교 필요성
UAE의 OPEC+ 탈퇴를 통해 걸프 국가 간 균열이 예고되었음을 확인
이에 따라, 균형잡힌 걸프 지역 대상 외교가 필요함

10. 결론

1. 2026년 전쟁은 걸프 국가와 미국 간 관계, 걸프 내부 간 관계에 대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2. 걸프 국가는 미국 의존에 대한 안보를 줄여 나가고 걸프 공동의 안보 협력 보다는 각자 도생의 안보 체계 마련에 더욱 주력할 것으로 전망됨
3.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은 걸프 국가와 방산 및 안보 협력을 강화해가는 동시에 걸프 내 균열에 연루되지 않고 균형잡힌 새로운 외교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음

중동 지역 질서 재편과 GCC의 역할 전환:
경제적 상호의존과 평화 구축

최 지 현 (명지대학교)



목차



01 서론

- 연구배경 및 문제제기
- 연구질문

02 이론적 틀

- 상업 자유주의
- 신기능주의

03 중동 질서 재편

04 GCC의 역할 전환

05 분쟁국 재건과 경제적 상호의존 확대

- 이라크·시리아 사례

06 결론

- 함의 및 한국의 역할
- 연구 한계 및 향후 과제



서론: 연구배경 및 문제제기

01 만성적 지역 불안정성

- 역외 세력 개입
- 국가·종파민족 갈등 지속 및 심화

02 전통적 안보 접근의 한계

- 군사력 중심 질서의 한계
- 세력균형의 불안정성

03 분쟁국 재건 과제

- 경제 회복·사회 안정화
- 역내 안정을 위한 지역 협력 필요성

04 경제협력의 필요성

- 경제적 상호의존 증가를 통한 지역 안정화
- GCC의 역할 확대

연구질문

“ 분쟁국 재건 과정에서 **GCC**를 중심으로 한
역내 경제협력이 **경제적 상호의존 확대**를 거쳐
중동 지역의 **안정과 평화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가?

이론적 틀: 상업 자유주의(상업평화론)



칸트의 영구평화론

- 공화정, 국제법, 세계시민법을 통한 영구적 평화의 가능성
- 민주평화론과 상업평화론의 이론적 논의로 발전



분쟁 기회비용

- 국가 간 경제적 상호의존 심화 시 분쟁의 기회비용 증가
- 무력 분쟁으로 비롯되는 교역투자 등 경제 손실 우려로 분쟁 회피
- 무역 확대가 분쟁의 억지력으로 작용
- 공통 이익 형성 및 공유가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문화적 틀 형성
- 국가 간 의사소통 강화: 오인으로 인한 분쟁 가능성 감소



중동 지역 적용

- 역내 국가 간 무역 및 시장 개방을 통한 경제적 상호의존 증가
- 분쟁국 재건 지원 과정에서 분쟁 유인 감소 및 분쟁 기회비용 증대
- 분쟁국의 GCC 주도 지역 질서 편입
- 역내 안정 촉진 및 평화 구축

이론적 틀 : 신기능주의



기능주의

- Mitrany (1943)
- 정치적 통합보다 비정치·실용적 영역에서의 기능적 협력 강조
- 인프라·무역·재정 등 경제 협력이 정치적 영역으로 이어짐
- '자동적' 파급: 한 분야의 협력이 추가 협력의 필요성을 자극하여 다른 분야의 협력으로 확산됨



신기능주의

- Hass (1958)
- 자동적 파급 효과에 대한 비판
- 경제 통합이 반드시 정치 통합으로 이어지지 않음
- 정치 엘리트 집단의 전략적 선택
- 초국가적 행위자 역할 강조



GCC 적용

- 걸프국가 엘리트들의 이익 재정의
- 석유 이익 극대화→탈석유화 전략
- GCC의 능동적 역내 협력 확장
- 분쟁국과 비정치적 영역에서의 기능적 협력이 정치적 안정으로 연결

중동 질서 재편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 가자지구 인도주의 위기 심화
- 역내 반이스라엘 정서 확산
- 지역 불안정성 지속



이스라엘-이란 직접 충돌

- 양국 간 직접 군사공격 현실화
-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 역내 안보 불확실성 극대화



시리아 아사드 정권 붕괴

- 권력 공백 발생
- 시리아 재건 수요
- 역내 질서 재편의 새로운 변수



역내 세력 균형 변동

- 이란 주도 저항의 축 약화
- 걸프국가들의 상대적 영향력 확대
- 미중 경쟁 속 전략적 자율성 증대

GCC의 역할 전환



전통적 GCC 역할

- 안보협력체
- 미국 안보우산 의존
- 고유가 국면의 경제적 수혜자



탈석유화 국가전략 수립

- 사우디 비전 2030
- UAE 경제 다각화 전략
- 카타르 국가비전 2030
- 관광·물류·첨단·재생에너지 확장
- 석유 의존에서 산업 다각화로 전환



지역 질서 형성자로의 부상

- 미국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전략
- 미중 전략 경쟁 속 헤징 전략
- 한쪽에 편승하지 않는 전략적 자율성 확보
- 외교적 영향력 확대

GCC의 역할 전환



분쟁국 재건

- GCC의 분쟁국 재건 참여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등)
- 안보: 분쟁국 안정화 지원
- 경제: 상업적 투자 및 경제협력 확대
- 인프라·에너지·물류 부문 집중



경제적 상호의존 확대

- GCC 중심 경제협력 네트워크 형성
- 역내 상호의존 확대로 지역 안정화 유도
- 갈등 완화 유인 및 분쟁 비용 증가



지역 안정화 역할

- 안정적 경제 환경 유지를 통한 지역 안정 기반 조성
- 역내 갈등 관리에 적극 개입
- 지역 분쟁 종재 노력

분쟁국 재건과 경제적 상호의존 확대: 이라크



합작 투자 기반 구축

- 사우디-이라크 공동 투자펀드 조성 (30억 달러)
- 사우디 바그다드 부동산 개발 사업 (10억 달러)
- 투자 확대 및 민간 협력 활성화
- 에너지·건설·금융 분야 협력 기반 구축
- 장기적 투자 관계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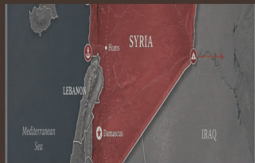
에너지·인프라·물류 협력

- UAE 주도 석유·가스 회수 프로젝트 (270억 달러) 및 항만·물류 개발 협력
- 사우디 가스전 개발 참여
- 카타르 부동산·헬스케어 투자 협정 (70억 달러)
- 개발의 길(Development Road) 프로젝트 참여
- GCC-이라크-터키-유럽 연결 경제회랑 구축

상호의존 확대

- 재건 과정에서 무역·투자 협력 확대
- GCC 중심 지역 질서 점진적 편입
- GCC-이라크 공동 이해관계 구축
- 기능적 협력 심화

분쟁국 재건과 경제적 상호의존 확대: 시리아



재정 지원 및 투자 확대

- GCC의 시리아 재건 적극 개입
- 시리아 재건 자금 지원 확대 (2500억 달러)
- 사우디·카타르 중심 재정 지원
- 세계은행 1500만 달러 부채 상환
- 사우디 64억 달러 투자 합의
- 카타르 공무원 급여 지원 (2900만 달러)

에너지·물류·인프라 협력

- 카타르 에너지 인프라 투자 (70억 달러)
- UAE 타르투스 항만 개발 (8억 달러)
- 사우디-시리아 비즈니스 위원회 설립
- 물류·교통·에너지 연결성 강화

질서 재편입과 상호의존 확장

- GCC 중심 경제망으로 재편입
- 시리아의 아랍권 복귀 지원
- 이란 영향력 및 저항의 축 약화
- GCC의 경제적·정치적 영향력 확대
- 분쟁 재발 억제 및 안정화 기대 (신기능주의적 파급 효과)



결론: 합의 및 한국의 역할

01 상업평화론의 적용 범위 확장

- 경제협력과 상호의존을 중심으로 지역 안정화 가능성 검토

02 신기능주의의 중동 적용

- 걸프국가 정치 엘리트 주도의 기능적 파급 가능성 제시

03 GCC 역할 전환에 대한 설명

- 탈석유화 전략을 기능적 협력과 역내 역할 확대로 설명
- GCC 중심 경제협력의 평화 구축 가능성

04 한국의 역할

- 방산·원자·인프라 분야 경쟁력 및 재건 경험
- GCC 중심 역내 재건 경제협력 파트너십



결론: 연구 한계 및 향후 과제

01 GCC 내부 결속 불안정

- GCC 내부 갈등으로 인한 상호의존 한계
- GCC 내 분쟁조정위원회 실효성 문제

02 재건국의 정치·제도적 불안정

- 이라크·시리아의 취약한 제도 기반
- 경제적 상호의존의 실질적 안정화를 위한 전제조건 필요

03 자료 확보 및 재건 효과의 검증 한계

- 경제협력에 실제 안정화로 이어졌는지 장기적 검증 필요
- 분쟁국 재건 초기 단계로 인과관계 확인 어려움

04 향후 연구 과제

- GCC-분쟁국 무역 데이터 계량 분석
- 경제적 상호의존의 정량적 측정 및 추적 연구

결론

“

GCC를 중심으로 한
역내 경제협력과 분쟁국 재건 참여는
경제적 상호의존 확대를 통해 중동 지역의 안정화와
평화 구축에 기여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참고문헌

- 김종도·장건(2012), 「GCC경제협정에 관한 고찰」, 『중동연구』 제31권 제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 김형민(2018), 「무역협정이 군사분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평화학연구』 제19권 제1호, 한국평화연구학회.
- Gartzke, Erik(2007), "The Capitalist Peac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1(1).
- Haas, Ernst B.(1970), "The study of regional integration: reflections on the joy and anguish of pretheoriz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 24(4).
- Kant, Immanue(1795), "Perpetual Peace: A Philosophical Essay", In *Kant's Political Writings*, second edition, edited by Hans Reiss,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grenzi, Matteo and Marina Calculi(2013), "Regionalism and Regionalization in the Middle East: Options and Challenges", *International Peace Institute*.
- Mitrany, David(1943), *A Working Peace System: An Argument for the Functional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London: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 Stefanova, Boyka(2006), "Regional Integration as a System of Conflict Resolution: The European Experience", *World Affairs*, 169(81).
- Ulrichsen, Kristian Coates(2014), *Insecure Gulf: The end of certainty and the transition to the post-oil era*, Oxford University Press.



From Oil Embargo to Chokepoint Disruption: The Strait of Hormuz Crisis and the Changing Logic of Middle Eastern Energy Leverage

건 하 산 (한국외국어대학교)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ain how Middle Eastern energy crises continue to affect the global economy, but through a different mechanism than in the past. My central argument is simple: the strategic importance of the Middle East has not declined. Rather, it has changed in form. In the 1970s, Middle Eastern energy power was mainly exercised through producer control over supply. In the 2026 Strait of Hormuz crisis, however, energy leverage operated through the disruption of circulation, maritime insecurity, restricted access, and the vulnerability of global energy routes. To develop this argument, I compare two cases. The first is the 1973–1974 Arab oil embargo, which is usually seen as the classic example of the “oil weapon.” The second is the 2026 Strait of Hormuz crisis during the U.S.–Iran war. These two cases are not identical, but they are useful for comparison because both show how a regional conflict in the Middle East can create global energy vulnerability.

The 1973–1974 crisis was triggered by the October Arab-Israeli War and U.S. support for Israel. Arab oil-producing states used an embargo and production cuts to pressure consumer states. The effect was dramatic. Oil prices rose sharply, and Western economies became deeply aware of their dependence on Middle Eastern oil. This episode shaped the modern idea of energy security and led to stronger consumer-state coordination, including the later role of the International Energy Agency.

The 2026 crisis was different. It was triggered by the U.S.-Iran war and the subsequent disruption around the Strait of Hormuz. The crisis began as a military conflict, but it quickly became a wider struggle over maritime access, commercial navigation, and the legal status of passage through one of the world's most important energy chokepoints. Iran's proposal to impose tolls on passage through Hormuz and U.S. mine-clearing operations showed that the crisis was not only about oil production. It was about whether oil and gas could continue to move safely through a narrow and militarized maritime corridor. This distinction is the core of the paper. In the 1970s, the central question was: who controls supply? In the Hormuz crisis, the central question became: who can disrupt movement? This means that contemporary Middle Eastern energy leverage is no longer limited to the producer's decision to sell or not sell oil. It also depends on the ability of states and conflicts to disrupt the routes, ports, shipping lanes, and infrastructures through which energy circulates.

The paper is situated within four bodies of literature. The first is the literature on energy security, which shows that energy security is not only about production, but also about resilience, infrastructure, and the protection of supply chains. The second is the literature on oil coercion, especially the debate over the 1973 oil embargo and the political meaning of the "oil weapon." The third is the literature on chokepoints and maritime vulnerability, which is essential for understanding the Strait of Hormuz. The fourth is the literature on weaponized interdependence, which explains how global networks create new forms of power when certain actors control or threaten key nodes in the system. These literatures are useful, but they are often treated separately. Embargo literature explains how oil can be used as a diplomatic weapon. The chokepoint literature explains how maritime corridors can become vulnerable. The interdependence literature explains how control over networks can become a source of coercion. My paper brings these debates together by comparing producer-led embargo with chokepoint-centered disruption in the same analytical framework.

Methodologically, the paper uses a structured, focused comparison. This means that I apply the same analytical questions to both cases while still respecting their historical differences. The comparison is based on five variables: the trigger of the crisis, the coercive instrument used, the main disruption indicator, the transmission channel, and the policy response. This method allows me to compare the two cases without forcing them into one simple measurement. The unit of analysis is the crisis episode. The dependent outcome is not oil price alone. Instead, the paper focuses on the broader mechanism through which a Middle Eastern conflict generates international energy vulnerability. For the 1973-1974 case, the mechanism was producer-led coercion through embargo

and production restraint. For the 2026 case, the mechanism was chokepoint-centered disruption through maritime insecurity, restricted circulation, port-related coercion, and rapid price transmission.

The comparison produces a clear result. Both crises converted Middle Eastern conflict into global energy vulnerability, but they did so through different causal pathways. The 1973–1974 crisis operated through export denial and producer control over supply. The 2026 Strait of Hormuz crisis operated through disruption to maritime circulation, restricted access around Iranian ports, shipping uncertainty, and the vulnerability of a highly concentrated energy chokepoint. In the 1973–1974 case, Arab oil-producing states imposed an embargo during the October War against the United States and other states seen as supporting Israel. The coercive instrument was producer-led. It combined export denial with production restraint. The price effect was substantial, but the important point is not only the price increase. The embargo changed the political meaning of oil. Oil became a direct instrument of pressure, and energy access became linked to foreign policy behavior.

In the 2026 case, the logic was different. The Strait of Hormuz was already one of the world's most important energy chokepoints before the crisis. Around 20 million barrels per day of oil normally flowed through the strait. This means that Hormuz is not just a regional passageway. It is a central node in the global energy circulation system. When that route became insecure, the consequences were not limited to Iran or the Gulf. They affected global prices, shipping decisions, emergency reserves, and the strategic calculations of major importers. The geographic exposure of the 2026 crisis was especially important. In the 1970s, the oil shock is often remembered as a crisis for the United States, Western Europe, and Japan. In the Hormuz crisis, direct exposure was much more concentrated in Asia. China, India, Japan, and South Korea were especially vulnerable because a large share of oil and LNG passing through Hormuz was directed toward Asian markets. However, this does not mean that the United States or Europe were protected. Because oil is priced in a global market, a disruption in Hormuz still affects consumers everywhere through price transmission. This is why the paper argues that import dependence alone is not enough to measure energy vulnerability. A country may import less oil directly from the Gulf, but it can still be exposed to global price shocks. Vulnerability depends not only on where oil comes from, but also on how markets transmit disruption. It also depends on whether critical routes remain open and whether there is enough alternative export capacity when those routes are threatened.

The country-of-origin data also show why the 2026 crisis cannot be reduced to Iran alone. Hormuz is used by several major Gulf exporters, including Saudi Arabia, Iraq, the United Arab Emirates, Iran, Kuwait, Qatar, Bahrain, and the Saudi Kuwaiti Neutral Zone. Saudi Arabia accounted for the largest volume of flows, followed by Iraq, the UAE, Iran, Kuwait, and Qatar.

This means that disruption in Hormuz threatens not only Iranian exports, but the wider Gulf export system. Another important point is the limited availability of alternative routes. The paper shows that normal flows through Hormuz were much larger than available bypass capacity. This gap is crucial. If nearly 20 million barrels per day normally move through Hormuz, but only a much smaller volume can be rerouted through alternative pipelines or export channels, then even a partial disruption can create systemic pressure. The crisis therefore reveals the weakness of a global energy system that is diversified in some ways, but still highly dependent on narrow corridors.

The market response confirms this mechanism. During the 2026 crisis, oil prices rose sharply. Brent prices increased after the disruption of Hormuz flows, and the crisis produced both physical and financial effects. The physical effect appeared in the curtailment of exports and production shut-ins. The financial effect appeared in higher prices and market expectations of further disruption. This shows that the Hormuz crisis was not only a military event. It was also a logistics shock and a market shock. The policy response also demonstrates the systemic character of the crisis. The International Energy Agency agreed to make 400 million barrels of emergency oil stocks available. This was not a response to a minor regional interruption. It was a collective response to a global supply-security problem. This is important because it shows how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has changed since the 1970s. In the 1970s, the oil shock helped create new energy-security institutions. In 2026, those institutions already existed, but they were tested by a different kind of crisis: not a classic embargo, but a chokepoint-centered disruption.

The broader implication is that energy security must be understood across the entire supply chain. It is not enough to ask who produces oil or who owns reserves. We must also ask whether oil can move from producer to consumer. This includes ports, shipping lanes, naval protection, insurance systems, pipelines, storage capacity, and emergency stock mechanisms. A barrel of oil has limited strategic value if it cannot move through the infrastructure that connects it to global markets. This leads to the main theoretical contribution of the paper. The comparison shows a shift from supply coercion to circulation coercion. Supply coercion refers to the ability of producers to withhold exports or reduce production. Circulation coercion refers to the ability to disrupt the movement of energy through critical routes and infrastructure. The 1973 embargo represents the first mechanism. The 2026 Hormuz crisis represents the second. This does not mean that producer power has disappeared. Gulf production capacity remains central to global energy security. However, the Hormuz crisis shows that contemporary leverage is increasingly locat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duction and movement. Oil must not only be produced; it must also circulate. When circulation is interrupted, the global market reacts quickly, even if the disruption is geographically concentrated.

The conclusion of the paper is that the Middle East remains central to global energy politics, but its centrality has been reorganized. In the 1970s, the region's power came mainly from control over supply. In the Hormuz crisis, its power came from the vulnerability of circulation. This means that the future of energy security will depend not only on production, reserves, and prices, but also on routes, infrastructure, chokepoints, and maritime governance. There are also limitations to the study. The 1973–1974 oil embargo is a completed historical case, while the 2026 Hormuz crisis was still unfolding during the observation period of the paper. Therefore, the findings on the 2026 case should be treated as time-bound rather than final. The paper also focuses on mechanisms of transmission rather than calculating the full macroeconomic cost of the crisis. Future research could extend the analysis by examining tanker-tracking data, shipping insurance costs, LNG markets, and the country-level effects on Asian importers.

Bibliography

- Ali, Idrees, and Phil Stewart. "US Military: 'Locked and Loaded' to Strike Iran's Power Plants, Energy Industry If Ordered." *Reuters*, April 16, 2026.
<https://www.reuters.com/world/middle-east/us-forces-ready-restart-combat-if-iran-doesnt-agree-deal-says-hegseth-2026-04-16/>.
- Corbett, Michael. "Oil Shock of 1973–74." *Federal Reserve History*, November 22, 2013.
<https://www.federalreservehistory.org/essays/oil-shock-of-1973-74>.
- DBnomics. "Brent Crude Oil Spot Price, Monthly — Dollars per Barrel." DBnomics – The world's economic database. U.S. Energy Information Agency, 2026.
<https://db.nomics.world/EIA/STEO/BREPUUS.M?tab=table>.
- EIA. "Short-Term Energy Outlook -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EIA)." *Eia.gov*, 2025.
<https://www.eia.gov/outlooks/steo/>.
- Farrell, Henry, and Abraham L. Newman. "Weaponized Interdependence: How Global Economic Networks Shape State Coercion." *International Security* 44, no. 1 (July 1, 2019): 42–79.
https://doi.org/10.1162/isec_a_00351.
- GRAF, Rüdiger. "Making Use of the 'Oil Weapon': Western Industrialized Countries and Arab Petropolitics in 1973-1974." *Diplomatic History* 36, no. 1 (January 2012): 185–208.
<https://doi.org/10.1111/j.1467-7709.2011.01014.x>.
- Hughes, Llewelyn, and Austin Long. "Is There an Oil Weapon?: Security Implications of Changes in the Structure of the International Oil Market." *International Security* 39, no. 3 (January 2015): 152–89. https://doi.org/10.1162/isec_a_00188.
- IEA. "Amid Regional Conflict, the Strait of Hormuz Remains Critical Oil Chokepoint -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EIA)." *Eia.gov*, 2024.
<https://www.eia.gov/todayinenergy/detail.php?id=65504>.
- . "History of the IEA - about - IEA." IEA, 2026.
<https://www.iea.org/about/mission/history-of-the-iea>.
- <https://www.iea.org/about/oil-security-and-emergency-response/strait-of-hormuz>.
- IMF. "Commodity Special Feature: Market Developments and the Economics of Rare Earths." *www.imf.org*, April 2026.
<https://www.imf.org/-/media/files/publications/weo/2026/april/english/commodityspecialfeature.pdf>.
- . "Press Briefing Transcript: Asia-Pacific Department, Spring Meetings 2026." IMF, April 16, 2026.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6/04/16/tr-04162026-press-briefing-transcript-asia-pacific-department-spring-meetings-2026>.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6; Chapter 1: Global Prospects and Policies,” April 2026. <https://www.imf.org/-/media/files/publications/weo/2026/april/english/ch1.pdf>.
- Licklider, Roy. “The Power of Oil: The Arab Oil Weapon and the Netherlands, the United Kingdom, Canad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32, no. 2 (June 1988): 205. <https://doi.org/10.2307/2600627>.
- Lott, Alexander, and Shin Kawagishi. “The Legal Regime of the Strait of Hormuz and Attacks against Oil Tankers: Law of the Sea and Law on the Use of Force Perspectives.” *Ocean Development & International Law* 53, no. 2-3 (July 3, 2022): 123–46. <https://doi.org/10.1080/00908320.2022.2096158>.
- Mchugh, David, and John Leicester. “Iran’s Hormuz Toll Proposal Violates Global Trade Norms.” AP News, April 8, 2026. <https://apnews.com/article/strait-of-hormuz-iran-tolls-oil-3ef5dcd907122922db714d318c35317e>.
- Michael Carnegie LaBelle. “Energy as a Weapon of War: Lessons from 50 Years of Energy Interdependence.” *Global Policy* 14, no. 3 (June 7, 2023). <https://doi.org/10.1111/1758-5899.13235>.
- Office of the Historian. “Oil Embargo, 1973–1974.” State.gov. Office of the Historian, n.d. <https://history.state.gov/milestones/1969-1976/oil-embargo>.
- Reuters. “US Military Says It Will Start Blockade of All Ships Going to and from Iran on Monday.” *Reuters*, April 12, 2026. <https://www.reuters.com/world/middle-east/us-military-says-it-will-start-blockade-all-ships-going-iran-m-onday-2026-04-12/>.
- Reuters Staff. “UKMTO Says It Was Informed of Maritime Access Restrictions Being Enforced on Iranian Ports.” *Reuters*, April 13, 2026. <https://www.reuters.com/world/middle-east/ukmto-says-it-was-informed-maritime-access-restrictions-being-enforced-iranian-2026-04-13/>.
- Rodrigue, Jean-Paul. “Straits, Passages and Chokepoints.” *Cahiers de Géographie Du Québec* 48, no. 135 (2004): 357. <https://doi.org/10.7202/011797ar>.
- Rosemary, Kelanic. “The Real US Energy Security Problem—and How to Fix It.” *The Washington Quarterly* 49, no. 1 (January 2, 2026): 45–67. <https://doi.org/10.1080/0163660x.2026.2639838>.
- Sovacool, Benjamin K. *The Routledge Handbook of Energy Security*. Routledge, 2010.
- USCENTCOM. “U.S. To Blockade Ships Entering or Exiting Iranian Ports.” U.S. Central Command, April 12, 2026. <https://www.centcom.mil/MEDIA/PRESS-RELEASES/Press-Release-View/Article/4457255/us-to-blockade-ships-entering-or-exiting-iranian-ports/>.
- Yergin, Daniel . “Ensuring Energy Security.” *Foreign Affairs*, April 2006. <https://users.metu.edu.tr/utuba/Yergin.pdf>.

카타르의 소국 딜레마: 제3자 중재와 중견국 정체성 사이

남 옥 정 (조선대학교)

카타르의 소국 딜레마:
제3자 중재와 중견국 정체성 사이

발표자: 남옥정

I

국제 외교 무대에서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중재

THE WALL STREET JOURNAL.

< Iran War, April 5, 2026: U.S. Resumes Airstrikes on Iran After Pilot Rescue
Last Updated: April 6, 2026 at 12:03am ET

Afkār

2026년 4월 3일 오후 2:23 New York 시간

Qatar Resists Being Key Mediator

By Summer Said, Anat Peled and Robbie Gramer

Qatar is resisting efforts by the U.S. and other regional countries to be a key mediator for a potential cease-fire deal with Iran, complicating efforts to find a way forward for the talks, officials familiar with the matter and mediators said. The Gulf state told U.S. officials last week that it wasn't keen on playing a key role in the mediation or leading the efforts, according to the officials and some of the mediators.

With Mediation More Important Than Ever, Mediators Must Be Protected

Israel's September attack on Qatar, the host of mediation talks over a ceasefire in Gaza and the exchange of captives, brought home the vulnerability of mediators as they carry on an increasingly vital task in international diplomacy.

October 6, 2025

Sultan Al-Khulaifi

▶ 2

문제 제기

- ▶ 1. 갈등과 분쟁이 첨예화되는 시점에 카타르가 국제사회의 평화구축 매개자인 중재국으로 선호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 ▶ 2. 카타르는 왜 중재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위상을 이미지화하는가?
- ▶ 3. 카타르의 중재 방식은 무엇이며, 다극화 시대에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전망하는가?

▶ 3

1. 카타르는 왜 반복적으로 중재국으로 등장하는가?

▶ Bercovitch & Schneider (2000)

- 중재자는 개인, 국가, 제도나 기관
- 미국, 유럽, UN은 자주 중재자로 등장
- 반면 거의 선택되지 않는 국가들도 존재
- '중립성'이 중재에서 중요한가?
- 중재국 선택의 기준은 '성공'여부보다 Δ 구조적 힘(power)
 Δ 국제체제 내 지위 Δ 자원(레버리지), 즉 중재를 실현하도록 이끌어가는 중재역량이 더 중요
- 국제 중재를 일종의 '정치적 시장(mediation market)'으로 간주, 즉 수요와 공급이 적절히 균형을 이뤄야.
- 그러므로, 중재행위는 '도덕적 봉사'가 아니며, '중립적'일 필요도 없음

▶ 4

▶ 레버리지란?

Δ 경제 원조 제공

Δ 제재 위협

Δ 군사 지원

Δ 외교적 승인

Δ 정치적 보호

Δ 국제기구 접근과 같은 성공전략으로 이끌 '자원(assets)'

$\Delta\Delta + 1$ 정당성(leitimacy). 중재자로서 인정받을만한 상징적 권위, 일반적으로 국제사회 내 높은 위상(미국, UN이 선호된 이유)

$\therefore$ 선호되는 중재자는 단순히 착한(공정한) '제3자'가 아니라 협상대상국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권력 행위자가 반복적으로 선택

▶ 5

- ▶ 기대효용모델(Expected Utility Model)
 - ▶ 분쟁 당사자들이 중재자를 선택할 때 기준
 - ▶ “누가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가?”
 - ▶ Δ 비용 Δ 편익 Δ 영향력 Δ 성공 가능성을 계산하여
 - ▶ 성공 확률이 높고, 많은 자원을 제공 가능하며, 갈등 당사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행위자를 선택할 가능성 높음
- ▶ 좋은 중재자보다 ‘편향된 중립성’(제로섬 결과보다 나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중재자 선호)
- ▶ 카타르가 중재국으로 선호되는 이유를 일부 설명하는데 도움

▶ 6

2. 카타르는 왜 중재국으로서 국가의 위상을 이미지화하는가?

- ▶ Baldacchino & Wivel (2020)
 - 냉전 종식과 식민제국 해체와 함께 소국 등장, 국제정치의 주요 행위자로 부상
 - 민족주의 확산
 - 국제법과 국제기구 발전
 - 국가주권 규범 강화
- ▶ 소국 딜레마(small state dilemma)

과거	생존문제	영토보존	국가생존	
현재	영향력과 자율성 문제	외부/내부 취약성	경제 의존 무역 의존 금융 변동성 이주 문제 테러 환경 문제	제한된 인적 자원 제한된 외교 역량 제한된 행정 능력
7				

소국 정의에 대한 세가지 접근

1.비강대국(Non-great power)	2. 물질적 역량(Material capability)	정치적 구성물(Political Construct)
강대국이 아닌 국가	군사력, 경제력, 인구가 작은 국가 주요 지표 GDP 인구 국방비 군사력	소국은 객관적 크기보다 행위자들의 인식에 의해 구성(Thorhallsson) "소국은 스스로를 소국으로 인식하고, 타국도 그렇게 인식할 때 형성된다."
기준이 간단함	측정가능	사회적·정치적 맥락 설명 가능
소국을 단순 잔여범주로 예) 독일, 터키, 스페인의 기준이 모호함	기준이 자의적 예) 인구수 기준/ 군사력 중심 해석에 치우침	권력 격차의 현실을 과소평가

▶ 8

현대 소국의 핵심 특성

1.제한된 국가역량 (limited capacity)	2. 권력 비대칭성 (Power Asymmetry)	3. 구조적 취약성	4. 제약 속 전략적 행동
• 적은 인구 • 적은 전문인력 • 작은 시장 • 제한된 행정능력	• 소국은 강대국이 만든 구조 속에서 행동	• 안보 취약성 • 외부 위협에 취약 • 경제 취약성 • 수출 의존 • 외교 취약성 • 국제협상 영향력 부족 • 환경 취약성 • 기후변화에 민감	• 국제규범을 활용하여 영향력 확대 • 다자외교 • 특정 분야에 집중하는 틈새외교 • 신뢰와 전문성을 자산으로 삼는 평판 외교
• 인재 부족 • 외교 자원 부족 • 정책 전문성 부족	• 소국은 정책결정자(rule maker)가 아니라 규칙수용자(rule taker)가 되기 쉽다.		
• 의사결정이 빠름 • 비공식 네트워크 강함 • 9 사회적 응집력 높음			

소국의 제3자 중재 외교

- ▶ 소국은 단순히 ‘작은 국가’가 아니라, 제한된 역량과 권력 비대칭 속에서도 국제기구, 규범, 평판, 틈새외교를 활용하여 국제정치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략적 행위자
- ▶ 제3자 중재는 소국이 군사력 대신 신뢰성·중립성·전문성을 활용하여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대표적 틈새외교 전략

▶ 10

3. 카타르의 중재 방식은 무엇인가?

- ▶ 카타르가 제시하는 외교 핵심 키워드
- ▶ 카타르 헌법 제7조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촉진한다.
- ▶ 중립성
- ▶ 신뢰성
- ▶ 책임 있는 중재자
- ▶ 평화적 분쟁 해결
- ▶ 포용적 대화
- ▶ 다자 협력
- ▶ 인도주의 외교

▶ 출처: mofa.gov.qa

카타르의 전략적 자기규정: 제3자 중재국

▶ 11

전통적 중재의 조건

- ▶ 중립성(neutrality)
- ▶ 공정성(impartiality)
- ▶ 외부성(externality)
- ▶ 신뢰성(trust)
- ▶ 합의 촉진(facilitation)

- ▶ 이상적 제3자 중재자: 분쟁 당사자가 아니어야 함.
즉 '정치적으로 거리를 둔 중립적 외부자'
- ▶ 중재자로서 정통성(legitimacy)의 기본 조건

▶ 12

카타르는 왜 중재국 역할을 '의도'하는가?

- ▶ 주도권과 자율성 추구
⇒ 즉, 중재는 도덕적 역할이라기보다 지정학적으로 허용된 공간 안에서 수행되는 전략적 역할

- ▶ 왜 제3자 중재라는 외교적 정체성을 추구하는가?
⇒ 소국이지만 중견국처럼 행위
 - 1) 국제적 정당성: 글로벌 외교규범을 추구하는 책임감 있는 이해관계자 이미지
 - 2) 소국의 전략적 자율성: 특정 진영에 묶이지 않는 중립적 이미지
 - 3) 중견국적 외교수행: 지위 보존(status protection)차원의 중재역할
 - 4) 지정학적 압력: 역내 경쟁, 미국과의 관계, 다극화
- ⇒ 실제로는 insider mediation에 가까운 관계적 정치적 자원을 활용하면서도, 국제적 정당성과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neutral third-party mediator라는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수행
- ⇒ 이러한 수행은 다극화되는 걸프 지정학과 미국 중심 안보질서의 변화 속에서 소국이 취약성을 관리하는 전략의 일부로 유지 전망

▶ 13

제3자 중재 이론

- ▶ Armengol (2013) 제3자(Third Party)의 필요성
- ▶ 분쟁 당사자는 불신, 정보 비대칭, 협상 실패 위험을 가지고 있음
- ▶ 따라서 제3자는 신뢰 형성, 거래비용 감소, 합의 이행 보장의 기능 수행

▶ 역할유형

역할	기능
중재자(Mediator)	협상 촉진
증인(Witness)	협상 내용 확인
보증인(Guarantor)	합의 이행 보장
검증인(Verifier)	휴전·협정 준수 확인
통합자(Unifier)	분열된 세력 조정
인센티브 제공자	경제·정치적 보상 제공
아이디어 생산자	교착상태 해결안 제시

▶ 14

전통적 중재국과 카타르 차이점

전통적 강대국 중재	카타르형 중재
군사력 기반	외교 네트워크 기반
패권 중심	연결성 중심
압박 외교	조정 외교
국가 중심	비국가 행위자 포함

△ 카타르는 “소국 중재국(small-state mediator)” 모델을 보여줌.

▶ 15

카타르의 중재 수행 시 역할: 내부자 중재(Insider mediation)와 유사

- ▶ 평화회담 개최
- ▶ 협상 공간 제공
- ▶ 합의 이행 지원
- ▶ 휴전 및 포로 석방, 교환협상
- ▶ 외교·경제적 지원
- ▶ 비국가 행위자 포함
- ▶ (비)공식 대화 채널 유지

△ 카타르는 하마스와 긴밀한 관계, 탈레반 대화채널, 미국과 안보 동맹, 이란과 실용적 관계, GCC 내부 네트워크 상용

△ 카타르 중재역량은 관계기반 자산 (relational embeddedness) 에서 분출

⇒ 전형적인 내부자 중재의 특징

▶ 16

카타르의 소국 딜레마

- ▶ 카타르는 내부자 중재(형식)를 실행하면서 왜 중견국 정체성을 추구하는가?
- ▶ Kamrava(2017), 'subtle power'
 - 카타르는 물질적 능력(인구, 영토, 군사력) 기준에서는 소국
 - 그러나 소국이 직면하는 영향력/자율성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 헤징, 글로벌 브랜딩, 중재외교, 네트워크 구축 등을 활용하면서 사실상 중견국과 유사한 외교적 역할 정체성을 추구
- ▶ 카타르의 소국 영향력과 자율성 딜레마
 - 자율성을 유지할 것인가,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할 것인가?
 - ⇒ 소국이 영향력을 확대하면서도 자율성을 유지하려는 시도
 - subtle power는 하드파워, 소프트파워, 스마트파워의 부족한 설명을 보완
 - 영향력 행사 능력
 - 자신에게 유리한 환경 조성 능력
 - 의제와 인식 형성 능력을 결합한 개념
 - ⇒ 카타르가 중견국적 역할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 핵심 메커니즘

▶ 17

카타르의 중재국 기대효용과 미묘한 권력

① 국제적 위상 상승

작은 국가의 영향력 확대

“중동의 외교 허브” 이미지 구축

② 안보 확보

중재국 이미지를 통해 공격 가능성 감소

③ 소프트파워 강화

국제사회 신뢰 확보

글로벌 브랜드 형성

④ 서방과의 전략적 관계 유지

미국 등 강대국과 협력 강화

즉, 중재는 카타르의 생존전략이자 국가브랜딩 전략

⇒ 더 나아가, 미묘한 권력의 핵심은 ‘의도성’

⇒ “부유한 국가가 모두 미묘한 권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카타르는 기대효용 효과와 결합하여 (소국이라는)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주도권과 전략, 그리고 이를 활용하려는 의지(의도성)를 지님

⇒ 즉, 중재가 갈등해결도구가 아닌 외교적 정체성 수행(diplomatic performance)

제1부

[제1부 2분과]

중동 질서 재편과 사회문화적 변동의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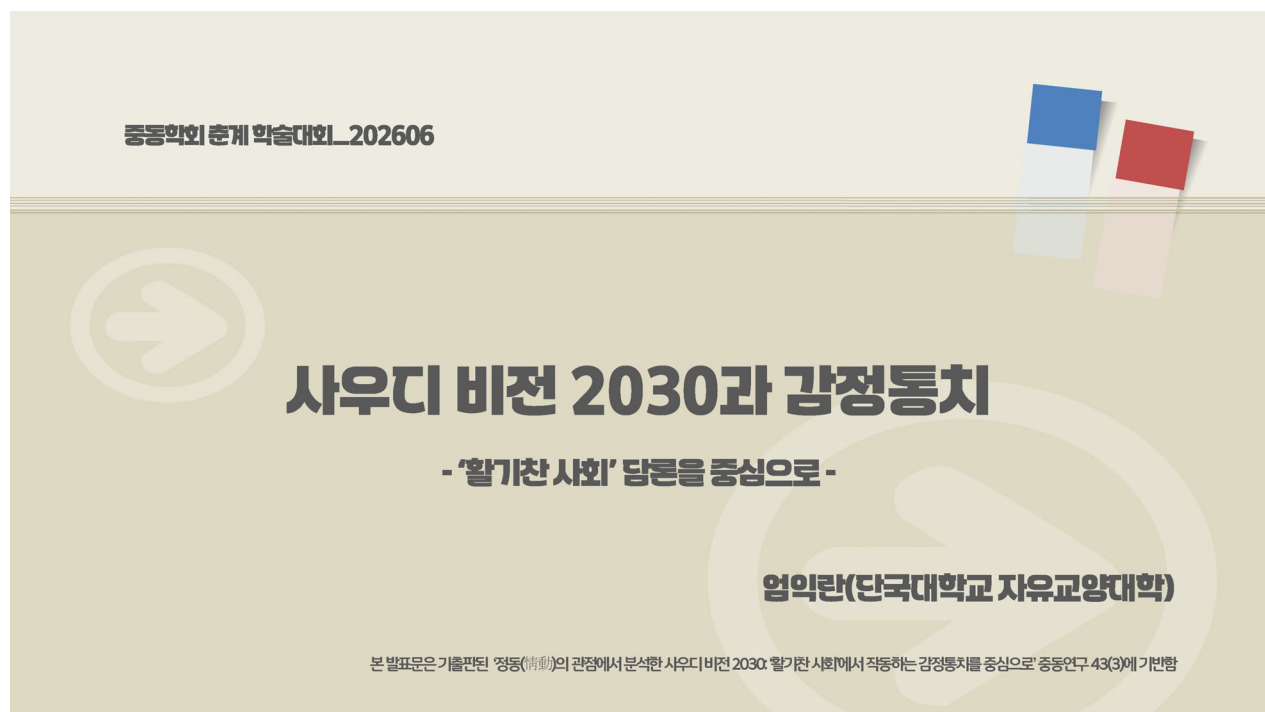
사회·문화 분과

본관 115호

- 사우디 비전 2030과 감정통치
엄익란 (단국대학교)
- 경유지에서 기착지로: 마그레브 이주 질서의 재편과 서브사하라 비정규이주
김효정 (한국외국어대학교)
- 아랍 커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이후 국가정체성으로서의 활용: 사우디아라비아 사례 연구
양정아 (선문대학교)
- 가자 지구 재건과 평화 구축
김은비 (국방대학교)

사우디 비전 2030과 감정통치

엄 익 란 (단국대학교)





연구의 배경

- 왜 감정의 관점인가
- 사우디 비전 2030의 모토: '활기찬 사회', '번영하는 경제', '아심 찬 국가'
- 이후 10년과 사회 변화
- 사우디 현지조사: 2015 vs. 2025 & 2026
- 사람들의 표정에서 느껴지는 국가에 대한 자부심과 미래에 대한 희망
- 본 연구의 출발점: 사회구조 전환 속에서 어떻게 통치 권력은 정당성과 충성심을 확보하는가?



MBS의 Vision 2030과 Paradigm Shift



But 권위주의의 유지
정당성의 근원?
사회통제의 메커니즘?

- 가설: 정치경제 구조변화에 따른 통치자본의 전환: 물질자본 → 감정자본
- '활기찬 사회'의 대중 문화와 엔터테인먼트가 단순한 소비와 오락의 영역을 넘어, 문화정책과 사회통제의 순응 메커니즘으로 기능 → 감정통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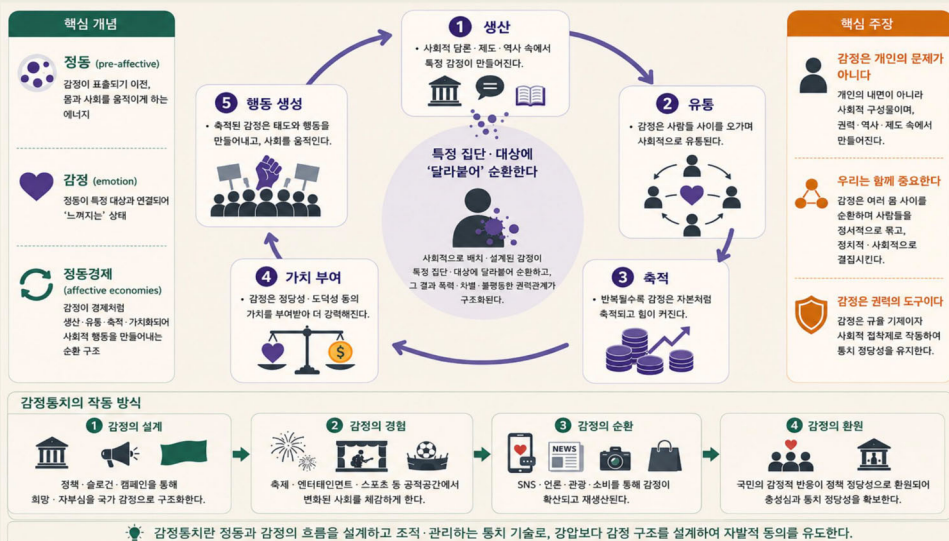
연구질문

- 대표학자: 사라 아메드 '정동경제'(2003), 에바 일루즈 '감정 자본주의'(2007), 브라이언 마수미 '정동정치'(2018), 로렌 벌랜트 '잔혹한 낙관주의'(2024) → **감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와 권력관계에서 발현**
- 감정 메커니즘: 감정 자체 연구 ⇒ "사회구조가 어떠한 집단적 감정과 분위기를 산출하는가"
 - ⇒ RQ: '활기찬 사회'를 목표로 사우디가 추진하는 문화 및 엔터테인먼트 정책은 어떠한 감정적 효과를 생산하는가?
 - ⇒ RQ: 즐거움과 희망은 어떠한 방식으로 정치적으로 설계되어 통치의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가?
 - ⇒ RQ: 활기찬 사회는 어떻게 사회 통합과 체제 안정에 기여하는가
-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이론적 배경: 사라 아메드 '정동경제'와 감정통치

"감정은 개인 내면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생산, 유통, 축적되어 권력과 불평등을 재생산한다."



By ChatGPT



감정통치와 작동방식: '활기찬 사회'와 감정설계

축제의 장이 된 사우디

- 가구당 오락 및 여가 지출 비용 2.9% → 6%
- 리아드 시즌과 각종 콘서트 유치
 - ✓ 현대: 해외가수 초청공연, MLDbeast Soundstorm
 - ✓ 전통: 알울라, 자나디리아, 수끄 오카즈 등
 - ✓ 국경일(9월 23일 & 2월 22일)
 - ✓ 두 번의 이드
 - ✓ BLVD City(2019) and BLVD World(2022) 등 개장
- E-sports 월드컵 대회

축제화 된 국경일과 슬로건

자료: 사우디 국경일 공식 캠페인 및 논문 정리

연도	슬로건	핵심 감정
2020	Passion to the Top	도약, 열정
2021	This is Our Home	소속감, 안정감
2022	This is Our Home	공동체, 통합
2023	We Dream, We Achieve	미래, 성취
2024	We Dream and Achieve	비전 2030, 희망
2025	Our Pride is in Our Nature	자부심, 국가 가치

- 매해 변화, 그러나 소속감, 자부심, 통합과 애국심, 비전과 미래, 문화유산과 전통, 국가 정신을 강조
- 종교적 정체성보다는 전통문화와 관습을 강조, 사우디 사회 통합 강조



2025년도 95주년 이미지

Saudi Arabia's 95th National Day: Honoring a Legacy, Building the Future

BY THE SAUDI TIMES
23 SEPTEMBER, 2025

Share this



Saudi Arabia's 95th National Day Honoring a Legacy, Building the Future

<https://thesauditimes.net/en/saudi-arabias-95th-national-day-honoring-a-legacy-building-the-future/>





감정통치와 작동방식: 활기찬 사회의 내면화

감정의 경험·순환·환원

- 정부: 드론 및 불꽃축제, 공군 에어쇼, 해군 퍼레이드, 전통음식 및 전통 의상쇼, 초록빛 도시 연출
- 해시태그 홍보행사: #ProudToBeSaudi, #Vision2030, #IamASaudi
- 민간기업: 파격 할인 행사, 애국심과 연결된 기업 홍보 마케팅
- 결과: 감정의 순환과 내면화, 애국심 고취 → 체제에 대한 동조와 순응으로 이어짐
- 시사점: 통치는 억압만으로 작동하지 않고, 즐거움과 자유의 확대가 권위주의를 약화시키지도 않음

제14차 ASDA'A BCW 아랍 청년 설문조사

- 사우디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낙관
- 정부에 대한 신뢰
- 부모세대보다 잘 살 것이라는 믿음



감정통치의 함의 및 한계

감정통치와 정치·사회·경제적 함의

- 패러다임 전환: 오일과 이슬람이 기반한 통제와 감시 (**강압적 순응**) → 희망과 자부심, 애국심에 대한 설계를 통한 국민 결속과 통치 정당성 확보 (**자발적 순응**)
- 사회통합: 수니파 종교적 정체성 → 아라비아 반도의 전통과 문화유산 강조, 감정을 매개로 젠더, 세대, 종파 등 정치적·사회적 통합
- 감정의 자본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 관광과 엔터테인먼트 및 즐거움이라는 감정이 상품화되어 소비 → 새로운 내수시장 형성과 경제 활성화
- 소프트파워 및 국가 브랜드 위상 강화 & 국제 사회의 감정 변화

한계

- 표면적으로 권위주의 약화, 그러나 연성화된 권위주의 강화에 따른 시민성과 민주성 약화
- 엔터테인먼트 중심의 서구식 국경일 행사와 일탈행위
- 감정통치는 사회불만의 제거가 아니라 감정의 재배치, 또 다른 계층의 소외와 반감
- 체제 불안정성의 잠재적 원인으로 남음

경유지에서 기착지로:
마그레브 이주 질서의 재편과 서브사하라 비정규이주* **

김 효 정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유지에서 기착지로:

마그레브 이주 질서의 재편과 서브사하라 비정규이주



김 효 정

한국중등학교 훈계학술대회 2026.06.13.

* 이 발표문은 202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5S1A5B5A16009773)

** 본 발표문은 『이슬람학회논총』에 투고한 논문을 발표용으로 수정·재구성한 것임.

연구 질문 Research Question

- 강화된 국경 통제 속에서 마그레브 지역은 어떠한 이주 공간으로 재편되고 있는가?
- 마그레브 서브사하라 비정규이주는 어떠한 구조적 특징과 이동 패턴을 보이는가?
- 왜 마그레브의 비정규이주는 체류와 재이동이 반복되는 순환적 구조로 변화하고 있는가?

연구 목적 Research Objective

- 마그레브 서브사하라 비정규이주민의 현황과 이동 양상을 분석한다.
- 리비아, 모로코, 튀니지 사례를 중심으로 비정규이주의 구조적 특징과 국가별 차이를 규명한다.
- 유입-체류-재이동으로 이어지는 순환적 이동 구조를 통해 마그레브 이주 체제의 재편 과정을 살펴본다.

연구 대상 Research Scope

- 연구대상 : 서브사하라 비정규이주민
- 연구지역 : 모로코 · 리비아 · 튀니지
- 주요 이동 경로 : 중앙지중해 · 서부지중해 경로



연구 방법 Research Method

- 국제기구(IOM World Bank, MMC, UNHCR 등) 통계 및 보고서 분석
- 마그레브 3개국 (모로코·리비아·튀니지) 사례 비교 분석
- 비정규이주의 이동 패턴 및 구조적 특징 분석

용어의 개념과 분석 틀

● 비정규 이주민(Irregular Migrants)

- 입국, 체류, 취업 과정에서 법적·행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의 이주민
- 특정 집단이 아닌 '**불안정한 법적 지위**'를 기준으로 한 개념
- 난민, 비호 신청자, 경제이주민 등을 포괄 가능
- 마그레브의 서브사하라 이주민 다수는 이동, 체류 과정에서 비정규 상태를 경험

● 분석 틀: 유입- 체류-이동시도-재이동의 순환구조

- 유입** : 서브사하라 아프리카 → 마그레브 이동
- 체류** : 국경 통제 강화 속 장기 체류 확대
- 이동 시도** : 유럽 진입 및 해상 이동 시도
- 재이동** : 이동 실패 이후 경로 변경·재시도 반복

왜 마그레브 지역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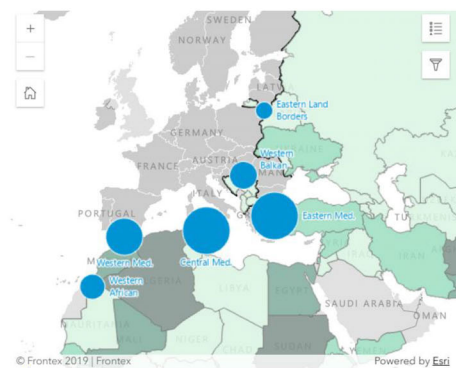
마그레브는 국제 이주체제의 변화와 지역 내부의 변동이 교차하는 공간

● 국제안보 측면

- 마그레브는 유럽과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핵심 비정규이주 경로
- 중앙지중해, 서부지중해 경로를 통한 이동 집중
- EU 국경 외부화 및 해상 통제의 주요 공간
- 이주 문제는 유럽의 안보, 외교, 정치와 긴밀히 연결

● 지역연구 측면

- 이주민 증가가 노동시장, 도시 공간, 사회 구조 변화 초래
- 비공식 경제 및 불안정 노동 확대
- 지역 주민과 이주민 간 사회적 긴장 심화
- 이주 문제가 국가 통치 및 대 EU 전략과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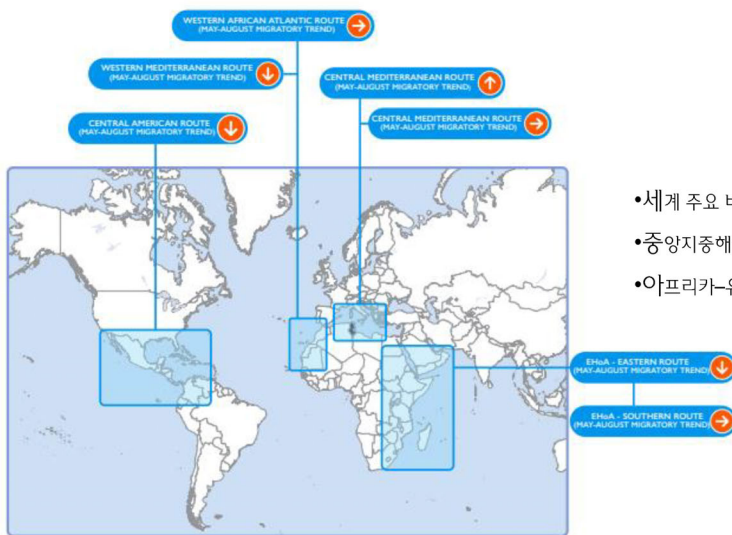


왜 서브사하라 비정규이주민인가?

- 최근 지중해 비정규이주의 주요 구성 집단
- 사헬 지역 불안정, 경제 위기, 기후 문제와 연결
- 난민, 경제이주민, 비호 신청 경계가 중첩되는 집단
- 국경 통제와 장기 체류 문제가 교차하는 대표적 사례



세계 비정규 이주 흐름의 주요 권역과 이동 경로(2025, IOM)



- 세계 주요 비정규이주 경로의 핵심 축이 아프리카에 집중
- 중앙지중해, 서부지중해-대서양 경로를 통한 이동 확대
- 아프리카-유럽 연결 경로의 전략적 중요성 증대

GLOBAL OVERVIEW OF MIGRATION ROUTES: JANUARY TO APRIL 2025

마그레브 비정규이주의 특징

혼합이주(Mixed Migration)

● 유입, 체류 배경

pull fac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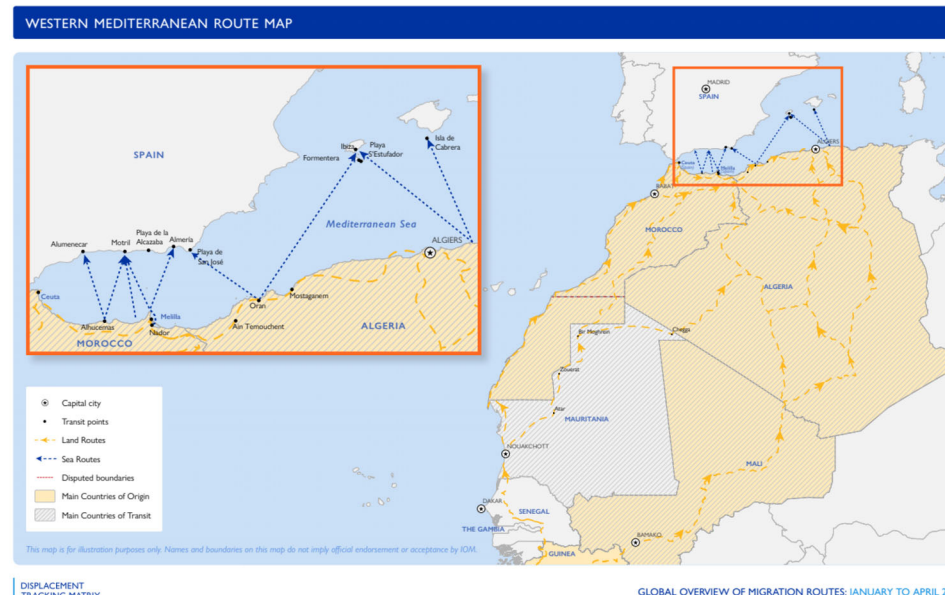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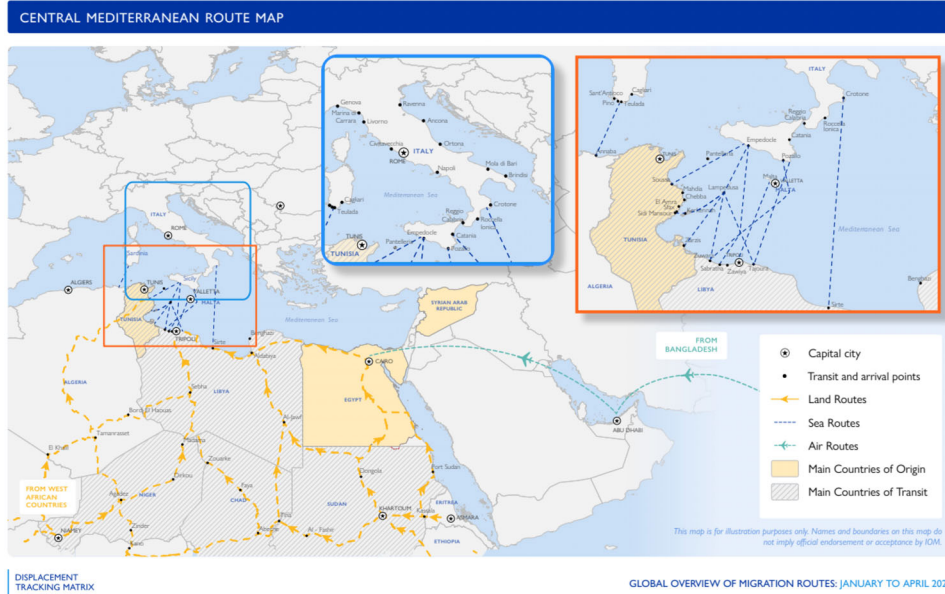
- 유럽과 아프리카를 잇는 마그레브의 지리적 위치
- 유럽의 국경의 외부화 정책, 통제의 강화

push factor

- 서아프리카, 사헬 지역의 정치적 불안정
- 마그레브 비공식노동시장 존재
- 밀입국, 브로커 이주네트워크 활성화
- 국제기구(UNHCR)주도의 난민보호시스템

● 유입규모와 주요 출신국





마그레브 비정규이주의 구조적 특성

● 누적 인과 현상 Cumulative Causation

- 선행 이주경험과 송금 경제가 이주를 생계전략으로 인식
- 가족부양과 경제활동을 위해 일반화된 사례로 인식

● 이주 네트워크 중심 Migration Network

- 선행 이주민의 정보공유 시스템으로 이주 네트워크를 재생산
- 이주를 활성화하고 이동의 집단화 강화

● 경로 의존성 Path dependency

- 선행 이주민의 이동 경로를 후속이주민이 반복적으로 선택
- 이주 비용과 위험 감소 목적



마그레브 이주 체제의 재편

기착지화: 경유지에서 체류지로

● EU의 국경외부화정책

■ Morocco

- 이동성파트너십(MP) 아프리카신탁기금(EU TF)지원프로그램:모로코 출발 이주민 통제와 송환(2013)
- 신(新) 지중해 어젠다(2021)

■ Tunisia

- 이동성파트너십(MP): 튀니지 출발 이주민 통제와 송환(2014)
- EU-튀니지 양해각서: 감시와출항통제(2023)

■ Libya

- 리비아해안경비대(Libyan Coast Guard)의 훈련과 장비 지원, 수색·구조(Search and Rescue, SAR) 체계 구축(2017)
- 이웃·개발·국제협력재정기구(ND IC), 리비아 국경지원 임무단(UBAM Libya) 그리고 팀 유럽 이니셔티브(Team Europe Initiative) 등(2020): 대리리비아 경제 지원

마그레브 이주 체제의 재편

체류의 장기화: 정체와 누적의 구조

● 국가별 기착 배경

■ Morocco

- 이종관리방식(배제도 아닌 수용도 아닌 정책)
체류정규화 정책: 자격과 조건이 되는 이주민의 정규화(총2회 약 4만3천명 구제)
국경통제강화정책: 북부 세우타, 멜리아 통제

• 이동과 분산 정책:

남부도시와 농업지역으로 이동 정책
비공식노동시장 편입

→국의 배제 방식이 아닌 역내 순환이동 용인

■ Tunisia

- 출항 차단 정책
출항 이전 단속, 감시 강화
해안도시 중심 체류

• 이주민 배제 정책

샤에드 정부의 정체성의 정치
서비스 중심의 비공식 노동시장 유입

→단기체류+비공식 노동+재출항 반복

■ Libya

- 분절된 통치 구조
지역별 민병대, 무장세력, 브로커 네트워크 주도의 구금 억류

- 저임금 노동 수요
건설, 운송, 유전 하청노동, 비공식 서비스업에 흡수

→체류의 장기화와 재이동 준비

마그레브 이주 체제의 재편

재이동의 반복: 우회와 순환의 이동 구조

● 재이동의 동기

경제이주민

- 경제적 목적과 가족 부양 책임
- 높은 임금과 안정적인 고용기회 추구

난민

- 마그레브 국가의 체계적 난민시스템의 부재
- 난민지위를 받더라도 법적권리 미흡
- 제도적 보호와 생계기반확보를 위해 유럽 이주 선호

마그레브 이주 체제의 재편

재이동의 반복: 우회와 순환의 이동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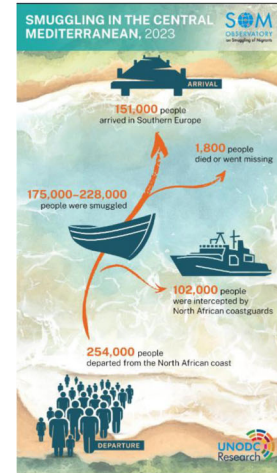
● 재이동의 경로와 방식

브로커 네트워크: 이동의 연결과 조정

- 사전계획단계시부터 경로와 비용 계획
- 이동단계 시 국경통과와 교통 연결, 단속 시 우회경로 모색, 해상 출항 계획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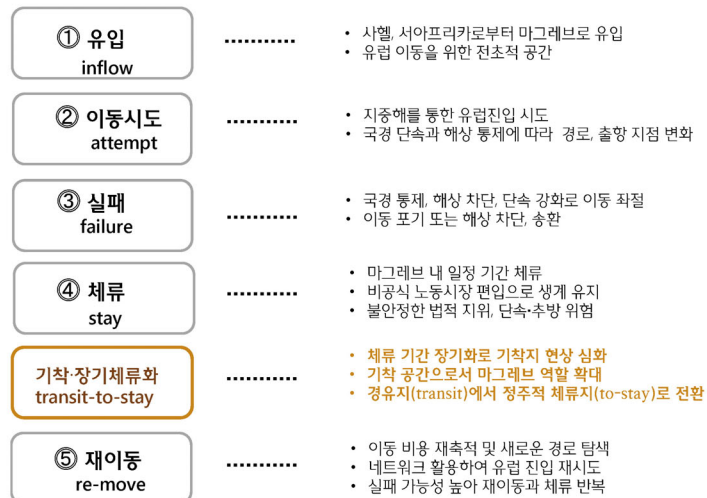
밀입국 시스템: 불법이동의 실행 주체

- 실제 국경 통과, 해상 출항 조직
- 위조 문서 제공



비정규이주의 순환 메커니즘

반복되는
이동사이클





아랍 커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이후
국가정체성으로서의 활용:
사우디아라비아 사례 연구

양 정 아 (선문대학교)

2026 한국중동학회 춘계학술대회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커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이후 국가 정체성으로서의 활용

양 정 아
(선문대학교)

목차

1. 들어가며
2. 아랍커피에서 사우디커피로
3. 대내외 이중 전략
4. 결론

1. 들어가며

- ✓ 전통 아랍커피
 - 공유 문화유산
 - 관대함과 환대의 상징
- ✓ 2015년 ‘아랍커피, 관용의 상징’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요르단(2024년 추가)
- ✓ 2022년 사우디 문화부, 사우디 커피의 해(Year of Saudi Coffee) 지정

2. 아랍커피에서 사우디커피로

✓ 아랍커피의 재맥락화, 사우디 커피로의 명칭 전환

- 상징·법적 차원
 - ‘사우디 커피의 해’ 지정
 - ‘아랍 커피’-> ‘사우디 커피’ 표기 변환 의무화
- 문화유산 차원
 - 2022년 11월 ‘카울라니 커피’ 단독 등재
- 경제 차원(비전 2030)
 - PIF, 사우디 커피 컴퍼니(SCC) 설립 -> 가치사슬 구축



출처: Qahwaworld.com

2. 아랍커피에서 사우디커피로

✓ 사우디아라비아 커피 산업

● 시장 규모와 성장세

- **2021년 14억 리알-> 2025년 30억 리알(연평균 성장률 20.7%)**

● 국내 생산 확대

: 농촌, 산악 농업지역 **60개**의 커피 농장 확장

: 연간 생산량 약 **300톤 -> 2,500톤** 확대 목표

2. 아랍커피에서 사우디커피로

● 내국인 소비가 커피 시장 성장을 견인

- 사우디 청년층이 핵심 소비층

● 로컬 브랜드 강세

- **Barn's, Jazeen**

● 스페셜티 커피의 성장세

- “스페셜티 커피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비교적 최근에 시작되었지만,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사람들이 푸어오버, 사이폰, 에어프레스 등 다양한 추출 방식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원두 자체, 원산지, 가공 방식, 심지어는 재배한 사람까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농장에서부터 커피 한 잔에 이르기까지 원두가 지닌 가치와 스토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입니다.” (아티스트 허브 커피 로스터스 공동 창업자 인터뷰 중)

3. 대내외 이중 전략

✓ 국내 전략

- 사우디 정체성 강화
 - 아랍커피와 차별화를 통해 사우디 고유의 문화유산으로 활용
 - 일상에서 ‘사우디의 것’으로 시각화
 - 한 잔에 담긴 현대적 소비와 젊은 층의 국민 정체성 고취
 - : 현대적인 커피 매장에서 사우디 로컬 커피와 제조 방식을 선보임
- 지속 가능한 가치사슬
 - 커피 생산에서부터 유통, 전문 교육 아카데미까지 운영

3. 대내외 이중 전략

✓ 대외적 활용

- 국가 브랜딩, 소프트 파워 구축
 - 사우디 로컬 원두와 브랜드의 글로벌 시장 진출
 - : 사우디 커피 컴퍼니의 해외 수출 전략 구축
 - : 내수용에서 수출
 - 국제행사에서 환대의 상징으로 사우디 문화유산을 홍보
 - : 2020 두바이 엑스포 사우디 파빌리온에서 사우디 커피 영상 상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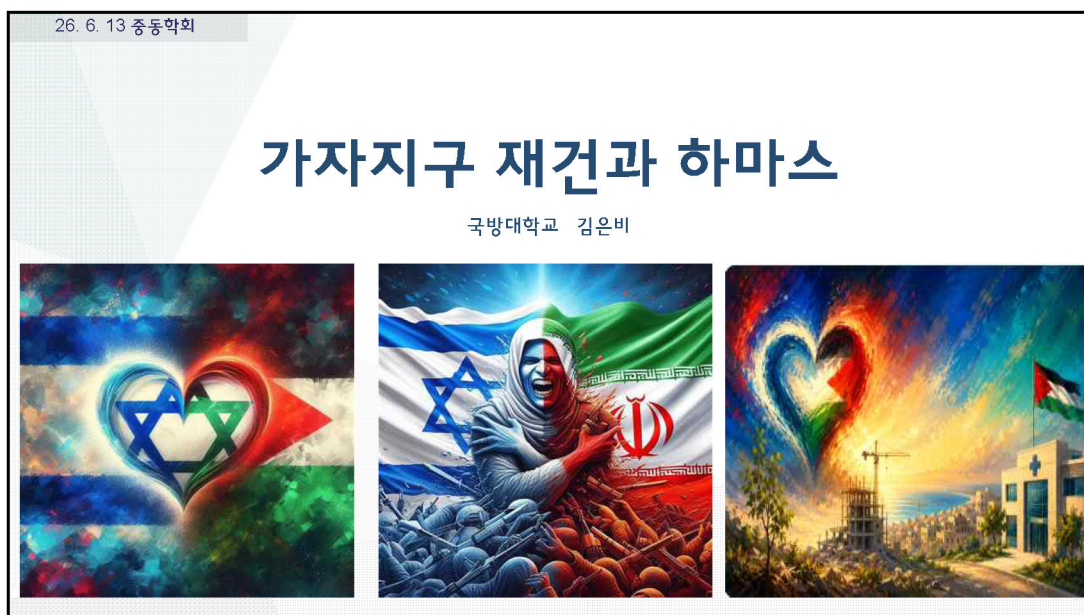
4. 결론

- **2015**년 공동으로 등재된 아랍 커피는, **2022**년을 기점으로 명칭, 유산, 경제적 차원에서 재맥락화
- 사우디 국민들에게는 우리만의 것이라는 자긍심으로, 대외적으로는 세계를 향한 국가 이미지 구축 전략으로 활용
 - 국가 정체성 구축뿐만 아니라 경제다각화, 글로벌 소프트파워 세 축에서 활용

감사합니다

가자 지구 재건과 평화 구축

김 은 비 (국방대학교)



전쟁 후 현황

▶ '25. 10. 13. 이-하 전쟁 휴전

※이-가자 사망 7만 명↑ (+레바논 5천명↑)

▶ 휴전 1단계: 생존 인질 석방 / 수감자 교환 완료

- 이스라엘 인질 21명 복귀, 팔레스타인 수감자 1,809명 인도

전쟁 467일 만에...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북아라비=라지후 복마절

업데이트 2025.01.16. 09:36



이스라엘 인질 20명 전원 귀환...팔레스타인 수감자 석방 시작

수정 2025.10.13 22:15

이영환 기자

▶ 요약

가자 전쟁 737일 만에...하마스-이, 종전 위한 1단계 합의 이행
트럼프, 이 방문 후 이집트서 휴전 서명식...2단계 합의 '안갯속'



전쟁 후 현황

▶ 휴전 2단계 교착

- 하마스 DDR, 이스라엘군 단계적 철수, 국제안정화군 배치, 과도통치 출범, 재건
- BoP
 - “하마스의 검증 가능한 무기 폐기 거부, 강압적 통제 유지, 민간 통치 전환 불허”가 장애물
- 하마스
 - “이스라엘의 일상적 휴전 위반과 통로 제한, 기반시설 복구 자재 반입 제한”

전쟁 후 현황

▶ 휴전 2단계 교착

- 2025. 10. 10.~ 2026. 5. 12. 팔·인 856명 사망, 2,463명 부상 (가자 보건부)
- 대규모 피난·열악한 심터·보건 위험 지속, 필수 장비·부품 반입 제한으로 복구 제약
⇒ “재건 이전 단계”인 접근·반입·안전이 충분히 개선되지 못한 상태
- 이스라엘, 가자 60% 통제 중 ⇒ “70% 통제할 것”
- UNSC 브리핑: “가자 분할이 ‘영구화’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네타냐후 “가자지구 영토 70% 장악하라” 이스라엘군에 지시

이상현 기자

일력 : 2026.05.29 08:19



전쟁이후 가자지구



More than \$50bn needed to rebuild Gaza after Israel's war on enclave

Researchers conclude that \$53.2bn is needed for extensive reconstruction and recovery efforts in Gaza over the next 10 years.



가자지구 재건

\$53B

2025년 IRDNA 기준
가자-서안 복구/재건 수요

\$71.4B

2026년 최종 RDNA 기준
향후 10년 재건 수요

41–47M tons

잔해·폐기물 처리만으로도
고비용 장기 과제

68M tons/\$1.7B

RDNA 기준 폐기물 처리 및
관리

- ▶ BoP 보고: 인프라의 85% 파괴/손상(대규모 정비·복구 필요)
- ▶ 정치/치안 병목이 해결되지 않으면, 물리적 병목(잔해/안전)도 장기화
- ▶ 재건 자금은 치안·거버넌스·검증 없이는 본격 투입 불가
- ▶ 무장해제 지연 ⇒ 투자 중단, 재건 중단 ⇒ 무장해제 인센티브 절감

⇒ **선 재건 Vs. 선 무장해제?**

RDNA: (Interim)Rapid Damage and Needs Assessment

DDR

▶ Disarmament

- 전투원들의 무기 회수·등록·폐기(검증과 안전보장이 핵심)
- 정부군에 대한 상당한 신뢰 담보 필요

▶ Demobilization

- 지휘·동원 구조 해체 및 전투원 전환(치안·보호 제공 필요)

▶ Reintegration(기존의 전투원들을 민간 사회나 정부 안보기구로 통합)

- 경제적 재통합 + 기존 사회로부터 환대/ 화해 + 사회적 재통합 ⇒ 장기적 접근

▶ 1980s 이후 60여 건 시행. “R”의 문제

- 단기 성과(무기 회수)만으로 평화를 보장하지 못함

DDR 실패/지연

▶ Credible Commitment

- 사후보장/검증이 약하면, 무장해제는 “지배적 위협”이 되어 지연(Walter 1997)

▶ Spoilers

- 평화가 권력·이익·정체성을 위협하면, 협상은 하면서도 실질 이행을 방해(Stedman 1997)

▶ Rebel Governance

- 무장조직은 폭력행위자일 뿐 아니라 조세·치안·서비스·행정 기능을 수행(Arjona 2014)

하마스의 DDR

▶ 하마스?

- 1946년 가자지구 무슬림형제단 지부로 형성
- 1987년 1차 인티파다 발발로 독자적 조직으로 부상
- 2006년 팔레스타인 총선에서 총 132석 중 74석(비례 29석, 지역구 45석) 확보(파타 45석)
- 2007년 Hamas-Fatah 내분/무력충돌 이후 사실상 가자지구 통치

▶ 하마스의 성격

- 무장조직
- 점령·사회운동·종교 네트워크 관련 정치·사회적 행위자
- 정치조직
- 행정·치안 제공자

⇒ 기존의 ‘무장조직’만을 대상으로 한 DDR로는 설명 어려움

하마스의 DDR

- ▶ 'R' 이전 'D/D' 과정부터 난제(통치권과 연계)
- ▶ 하마스의 무장은 단순한 “군사 자산”이 아니라 정체성·통치·협상력의 핵심
 - 저항운동의 자기 정당화의 정체성 (무장 포기=정체성 손상)
 - 인질, 무기, 영토 통제의 협상력
 - 치안, 강제력, 행정권 통치
 - 이스라엘 압박과 내부 경쟁에 대응하는 생존
- ▶ 강제적 무장해제= 하마스 약화 가능, but 지속 가능한 질서로 전환 의문

⇒ 무장을 대체할 안전보장·정치적 지위·생계 경로가 필요

가자지구 재건과 DDR 주요 쟁점

◆ 하마스

- 무기 포기는 정체성과 생존의 포기라는 인식
- 통치권 상실 이후 안전보장 불확실

◆ 이스라엘

- 하마스 완전 제거와 비무장화 요구
- 단계적 접근은 재무장 시간 제공으로 인식

◆ 가자 주민

- 치안·식량·의료·거주 공간 부족
- 무장과 재건 사이에서 인도적 비용 부담

◆ 국제사회·공여국

- 검증 없이는 대규모 투입 곤란
- 정치적 정당성 없는 행정구조도 위험

재건과 DDR Trap

- ▶ 무장행위자가 통제력을 유지한 채 재건 시작→ 재건이 통치·재정 기반 강화 → DDR 유인 약화
- ▶ “선 재건 vs 선 무장해제”의 선택보다, ‘순서·검증·인터페이스 설계’가 결여될 때 함정 발생
- ▶ 인터페이스 통제 경쟁 · 조건부/부분 순응 · 외부 안정화 의존 · 정당성 경쟁

무장 잔존 ⇒ 재건 투자 보류 ⇒ 재건 지연 ⇒ 재무장 유인 증가 ⇒ 무장

(무장 통치력 유지 하) 재건 개시 ⇒ 물류, 배급 등 권력자원으로 조직 생존기반 강화 ⇒ DDR 지연

가자지구 재건과 DDR Trap

▶ Commitment Problem

- 휴전 2단계에서 하마스 무기 회수 이전에 누가 무엇을 먼저 비가역적으로 이행할 것인가?
- 선제 비무장화는 정치적 배제·보복·재침공 위험 증가 가능
Vs. 비무장화 없는 재건·철수는 무장조직의 재정비 가능

▶ Spoilers

- 하마스의 비무장
- 이스라엘의 공습, 통제구역 확대, 원조 제한

가자지구 재건과 DDR Trap

▶ Rebel Governance

- 자원 유입에 따른 세력 공고화
- 하마스, 정부기관·치안기구·지방당국에 친화적 인사 배치, 세금 징수, 급여 지급
- 하마스, 약 1만 명의 경찰력과 4만 명 이상의 공무원·치안 인력의 신정부 구조 편입 추진
- “치안, 행정 인허가, 인력 운용, 물류·통관, 조세·수수료, 분배체계”를 누가 통제하는가?
⇒ “행정 연속성”, ‘치안 공백 방지’위해” 기존 무장·통치 네트워크 상당 부분 제도 내부에 보존 가능

가자지구 재건

▶ 재건 목적 자금 \$17B 확보 (BoP)

▶ 검증 가능한 비무장화 요구

▶ 재건-DDR Trap 강화!

- DDR 교착 → 자금 집행 지연 → 서비스/치안 악화 → 강제력 기반 거버넌스 유인 증가

결론

- ▶ 재건은 중립적인가?
⇒ 무장조직 통치력 강화 변수!
- ▶ DDR 설계
 - 의지만으로는 불충분!
 - 검증 가능한 보장, 치안/허가/분배 설계가 핵심
- ▶ 외부 세력의 유용성?
- ▶ 레바논/헤즈볼라는?

감사합니다

김은비(srain11@korea.kr)



제2부

[제2부 3분과]

중동 질서 재편 속 분쟁국 재건 담론과 서사의 형성:
언어·문학·통번역의 매개 구조

언어·문학 분과
오바마홀 국제회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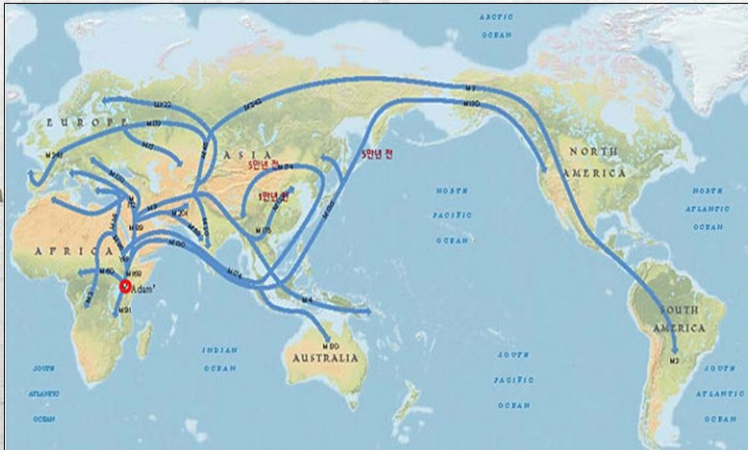
- 고전아랍어와 암하라어의 생성과정 고찰: 음운론적 특징을 중심으로
고재우 (한국외국어대학교)
- 학문 권력의 재배치: 아랍어문학 연구와 걸프 지역의 전략적 부상
백혜원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 종교적 금기 요소 번역에서의 생성형 AI 활용 가능성 탐색
김보영 (단국대학교)

고전아랍어와 암하라어의 생성과정 고찰:
음운론적 특징을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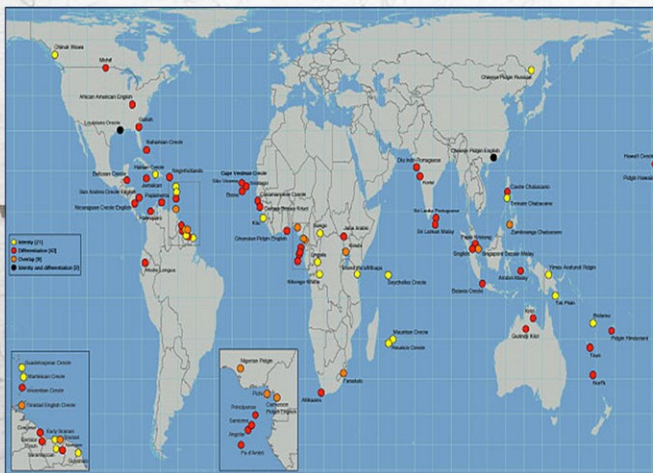
고 재 우 (한국외국어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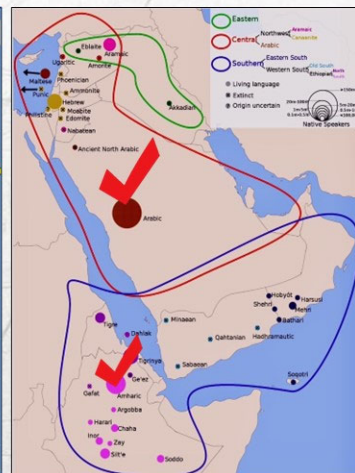
상이한 언어를 구사하는 인류집단 간 원활한 소통과 교류
 → 초기에는 수신표, 후대에는 링구아프랑카(Lingua Franca) 활용



→ 피진어 (Pidgin), 크레올어 (Creole)



<피진어와 크레올어의 분포>



<셈어파의 분포>

고전아랍어
 암하라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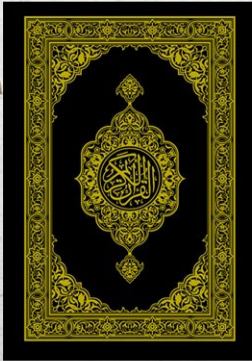
음운적

고전아랍어



- (1) 사도 무함마드와 꾸라이쉬부족에 대한 예찬 -> **꾸라이쉬 부족방언 (아라비아반도 서부지역)**
- (2) 아랍 중세시대 학자들의 객관적 자료 수집 지역 -> **아라비아반도 중부지역**
- (3) 시 유작의 다량 출토 -> **아라비아반도 동부지역**

꾸라이쉬 부족방언이 아닌 타(他) 방언의 특징이 코란에서 **다수 발견됨**



لذلك!

아랍어의 다양한 방언을 구사하는 **수많은 부족이 산재**
무역과 학문교류의 중심지인 **메카** 관할 부족인 **꾸라이쉬 부족**
타 부족민이 **꾸라이쉬 부족방언을 습득** -> **피진화, 크레올화**
(아랍어 코이네- 공통어로 발전)

لكن!

그러나, 모든 아랍인이 시적 코이네를 구사하지 않았음
+ 영토확장을 통해 마왈리들(비아랍인 무슬림)이 대거 유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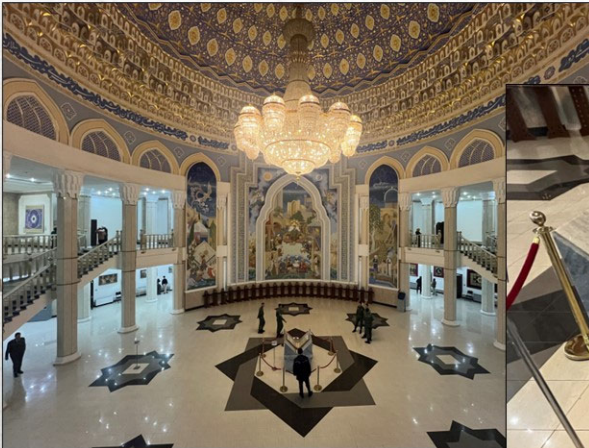
네 명의 정통칼리파 시기 **코란 성문화 작업** ->

우스만 시기 **코란 정본 완성**

이후 **자음구별점**과 **모음표기 방식**이 고안되며 현대의 코란이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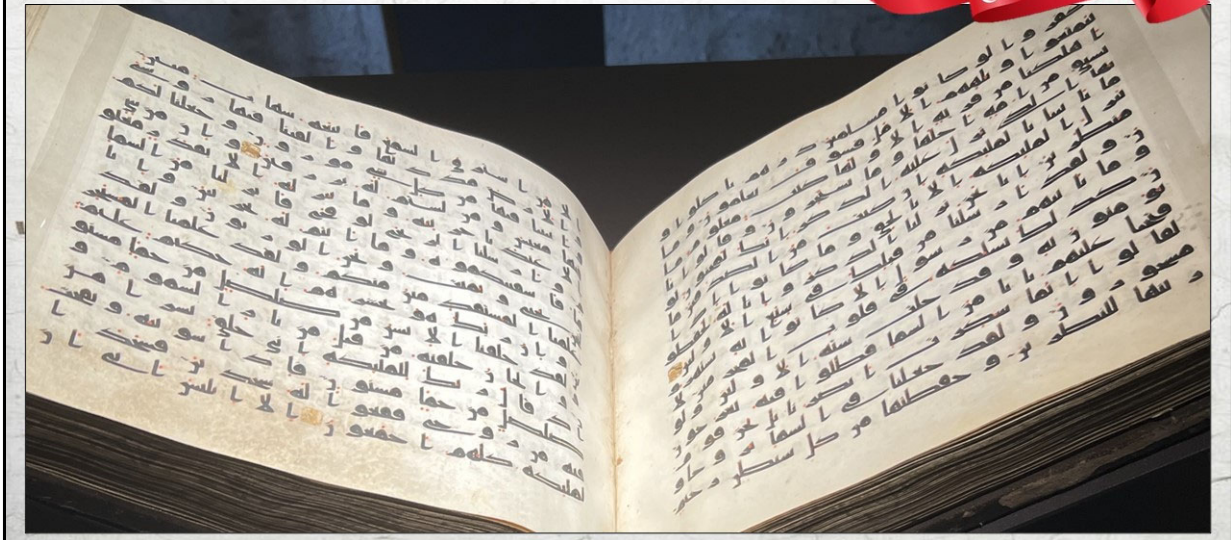
고전아랍어

Tashkent, Uzbekistan



고전아랍어

Istanbul, Türkiye



고전아랍어

Istanbul, Türkiye



고전아랍어



① 장모음 ā 의 발음 방식

꾸라이쉬 부족

해당 모음을 대부분의 경우
어떠한 음운변화도 가하지 않았지만,
때때로 장모음 ā로 발음
(강세음화 <تفخيم>)

타밈 부족

장모음 ā로 발음
(이말라 <إمالة>)

코란 성문화 과정을 통해 정립된 고전아랍어의 표준음운에는 강세음화의 결과인 장모음 ā와 이말라 현상의 결과인 장모음 ā
모두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코란암송 시 이말라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함.
مكيه 알키탱에서 이말라 현상의 원인을 특정모음 뒤에 단모음 i가 사용될 경우, 해당 모음을 단모음 i와 유사하게 발음하길 원하는 아랍인의 발음경향성 때문이라 밝힘.

الشيرازي: 단모음 a와 장모음 ā를 각각 단모음 i와 장모음 ī로 변화하게 하는 이말라 현상의 목적을 음성간 조화 부여라 제시함.

الماعيني: 강세음과 비강세음이 한 어휘 내에서 연속하여 사용되었을 때, 이말라 현상이 강세음을 비강세음화 하여
양 음 간 조화와 상호유사성을 제공한다고 기술함.

비록 장모음 ā에 대한 고전아랍어의 표준음운으로는 꾸라이쉬 부족방언이 바탕이지만,
타밈 부족방언의 특징인 이말라 현상이 아랍인의 조음습관에 지속적으로 활용된 것을 알 수 있음.

고전아랍어



② 자음 ʾ의 발음 방식

꾸라이쉬 부족

ʾ 발음을 극도로 배제
(탈락, ʾ가 사용된 직전 자음의
단모음을 장모음화, ʾ사용 모음을 토대로
ʾ를 ياء 혹은 واو로 치환)

타밈 부족

ʾ 발음을 정확히 함을 넘어,
극대화하였다고 전해짐

코란을 암송할 때는 ʾ 발음이 필수적인 이유로, 타밈 부족방언의 음운적 특징이 수용.

자힐리야 시대에도 ʾ를 명확히 발음하는 것이 생략하거나 타 자음으로 대체하는 발화방식 보다
우수하고 고급스러운 방식으로 간주된 것이 원인.

이로 인해, 코란 성문화 과정 이전에도 여러 부족방언으로 기록된 코란과 시 암송법에
ʾ 발음이 널리 반영되어 있었음.

이러한 ʾ 발음이 코란과 당시 최상의 문화예술인 시문학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이유로,
ʾ 발음을 회피하였던 꾸라이쉬 부족조차도 이를 활용하는 경향성이 일부 나타났다는 المسعود의 기록.

더 나아가, أبو أسود الدولي가 고안한 ʾ표기가 코란에 반영되면서, 타밈 부족방언의 음운적 특징인
ʾ 발음이 고전아랍어의 표준음운으로 자리매김 함.

고전아랍어		
③ 자음 ق의 발음	꾸라이쉬 부족 유성음 /g/음운	타밈 부족 무성음 /q/와 무성음 /k/의 중간음운
④ 미완료동사 주어표지어의 모음	꾸라이쉬 부족 단모음 a	타밈 부족 단모음 i (ناتئة 현상)
⑤ 2인칭 여성단수 접미인칭 대명사	꾸라이쉬 부족 ki	타밈 부족 ji

고전아랍어		
⑥ 중복동사의 3형과 8형 미완료동사 단축법	شاقَّ، ارْتَدَّ	
	꾸라이쉬 부족	타밈 부족
8장 13절	يُفَاعِعُ مَنْ يُشَاقِقِ	يُفَاعِعُ مَنْ يُشَاقِقُ 59장 4절
2장 217절	يَفْتَعِعُ مَنْ يَرْتَدِدُ	يَفْتَعِعُ مَنْ يَرْتَدِّ 5장 54절

고전아랍어

	꾸라이쉬 부족방언	타밋 부족방언	고전아랍어
① 장모음 ā의 발음 방식	장모음 ā 혹은 장모음 ǝ로 발음	장모음 ē로 발음	꾸라이쉬 부족방언의 방식을 채택
② 자음 ʾ의 발음 방식	ʾ 발음 배제	ʾ 발음 극대화	타밋 부족방언의 방식을 채택
③ 자음 ǧ의 발음	/g/	/q/와 /k/의 중간음	꾸라이쉬 부족방언의 방식을 채택
④ 미완료동사 주어표지어의 모음	단모음 a	단모음 i	꾸라이쉬 부족방언의 방식을 채택
⑤ 2인칭 여성단수 접미인칭대명사	ki		꾸라이쉬 부족방언의 방식을 채택
⑥ 중복동사의 3형과 8형 미완료동사 단축법	중복동사 3형 미완료동사 단축법은 يَفْعَع 형태 중복동사 8형 미완료동사 단축법은 يَفْعَع 형태	중복동사 3형 미완료동사 단축법은 يَفْعَع 형태 중복동사 8형 미완료동사 단축법은 يَفْعَع 형태	혼재

암하라어



기원후 1~3세기 경: **셈어파의 이주**
악숨왕국 건국 (게즈어 사용)

4세기 중엽: 현재 '암하라'라 불리는 지역까지
악숨왕국의 영토가 확장됨

4세기 중엽~7세기: 초기 암하라어가
게즈어와의 공통조상으로부터 **파생** 및
쿠쉬어파, 오로모어파와의 **피진 · 크레올화**
-> **암하라어 생성**

그러나, 암하라어는 **800여 년 동안**
구어로만 사용됨

암하라어의 피진 · 크레올화 생성 가설을 주장한
학자들이 제시한 어휘, 음운, 형태, 통사적 근거는
모두 현대 암하라어를 기준

암하라어



① 신(新)음운 형성

암하라어: 총 31개 음운
 바예(Baye): 5개 음운이 쿠쉬어파 및 오로모어파의 영향을 받아 생성되었다고 주장
 ሸ *shä*, ሸ *čä*, ሸ *ñä*, ሸ *gä*, ሸ *čä*
 Sh음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음운은 현대표준아랍어(MSA), 현대 히브리어 그리고 암하라어와 공통조상을 가지는 게즈어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

② 인두음 및 성문음 활용 기피

기르마: 셈어파의 특징인 인두음과 성문음을 음운으로 가지는 자음의 개수는 증가 그러나, 음운의 종류는 감소
 바예: 해당 음운변화를 쿠쉬어파 및 오로모어파의 영향이라 주장

문자	16세기 무렵 음운 (음운 분류)	현재 음운 (음운 분류)
ሀ	/h/ (성문음) ሀ	/h/ (성문음) ሀ
ሐ	/h/ (인두음) ሐ	
ኀ	/kh/ (연구개음) ኀ	/?/ (성문음) ሐ
አ	/ʔ/ (성문음) ሐ	
ዐ	/ʕ/ (인두음) ኀ	

암하라어



음운적

암하라어의 일부 어휘에서는
 인두음이 성문음으로 대체되지 않고 아예 탈락!

② 인두음 및 성문음 활용 기피

의미	16세기 무렵	현재
그가 들었다	sämmaṣ	sämma
그가 승리했다	rättaṣ	rätta
그것이 깨끗했다	näṣṣaḥ	näṣṣa

암하라어는 쿠쉬어파와 오로모어파의 영향으로
 인두음과 성문음을 대부분 상실!

인두음 및 성문음은 Säṛat (시간), siṛil (사진)
 등과 같은 소수의 어휘에만 잔존



암하라어: 비셈어파(쿠쉬어파, 오로모어파)와의
오랜 기간 지속된 접촉과 교류
→ 쿠쉬어파와 오로모어파에 속한 모든 언어를
본 연구에 언급하기에는 **연구력의 한계가 존재**

오로모어파의 경우 현대에 이르러서야 성문화되어
암하라어가 생성되었다고 추정되는
4~7세기의 언어학적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재**

셈어파 비교언어학의 연구를 지속하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

‘아랍어’연구에만 집중된 국내 셈어파
비교언어학 연구의 **지평 확대에 일조**

참고문헌

- 강범모, 『언어: 풀어 쓴 언어학개론 개정 4판』, 서울: 한국문화사, 2020.
- 고재우, “고전아랍어(Classical Arabic)와 암하라어(Amharic)의 생성과 언어적 특징에 대한 고찰,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4.
- 공일주, 『아랍어 음성학』, 서울: 송산출판사, 1993.
- 송경숙 · 전완경 · 조희선, 『아랍문학사』, 서울: 송산출판사, 1992.
- 오명근, “아랍어 양층언어현상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 윤용수, “아랍어의 문제점과 개선안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 _____, “꾸란의 편찬과 아랍어의 성문화에 관한 연구”, 『한국중동학회논총』, 제 23-1호, 2002.
- _____, “히자즈와 타미 방언의 비교 연구”, 『한국중동학회논총』, 제 23-1호, 2002.
- _____, “꾸란의 언어 변종에 관한 연구”, 『아랍어와 아랍문학』, 제 9집 2호, 2005.
- 윤은경, “아랍어 사전의 기원에 대한 연구 - 키타브 알 아인(Kitāb al-ʿayn)을 중심으로”,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 20-1호, 2010.
- 윤은경&김동환, “이슬람 금융 용어에 대한 형태·의미론적 연구 - Mufaṣṣalah 형태를 중심으로”, 『아랍어와 아랍문학』, 제 18-2호, 2014.
- 이병학, 『종합아랍어 문법: 01 어형과 품사편』, 파주: 문예림, 2014.
- _____, 『종합아랍어 문법: 02 구문편』, 서울: 문예림, 2014.
- 최진영, “코란의 성문화와 중세 아랍어의 발전과정에 대한 연구”,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 24-2집, 2014.
- 최영길, 『성 꾸란 의미의 한국어 번역』, 메디나: 파하드 국왕 꾸란 출판청, 이슬람력 1442.

참고문헌

- al-Sharkawi, Muhammad. 『History and Development of the Arabic Language: From Pre-Islamic times to the age of Conquests』, New York, Routledge, 2017.
- Appleyard, David. 『Colloquial Amharic The Complete course of Amharic』, 2nd Edition, Routledge, 2013.
- Demeke, Girma Awgichew. 『The Origin of Amharic』, 2nd Edition, The Red Sea Press, 2014.
- Dillmann, August. Carl Bezold (ed.), Jams A. Crichton (trans.) 1907 (Translated Edition), 『Ethiopic Grammar』, London; Amsterdam, Philo Press, 1899.
- Ferguson, C.A. The Ethiopian Language Area. In M. L. Bender, J. D. Bowen, R. L. Cooper and C. A. Ferguson (eds.). 『Languages in Ethiopia』,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6.
- Glinert, Lewis. 『Modern Hebrew An Essential Grammar』, 4th Edition, Routledge, 2016.
- Hetzron, Robert. 『Ethiopian Semitic Studies in Classification』, Cambridge,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72.
- Huehnergard, John. Pat-El, Na'ama, editor. 『The Semitic Languages』, London; New York, Routledge, 2019.
- Kane, Thomas Leiper. 『Ethiopian Literature in Amharic』, Wiesbaden: Harrassowitz, 1975.
- Nicholson, Reynold. 『A Literary History of the Arab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 Rabin, C. 『Ancient West-Arabian』, London, Taylor's Foreign Press, 1951.
- Versteegh, Kees. 『The Arabic Language』, 2nd Edition,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14.
- Yimam, Baye. 『Yamariñña säwasäw (Amharic Grammar)』, 2nd Edition, Addis Ababa, Birhanina Selam Printing Press, 2000 E.C.

참고문헌

- إبراهيم السامرائي، في اللهجات العربية القديمة، دار الخداست، بيروت، 1994 م
- الشيرواني: نصر بن علي محمد أبي عبد الله الفارسي النحوي، الموضوع في وجوه القراءات وعليها، ج 1، تح عمر حمدان الكبيسي إشراف: عبد الفتاح إسماعيل شلبي، رسالة مقدمة لنيل درجة الدكتوراه في فرع اللغة، جامعة أم القرى، السعودية، 1408 هـ / 1987 م.
- أيمن علي العتوم، اسم المفعول في القرآن الكريم، الرسالة استكمالاً لمتطلبات درجة الماجستير في اللغة العربية، الجامعة الأردنية، 2004 م.
- خلود رويمل؛ وداد بوالزليفة، الدلالة الصوتية لظاهرة الإمالة في القرآن الكريم: نماذج مختار، مذكرة مكملة لمتطلبات نيل شهادة الماستر في اللغة والأدب العربي، جامعة محمد الصديق بن يحيى تاسوست، الجمهورية الجزائرية الديمقراطية الشعبية، 2021 م.
- رمضان عبد التواب، فصول في فقه العربية، القاهرة، مكتبة الخانجي، 1987 م.
- سيدي إبراهيم المارغيني، النجوم الطوابع على الدرر اللوامع في أصل أقرأ الإمالة نافع، دار الفكر للطباعة والنشر والتوزيع، بيروت، لبنان، د ط، 1415 هـ / 1995 م.
- سيبويه: أبو بشر عمرو بن قنبر، الكتاب، ج 4، عبد السلام محمد هارون، مكتبة الجانجي القاهرة، مصر، دار الرفاعي، الرياض السعودي، ط 2، 402 هـ / 1982 م.
- عبد الرحمان ايوب، العربية ولهجاتها، القاهرة، 1968 م.
- عقيل جاسم دهش العذاري، الأفعال المعتلة في القرآن الكريم: دراسة لغوية، متطلبات نيل درجة الماجستير في اللغة العربية وآدابها، جامعة الكوفة، 2004 م.
- مختار الغوث، لغة قريش، الناحي الأدبي، الرياض، 1992 م.
- مسعود بوبو، في فقه اللغات العربية، جامعة دمشق، دمشق، 1995 م.
- مصطفى ريب، الإنتقان في عموم القرآن، دار ابن كثير، 1987 م.
- שלומית חייט: שרה ישראלי: הילה קובליר, עברית מן ההתחלה, ירושלים, האוניבסיטה העברית, 2019.

감사합니다

شكرا جزيلًا

አመሰግናለሁ

학문 권력의 재배치: 아랍어문학 연구와 걸프 지역의 전략적 부상

백 해 원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본 연구는 최근 국제질서의 변화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재편 속에서 걸프 국가들이 단순한 경제·에너지 중심지를 넘어 새로운 학문적 성과를 창출하는 주요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한다.

특히 최근 들어 아랍어문학 연구의 중심축이 전통적으로 축적되어 온 이집트·레반트 중심의 학문 권력 구조에서 점차 걸프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기존의 아랍어문학 연구는 카이로, 베이루트, 다마스쿠스 등 역사적 문화 중심지를 축으로 형성되어 왔으며나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대규모 문화 투자와 번역 프로젝트, 국제도서전, 문학상, 번역상 운영, 국제학술대회 운영 등은 아랍어문학의 생산·유통·번역·연구 지형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변화를 단순한 문화 후원 현상이 아니라 “학문 권력의 재배치”라는 관점에서 분석한다. 걸프 국가들은 석유 기반 경제 구조의 탈피와 국가 브랜드 전략의 일환으로 문화, 인문학 영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아랍어문학 연구의 방향성과 연구 자원의 흐름 및 이 분야에서 생산된 지적 성과물에 대한 평가 및 가치부여 등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관련 분야의 연구자들 또한 연구비와 아카이브, 학술 네트워크 접근성을 중심으로 걸프라는 새로운 학문적 중심지에 편입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걸프 지역의 다양한 기관 및 단체들과 협업하여 진행한 프로젝트, 직접 참여한 국제 학술대회 및 번역, 문학 시상식 등의 경험적 사례들을 토대로 걸프 지역의 전략적 부상이 단순한 지역적 성장 현상이 아니라, 아랍어문학 연구의 권력 구조와 지식 생산 체계 자체를

재구성하는 과정임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오늘날 아랍어문학 연구가 직면한 새로운 학문적 지형과 그 함의를 조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향후 한국의 아랍어문학 연구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참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 또한 함께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키워드: 아랍어문학 연구, 통번역 연구, 걸프 국가, 학문 권력의 재배치

종교적 금기 요소 번역에서의 생성형 AI 활용 가능성 탐색

김 보 영 (단국대학교)

본 연구는 신경숙의 소설 『엄마를 부탁해』에 나타나는 종교적 금기 요소의 아랍어 번역을 대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한 질적 사례연구이다. 연구 대상은 해당 소설에 등장하는 돼지고기, 술, 타종교, 성상(聖像) 등 이슬람 문화권 독자에게 종교적·문화적으로 민감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으로, 생성형 AI가 이러한 요소를 어떻게 번역하고 조정하는지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ChatGPT 5.5 Instant를 활용하여 동일한 텍스트에 대해 기본 프롬프트인 ‘제로샷 프롬프트’, 번역 목적과 목표 독자 정보를 제공하는 ‘번역 브리프 프롬프트’, 문화적 맥락에 맞게 설계된 ‘상세 프롬프트’, AI에 아랍인 문학 번역가라는 역할을 심어준 ‘역할 할당 프롬프트’의 네 가지 조건으로 번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생성형 AI의 경우 프롬프트 유형에 따라 번역 양상이 달라졌으며, 특히 상세 프롬프트와 역할 할당 프롬프트가 목표 독자의 종교적·문화적 특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생성형 AI가 적절한 맥락 정보와 역할 지시를 제공받을 경우 문학 번역에서 종교적 금기 요소와 같은 문화적 민감성을 고려한 번역을 수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제2부

[제2부 4분과]

중동 정세 변화에 조응하는 종교적 해석과역사적 기억

종교·역사 분과

본관 115호

- 플라톤의 “하나와 대소(또는 부정 이원성)” -고대 근동과 이슬람 수학/철학의 영향
박 제 남 (인하대학교)
- 정착 식민주의로서의 시온주의와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 노력(1919~현재)
홍 미 정 (단국대학교)
- 중동 지역 불교 수용의 변화상
정 진 한 (안양대학교)
- 이란의 환경 문제와 소수민족 권리 문제의 영향
황 의 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플라톤의 “하나와 대소(또는 부정 이원성)” -고대 근동과 이슬람 수학/철학의 영향

박 제 남 (인하대학교)

발표 요약문

0. 도입

플라톤의 텍스트를 세 가지 관점, 즉 역사, 수학, 철학의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분석하는 경향이 최근에 일고 있다. 이는 동지중해의 문화교류를 주목하는 것으로 고대 근동과 고대 그리스의 교류 역사가 왜 플라톤 연구에 필요한가를 말하고 있다. 한편, 수학과 관련해선 무리수와 현대 수학 용어 (무한 단순)연분수와 관련이 있는 앤티페어레이시스(anthypharesis)의 연구는 플라톤 철학을 연구하는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S. Negerpontis와 A. Papadopoulos (2025), 그리고 S. Negerpontis, V. Farmaki, M. Brokou(2020)는 플라톤적 이데아, 즉 지성적 존재(intelligible Being)를 철학적 상호 나눗셈(philosophic anthypharesis)에서 기하학적 이원성(geometric dyad)의 구조로 해석하고 있다. 1945년 현대 논리학과 분석철학의 거장인 버트런드 러셀(Bertrand Russell)은 “플라톤 연구자는 그리스어뿐 아니라 수학도 알아야 한다.”를 다음과 같이 비판적으로 말한다(A History of Western Philosophy, p. 132 재인용).

주목할 만한 사실은, 현대의 플라톤주의자들이 거의 예외 없이 수학에 무지하다는 점이다. 이는 플라톤이 산술과 기하학에 부여했던 지대한 중요성, 그리고 그것들이 그의 철학에 행사한 막대한 영향력을 고려하면 더욱 두드러진다. 이러한 현상은 학문적 전문화가 초래하는 폐해의 한 사례라 할 수 있다. 플

라톤에 관해 글을 쓰려는 사람은, 플라톤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겼던 학문들을 배울 시간을 전혀 갖지 못할 정도로 젊은 시절을 그리스어 공부에만 바쳐서는 안 된다.

플라톤의 대화들에서 우리는 그가 수학에 많은 관심이 있었으며, 연구를 장려했음을 알 수 있다. 플라톤은 "세상은 수로 이루어져 있다"는 피타고라스적 생각을 이어받으면서도, 단순히 수를 세는 게 아니라 수가 존재하는 이유와 본질을 탐구했다. 아리스토텔레스(『형이상학』 987b19-22)에 따르면 플라톤은 ‘unwritten doctrin’으로 알려진 두 개의 원리를 표명했다고 한다.

Since the Forms are the causes of all other things, he thought their elements were the elements of all things. As matter, the Great and Small were Principles; as substance, the One; for from the Great and the Small, by participation in the One come the Forms, the Numbers (*Metaphysics* 987b19-22). (형상들이 다른 모든 것들의 원인이므로, 그는 그 형상들의 요소들이 곧 만물의 요소들이라고 생각하였다. 질료로서는 ‘대(大)와 소(小)’가 원리들이며, 실체로서는 ‘하나’가 원리이다. 왜냐하면 대와 소로부터, 하나에의 참여를 통하여 형상들, 곧 수(數)들이 생겨나기 때문이다(『형이상학』 987b19-22)).

위 구절은 Aristotle의 『Metaphysics』 A권(987b19-22)에서, 그가 해석한 플라톤의 원리론을 요약하는 대목이다. 여기서 언급되는 학설은 통상 “하나와 대소(또는 부정 이원성)” 이라 불린다. 이는 대화편의 명시적 진술이라기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전승된 플라톤의 학설(특히 ‘unwritten doctrin’)¹⁾을 재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본 발표에서 우리는 플라톤의 하나와 대소(또는 부정 이원성)를 (1) 현재까지 100여 년간 3가지 방법으로 어떻게 해석해 왔고, (2) 각 해석에서 고대 근동의 영향 가능성 또는 아랍 학자의 역할을 알아보았다.

1. 첫 번째 해석: One and The Little More or The Little Less

괄목할 만한 첫 번째 해석은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Taylor(1926; 1927)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다시 Thompson (1929)에 의하여 확장되고 Bulmer-Thomas(1983)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수정된다. Taylor는 부정의 이원성을 현대수학에서 부르는 연분수(continued fraction)로 연결시킨다. 이에 따라서 그는 에피노미스의 구절(990c5-991b4)을 '실수'의 최초 발견에 대한 문학적 기록이라고 주장하였다.

Taylor(1926)는 『국가』 546c에서 “5의 rational diameter 7”를 사용한다. 이는 Theon of Smyrna와

1) O'Brien, C. S. (2025). *Plato's Unwritten Doctrin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Proclus의 주장을 인용하면 식 $y^2 = 2x^2 \pm 1$ 의 해 $(x, y) = (5, 7)$ 이다. 여기서 연속적인 해 $x = 1, y = 1; x = 2, y = 3; x = 5, y = 7; x = 12, y = 17$ 등을 적당한 시도를 반복하면 구할 수 있다. 이때, 일반적인 패턴은 이미 피타고라스학과 때에 알려진 유클리드의 『원론』II, 명제2를 사용하면 x, y 가 $y^2 = 2x^2 \pm 1$ 을 만족하는 정수이면 $x + y, 2x + y$ 역시 $y^2 = 2x^2 \pm 1$ 을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식 $2x^2 = y^2 \pm 1$ 의 정수해 (a, b) 는 기하적으로 말하면 이등변삼각형이 직각삼각형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직각보다 적은 각에서 접근하는 변들은 식 $2x^2 = y^2 - 1$ 의 정수해들이고 직각보다 큰 각으로 접근하는 변들은 $2x^2 = y^2 + 1$ 의 정수해들이다. 비율로 말하면 $\{1/1, 7/5, 41/29, 239/169, \dots\}$ 등은 $\sqrt{2}$ 보다 적은 분수들로서 점점 $\sqrt{2}$ 로 가까이 가고, 반면 $\{3/2, 17/12, 99/70, 577/409, \dots\}$ 등은 $\sqrt{2}$ 보다 큰 분수들로서 점점 $\sqrt{2}$ 로 가까이 간다. 큰 것과 작은 것의 이원성에 잘 들어맞는다.

“하나와 대소(또는 부정 이원성)”이란 큰 것(great)과 작은 것(small)의 이원성이다(Bulmer-Thomas 1983, 375). 그는 1933년에 Becker가 주목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Topics* 8. 3, 158b29-35에 기반하여 앤티페어레이시스를 무리수를 표현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본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무정형의 이원성(큰 것과 작은 것의 이원성)은 큰 분수들과 작은 분수들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큰 것과 작은 것의 이원성은 무리수 $\sqrt{2}$ 이 작은 쪽에서 증가하면서 다가가는 분수들과 큰 쪽에서 감소하면서 다가가는 분수들로 유일하게 표현될 수 있음을 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수학자로 테아이테토스(c. 414-369 B.C.E.)나 에우독소스(Eudoxus, d. ca. 355 B.C.E)를 의심 없이 들 수 있다. 그리스 수학의 발전에서 앤티페어레이시스의 중요성을 강조한 D. Fowler는 이 이론을 테아이테토스(Theaetetus, ca. 414-369 B.C.E)의 업적으로 여긴다.

1) 고대 이집트

우리는 발표에서 이등변삼각형이 직각삼각형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고대 이집트 수학에서 찾아 그 관련성을 제시할 것이다.

2) 아랍 주석가

아랍 주석가들은 비례론과 무리수 설명에서 “무한”히 계속되는 나눗셈/차이 과정을 언급하는데, 이에 대하여 자세히 다룰 것이다. 이로부터 우리는 플라톤 시대에 앤티페어레이시스가 무한단순연분수로 이어졌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1950년 E. B. Plooi의 박사학위 논문을 참고할 것이다.

2. 두 번째 해석: One and Indefinite Two

특히, 최근 Kevi Karn(2018)는 Julia Annas(1976)의 *Metaphysics Books M and N*을 바탕으로 “부

정 이원성”을 “부정의 Two”로 해석한 것을 기반으로 이진법적 해석을 내놓았다(Annas 1976, pp. 49-51).

"(부정의 2)는 2의 거듭제곱을 생성하는 기능을 하지만, 동시에 짝수를 생성하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2의 거듭제곱은 최고로 이상적인 짝수로 여겨진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역할 사이에는 명백한 간격이 존재한다." 또한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만약 1과 부정확한 2가 각각 홀수와 짝수를 생성한다면, 그것은 숫자들을 상당히 포괄적인 방식으로 생성하고, 대화에서도 그 율임을 발견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아리스토텔레스의 비판과 알렉산더 같은 그리스 주석가들의 태도를 설명한다. 그러나 2는 모든 짝수를 생성하지 않았고, 오직 2의 거듭제곱만 생성했다. 2의 거듭제곱과 홀수들을 합쳐도 '모든 숫자'에는 이르지 못한다."

이에 대한 Kam의 주장을 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플라톤의 제1원리인 하나(the One)의 역할을 볼 수 있다.

[표1. 부정의 2와 하나의 역할]

자연수	하나와 부정의 2	현대적 이진법 표현
1	1	1
2	2	10
3	2+1	11
4	2 ²	100
5	2 ² +1	101
6	2 ² +2	110
7	2 ² +2+1	111
8	2 ³	1000
9	2 ³ +1	1001

1) 고대 이집트의 이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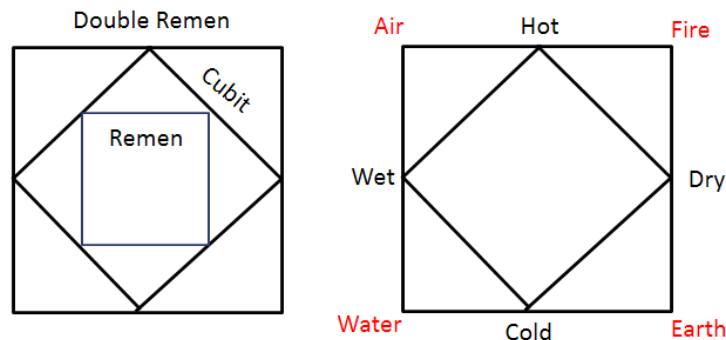
현대수학에서 말하는 이진법의 뿌리는 고대 이집트의 산술체계에 두고 있다. 곱셈식은 동일한 수를 여러 번 더하는 것으로 고대 이집트인은 그 덧셈의 횟수를 줄이기 위하여 이진법을 도입한다. 한편, 그들은 1보다 적은 수(예를 들면 $\frac{5}{8} = \frac{1}{2} + \frac{1}{8}$)를 $\frac{1}{2}$ 의 거듭제곱의 합으로 표현한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frac{1}{2}, \frac{1}{4}, \frac{1}{8}, \frac{1}{16}, \frac{1}{32}, \frac{1}{64}$ 을 산술에서 사용하였다. 실제 $\frac{21}{8}$ 고대 이집트의 이진체계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표2. 21/8의 이진법 표현]

1	8
\ 2	16
\ 1/2	4
1/4	2
\ 1/8	1

따라서 21/8은 $2 + 1/2 + 1/8$ 이고 현대 이진기호로 $(10.101)_{(2)}$ 이다.

고대 이집트의 길이단위체계는 Royal Cubit-Remen-Double Remen으로 산술적으로 등비수열 $1/\sqrt{2} < 1 < \sqrt{2}$ 을 이루며 기하적으로 동심정사각형(Concentric Squares)으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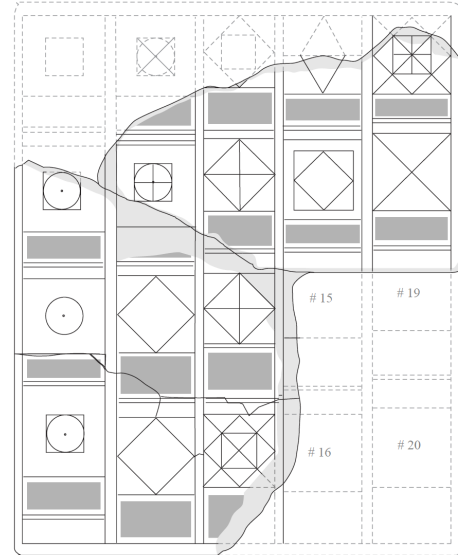
[동심정사각형의 고대 이집트의 길이단위체계와 고대 이집트의 4원소론²⁾]

가장 큰 정사각형의 넓이는 2이고 연속되는 정사각형들의 넓이는 1, 1/2, 1/4, 1/8 등으로 자연스럽게 1/2의 거듭제곱을 얻는다.

2) George G. M. James, *Stolen legacy: The Egyptian origins of western philosophy*,

- It is the oldest teaching of physical science and has been traced to the Egyptians, as far back as 5000 B.C.
- It shows that Plato and Aristotle derived their doctrines or portions of them from the Egyptia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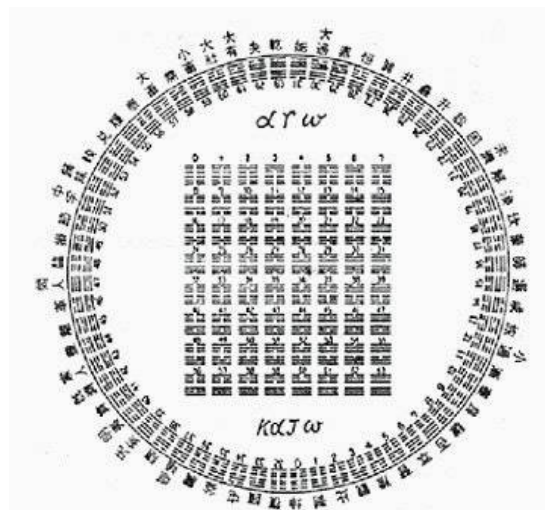
[참고] 고바빌로니아(Old Babylonia 1900-1600 B.C.E)의 동심정사각형(concentric squares) 관련 문제 (BM 15285, 오른쪽 그림 참고)³⁾



2) 중국의 주역과 유럽의 이진법 체계 구축

고대 이집트의 이진법 산술체계 이후 유럽에서 라이프니츠(Gottfried Leibniz, 1646-1716) 스스로 이진법체계는 본인의 업적이라 주장한다. 물론 이에 대한 연구윤리문제는 발표에서 다루도록 하겠다(Lande 2014; Ares *et al*, 2017).

라이프니츠는 인간의 모든 사고를 기호화하여 계산할 수 있는 보편 언어인 보편 기호학을 구상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완벽한 도구로 이진법을 도입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고대 중국의 철학서인 주역을 우연히 만나면서 지식론적으로 더욱 견고해졌다. 그는 예수회 선교사 부베를 통해 복희가 창안한 괘의 배열을 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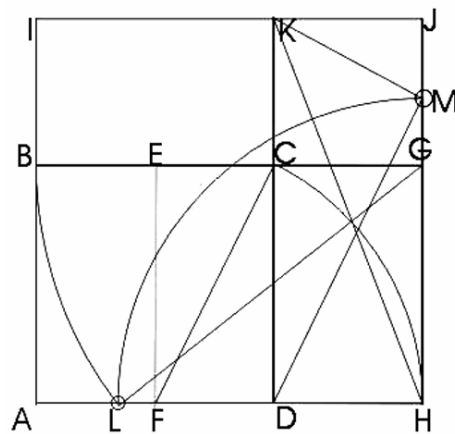


[부베 신부가 라이프니츠에게 보낸 『주역본』의 괘상도]

3) Friberg, J. (200&). *Amazing traces of a Babylonian origin in Greek mathematics*, World Scientific (p. 166).

3. 세 번째 해석: the Division of a Straight Line into Extrema and Mean Ratio

Scott Olsen(2002)과 Maria Salamone(2019)는 ‘Lesser’를 황금비의 역수, 그리고 ‘Greater’를 황금비(기호: ϕ)로 해석한다. 특히 Olsen은 황금비를 바탕으로 $\sqrt{2}$ 와 $\sqrt{3}$ 이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다음 그림으로 설명한다($AB=1$, $AH=\phi$, $DH=1/\phi$, $DM=\sqrt{2}$, $KH=\sqrt{3}$).



[Olsen의 the Great와 the Lesser]

1) 이집트의 황금비

플라톤이 『티마이오스』(31c-32a)에서 사용한 독특한 표현은 주어진 선분을 특정 비율(약 1.62 : 1)로 나누는 ‘분할(section)’을 말하는데 브레치슈나이더는 플라톤 시대까지 기하학에서 실제로 의미 있는 분할은 ‘황금비로의 분할’⁴⁾ 하나뿐이었다고 지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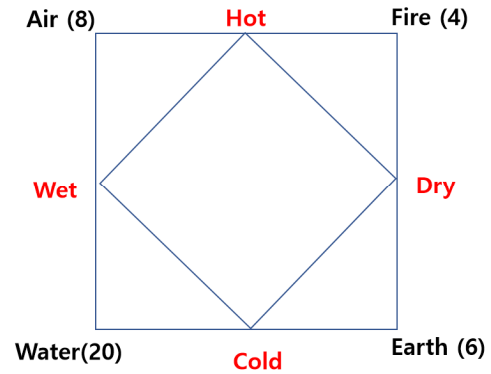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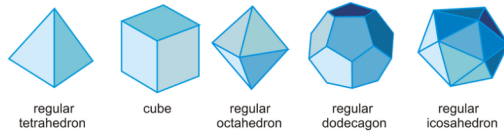
황금비로의 분할은 이집트 건축과 예술에서 발견된다. 현대 이집트 학자들에 따르면, 파라오 시대에 인간 상반신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 비례 규칙은 발바닥에서 머리카락이 시작되는 부분까지를 18개의 정사각형 모듈로 나눈 시스템을 따랐다. 이집트 예술에서 모성 연결, 탄생, 지속성의 중요한 상징인 배꼽은 높이를 18개의 정사각형으로 할 때, 11번째 사각형 바로 위(약 11.1)에 놓이는데, 약 11:7의 비율로 나눈다. 이집트의 인체 비율에 대한 법칙은 그리스에 영향을 주었으며 후일 레오나르도 등의 유럽 예술가들도 영향을 받았다. 데이비스에 따르면 플라톤은 객관적 인식을 중시하고, 환상주의를 배격하며, 비례를 강조하는 점에서 이집트 미술을 찬미했다(Davis 1979 126-127).

플라톤은 이집트 예술에서 사용된 황금비를 한 개의 등비중앙(31c-32a)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지는 대화 『티마이오스』(32b)에서 그는 두 개의 등비중앙으로 ‘불, 공기, 물, 흙’의 조화를

4) 유클리드는 이를 ‘extreme and mean ratio (EMR)’라 부르며 『Elements』, Book II, Proposition 11과 Book VI, Proposition 30에서 다룬다. ‘황금분할(golden section)’이란 용어는 1898년부터 사용되고 있다.

설명한다.

정다면체	4원소	Timaeus	추 정 (?)
4	Fire	제우스	Ur (주사위)
6	Earth	아이도네우스	이집트 (주사위)
8	Air	헤라	Theaetetus
12	The Universe		주사위(이탈리아 before 500BCE)
20	Water	네스티스	Theaetet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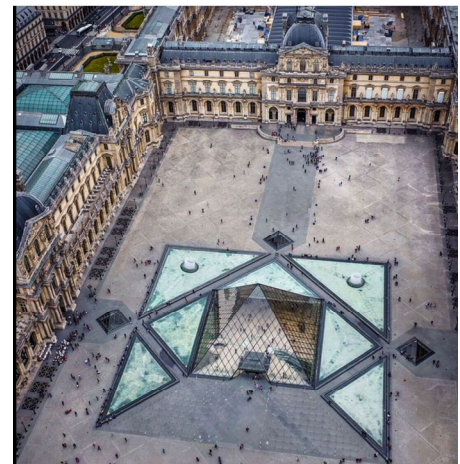
[고대 그리스의 5-Platonic 정다면체와 4원소론]

2) 9-11세기 아랍에서의 황금비

또한 우리는 발표에서 황금비에 관련된 아랍 학자들(Al-Khwarizmi(before 800 to after 847), Abu Kamil(c. 850 to 930), Abu'l-Wafa' (940-998), Ibn Yunus (died c. 1009), Al-Biruni (973 to after 1050))의 기여를 살펴볼 것이다(Herz-Fiscler 1987, pp. 121-131).

논의 사항

I. M. Pei(1989)의 포스트모더니즘 작품인 Glass Pyramid의 바닥(site) 디자인(동심정사각형, Concentric Squares)은 고대 이집트의 길이단위체계(Royal Cubit-Remen-Double Remen) 또는 이집트 4원소(물, 불 공기, 흙)와 관련이 있는가?



참고문헌

- Annas Julia (trans, with intro. and note.) (1976). *Aristotle's Metaphysics: Books M and N*, Oxford: Clarendon Press.
- Ares, J., Lara, J., Lizcano, D., and Martinez, M. A. (2017). "Who Discovered the Binary System and Arithmetic? Did Leibniz Plagiarize Caramuel?" *Sci. Eng. Ethics*, March 9: DOI 10.1007/s11948-017-9890-6
- Bulmer-Thomas, I. (1983). "Plato's Theory of Number", *Classical Quarterly* 33(ii): 375- 384.
- Davis, W. (1979). "Plato on Egyptian Art", *The Journal of Egyptian Archaeology*, 65: 121- 127.
- Herz-Fischler, R. (1987). *A Matheatical History of Division in Extreme and Mean Ratio*, Wilfrid Laurier University Press.
- Lande, D. (2014). "Development of Binary Number System and the Foundations of Computer Science", *The Mathematics Enthusiast*, 11(3): 513-540.
- Negreptontis, S., Farmaki, V., and Brokow, M. (2020). "The Central Role of Incommensurability in Pre-Euclidean Greek Mathematics and Philosophy", *Ganita Bharati* 42(1): 1-34.
- Negreptontis, S., and Papadopoulos, A. (2025). "The Mathematics of Periodic Anthypharesis as a Basis for the Full understanding of Plato's Philosophy", arXiv:2511.15301v1
- Olsen, S. (2002). "The Indefinite Dyad and the Golden Section: Uncovering Plato's Second Principe", *Nexus Network Journal* 4(1): 97-110.
- Salamone, M. A. (2019).
- Taylor, A. E. (1926). "Forms and Numbers: A study in Platonic Metaphysics (I.)" *Mind* 35(140): 419-440.
- Taylor, A. E. (1927). "Forms and Numbers: A study in Platonic Metaphysics (II)" *Mind* 36(141): 12-33.
- Thompson, D. W. (1929). "Excess and Defect: or the Little More and the Little Less", *Mind* 38(149): 43-55.

정착 식민주의로서의 시온주의와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 노력(1919~현재)

홍 미 정 (단국대학교)

2026년 6월 13일 한국중동학회 발표문

「정착 식민주의로서의 시온주의와 팔레스타인국가 건설 노력(1919~현재)」

· 장소: 한국외국어대학교(서울캠퍼스) 오바마홀 국제회의실
· 일시: 2026년 6월 13일(토) 12:30~18:00

홍미정 (단국대학교 아시아 중동학부)

내용

I. 정착 식민주의(Settler Colonialism)란 무엇인가

II. 정착식민주의로서의 시온주의

1. 1919.1921. 영국+하심가 동맹
: 유대 국가와 아랍 국가 만들기 및 팔레스타인인 배제하기
2. 1922. 07. 국제연맹의 팔레스타인 위임통치 결의안: 유대민족 고향 건설
3. 영국 위임통치령,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 경계 획정
4. 20세기 시온주의자들의 기획: 팔레스타인 원주민 축출 및 유대국가 건설
5. 2018, 2024 이스라엘의회 결정
: 유대민족국가, 이스라엘 규정 및, 팔레스타인 국가 거부
6. 2026 네타냐후의 목표 : ?

III. 팔레스타인인들의 국가 건설 노력과 좌절

1. 팔레스타인 아랍회의(1919~1934)
2. 반시온주의 정당들 및 아랍고등위원회와 전체-팔레스타인 정부(1932~1959)
3. PLO의 팔레스타인국가 건설 노력(1964~1996)
4. 1997.10. 하마스 창설자 아흐마드 야신의 연설
: 이스라엘과 우리의 분쟁은 종교 문제가 아니라 땅 문제
5. 2026.05.16. 지리&역사 학자 살만 아부 시타의 기고문
: 벤구리온(침략자)과 나(원주민): 귀환권의 당위성

IV. 국제사회

I. 정착 식민주의(Settler Colonialism)란 무엇인가

- 영국 역사학자 패트릭 울프(Patrick Wolfe, 1949~2016)는 고전적인 식민주의(본국이 식민지 착취 원주민 남겨둠-영국의 인도 통치Franchise colonialism)와 정착 식민주의(외부 집단 이주 및 영구 정착 및 원주민 제거-미국, 캐나다, 호주, 이스라엘)를 구분하면서 2006년 출판한 "Settler Colonialism and the Elimination of the Native"에서 **“정착 식민주의는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 원주민을 제거하는 구조”**라고 주장.^{주1)}
- 이스라엘 역사학자 일란 파페(Ilan Pappé)는 2006년 출판한 *The Ethnic Cleansing of Palestine*에서 1948년 나크바를 전쟁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이 아니라 계획된 조직적 인종청소로 규정 및 정착 식민주의가 초래한 비인도적 결과를 고발, '탈식민화'와 원주민의 귀환권을 강력히 주장.
- 이탈리아 역사학자 로렌조 베라치니(Lorenzo Veracini)는 2010년 출판한 *Settler Colonialism: A Theoretical Overview*에서 이스라엘을 전형적인 '정착민 사회'의 모델로 보고 호주, 미국 등과 비교 연구하면서 **“세 국가 모두 원주민의 존재를 지우고 정착민이 그 자리를 대체한다는 근본적인 목적을 공유한다.”**고 평가함.
- 19세기 후반에 '땅 없는 민족을 위한 민족 없는 땅' 문구는 영국과 미국 각종 저술과 언론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문구: 영국 정치가 새프츠베리 경 1853년 7월 영국 총리 조지 해밀턴 고든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공식 사용 시작 **“민족 없는 땅, 땅 없는 민족 ... 이 땅은 다른 사람들에게 할당되어야 함. 민족 없는 땅이 있고, 신은 지혜와 자비로 땅 없는 민족에게 관심을 갖도록 우리에게 명령 함.”** 미국 기독교인인 윌리엄 블랙스톤은 1891년에 출판된 『유대인을 위한 팔레스타인』에서 '땅 없는 민족을 위한 민족 없는 땅'을 이라는 문구를 역시 사용 등.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출신 유대인 언론인 테오도어 헤츨은 1896년 출판 『유대국가』에서 “유대인 문제는 민족 문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국가를 세워야 함. 국제법의 보장을 받은 '유대 민족 고향'을 건설해야 함” 주장.^{주2)}
- 팔레스타인계 미국 역사학자 라시드 칼리디(Rashid Khalidi)는 2020년 출판한 *The Hundred Years' War on Palestine: A History of Settler Colonialism and Resistance, 1917-2017*에서 정착민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영국과 미국 같은 거대 제국주의 세력의 승인과 지원 아래 진행된 '식민 전쟁'임을 강조하면서, 원주민(팔레스타인인)이 단순히 당하기만 한 존재가 아니라, 지난 100년 동안 끊임없이 자신들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저항해 온 역사를 주장. 그는 이 책에서 “1899년, 예루살렘 시장이었던 유세프 알 칼리디(Yusuf Diya al-Khalidi)는 팔레스타인에 유대인 민족 국가를 세우려는 시온주의의 요구에 우려를 느끼고, 테오도어 헤츨(Theodore Herzl, 1860~1904)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다: 그는 그 땅에는 이미 토착 주민들이 살고 있으며, 그 주민들이 추방(displacement)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앞으로 닥칠 위험을 경고하며 편지를 이렇게 마무리했다. **신의 이름으로 말하건대, 팔레스타인은 그대로 두십시오(In the name of God, let Palestine be left alone).**”라는 자신의 고조할아버지의 편지를 소개

주1) Patrick Wolfe (2006) "Settler colonialism and the elimination of the native", *Journal of Genocide Research*, 8:4, 387-409.

주2) 헤츨이 1896년 『유대 국가』에서 제시한 주장은 "The Jewish question is a national question. We are a people-one people. The Jewish State is essential to the world."였고, 시온주의 운동의 출발점. 1897년 8월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제 1차 시온주의자 회의가 "Zionism seeks to establish a home for the Jewish people in Palestine secured under public law"를 채택하면서 시온주의자 기

II. 정착식민주의로서의 시온주의

1. 1919. 영국+하심가 동맹: 유대국가와 아랍 국가 만들기 및 팔레스타인인 배제하기

▷ 벨푸어 선언(1917.11.02.): 영국-시온주의자 동맹

- 영국 정부는 팔레스타인에 '유대 민족 고향'을 재건한다는 원칙을 승인한다. 영국 정부는 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필요한 수단이나 방법에 관해서는 시온주의자 기구와 협의.

▷ 파이잘히자즈 하심 왕국의 대표-와이즈만 영국인 시온주의자기구 대표 협정(1919.01.0 3. 파리평화회의 개최 15일 전)

-> 하심가가 시온주의 계획 승인

- 파이잘 후세인은 팔레스타인에서 '유대인의 민족 고향'을 건설한다는 1917년 벨푸어 선언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 팔레스타인으로 대규모 유대 이민과 유대 정착촌 건설 협력 약속.
- 와이즈만은 파이잘이 열망하는 아랍국가 건설을 후원하겠다고 약속

▷ 파이잘이 프랭크퍼터에게 (파리평화회의 미국대표단, 미국시온주의자 대표) 편지

나는 미국 시온주의자들과 처음 접촉에서 아라비아와 유럽에서 와이즈만에게 말했던 것을 당신에게 말하고 싶다. 우리는 아랍인들과 유대인들이 강력한 자들의 손아귀에서 비슷한 고통을 경험한 사촌들이라고 느낀다. 아랍인들 중에서도 특히 교육받은 사람들은 시온주의 운동에 가장 깊이 공감한다. 우리의 대표는 여기 파리에서 시온주의자 기구가 평화회의에 제출한 제안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으며, 온건하고 적절한 것으로 간주한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제안서가 통과되도록 도울 것이다.

우리는 시온주의 운동의 수장인 하임 와이즈만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는 우리의 대의를 돕는 가장 큰 조력자이다. 나는 아랍인들이 조만간 유대인들의 친절에 보답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근동을 개혁하고 부활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시온주의 운동과 아랍민족주의 운동은 서로를 완전하게 한다.** 우리의 운동은 민족주의 운동이며, 제국주의가 아니다. 실제로 나는 어느 것도 다른 것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1919년 3월 3일, 파리평화회의의 히자즈 대표단, 파이잘 후세인



1918 와이즈만-파이잘



1919. 파이잘-로렌스

▷ 1921.03.28. 예루살렘 고위급 회담: 시온주의자의 팔레스타인+압둘라의 트랜스요르단

-> 팔레스타인 대표 배제

- 처칠(식민부 장관), 압둘라, 험버트 사무엘(팔레스타인 초대고등판무관)은 요르단 강과 아까바만을 축으로 팔레스타인 위임통치구역 재분할, 팔레스타인/트랜스요르단 합의.
- 처칠은 "트랜스요르단은 위임통치 팔레스타인의 행정 체계에 포함되지 않고, 영국정부의 보조금을 받음. 요르단강 서쪽에서만 시온주의 계획을 실행할 것임. 유대인의 팔레스타인 이민은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현존하는 비유대인의 권리는 엄격하게 보존될 것."이라고 밝힘.



1921.03.28. 예루살렘에서 압둘라, 사무엘, 처칠 회담

2. 1922. 07. 국제연맹의 팔레스타인 위임통치 결의안:유대민족 고향 건설

- 서문: 팔레스타인에 유대민족의 역사적인 관계가 있고, 팔레스타인에 유대민족고향 재건을 승인한다.
- 4항: 적당한 유대기구가 유대 민족고향 건설과 팔레스타인 유대주민의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들과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에서 팔레스타인 행정부와 협력하기 위한 공공단체로서 인정받아야 한다.
- 5항: 시온주의자기구와 영국정부가 협력하여 유대민족고향 건설하기 위하여 모든 유대인들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 6항: 팔레스타인 위임통치정부는 유대기구와 협력하여 **유대이민을 촉진시키고**, 국유지나 불모지를 포함하는 땅에 유대인 정착을 고무시켜야 한다.
- 7항: 팔레스타인 위임통치정부는 **국적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 법은 팔레스타인에서 영주권을 획득한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시민권을 취득하는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

*** 시온주의자기구가 파리평화회의에 제출한 '1919년 팔레스타인에 관한 시온주의자기구 성명'을 되풀이



• 1922~1948년 영국 위임통치령 팔레스타인(1922년 트랜스 요르단 분리)



영국의 팔레스타인 여권(1925~1948)

3. 영국 위임통치령,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 경계 확정

- 1925-1948년: 영국 위임통치 정부의 팔레스타인 여권: '영국위임통치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난 사람의 출생증명서-> 태어난 곳은 '팔레스타인'으로 명기(예: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 1925년 팔레스타인 시민권^{Citizenship} 칙령: 1925년 8월 1일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던 오스만 제국 신민들을 '팔레스타인인들'이라고 명시, '출생과 귀화에 의한 팔레스타인 시민권 취득 요건 규정 -> 거주 원주민과 이주자 유대인들은 모두 팔레스타인 시민임.
- 1964, 1968년 PLO의 팔레스타인국가 헌장: 팔레스타인은 '영국위임통치 시대 경계'를 갖는 분할될 수 없는 영토단위로 규정. 팔레스타인인은 1947년까지 팔레스타인에 일상적으로 거주하던 아랍시민임. 시온주의 침공(1917 벨푸어 선언)이 시작될 때까지, 일상적으로 팔레스타인에 거주했던 '유대인은 팔레스타인인' 규정
- 1979년 이스라엘/이집트, 1994년 이스라엘/요르단 평화협정: 미국의 중재 영국의 위임통치 경계로 국경 확정 -> 영국위임통치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
- 1996년 21차 팔레스타인국민평의회: '오슬로협정에反하는 PLO의 팔레스타인국가 헌장 모든 조항들을 취소한다'고 결의•개정함. '시온주의 침공이 시작될 때까지, 일상적으로 팔레스타인에 거주했던 유대인은 팔레스타인인' 규정도 폐기됨 -> 에드워드 사이드 팔레스타인국민평의회 탈퇴.

4. 20세기 시온주의자들의 기획: 팔레스타인 원주민 축출 및 유대국가 건설

▷ 시온주의기구 의장&이스라엘 초대 대통령 하임 와이즈만의 유대민족 고향 건설 기획

- 1920년 하임와이즈만 “내가 파리 평화회의(1919년 1월 18일-1920년 1월)에서 말 한 것은 영국이 영국인의 것이고, 미국이 미국인의 것인 것처럼, **팔레스타인은 유대인의 것이어야 한다**. 장래에 팔레스타인은 유대인의 국가다.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는 땅과 그 땅위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팔레스타인에 6만 명의 유대인이 아닌 **50만 명의 유대인이 거주하고, 40개의 식민촌(정착촌)이 아니라 200개의 식민촌(정착촌)이 존재한다고 상상해보라. 그 때 팔레스타인에서 유대인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국제 시온주의자들이 팔레스타인으로 유대인 이주활동을 적극적으로 실행시킴으로써, 2차 세계대전 끝 무렵인 1945년경에는 55만 명 이상의 유대인이 팔레스타인 땅에 거주하게 되었다.

▷ 유대기구 의장&이스라엘 초대 총리 데이비드 벵구리온의 아랍 원주민 축출

- 1936.05.19. 벵구리온은 1936.04. 아랍고등위원회가 선언한 3개 요구사항 ‘유대이민금지, 유대인에게 땅 판매 금지, 아랍민족정부 수립’을 내세운 아랍대반란(1936.04~1939.08)에 맞서 **“우리와 그들은(팔레스타인인들) 같은 것을 원한다. 우리는 둘 다 팔레스타인을 원한다. 그것이 근본적인 갈등이다”**
- 1937년 벵구리온은 텔아비브 하가나 사령관 엘리멜렉 슬리코워츠에게 **“영국 철수 이후, 팔레스타인 전역 장악할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 -> 영국군과 공조한 유대무장단체 하가나는 1920년 예루살렘 봉기, 1921년 자파봉기, 1921년 예루살렘 봉기, 1929년 예루살렘, 사페드, 헤브론, 자파봉기, 1936.04~1938.08 아랍대반란 등을 진압.
- 1937.10.05. 벵구리온은 아들 아모스에게 보내는 편지. **“우리는 아랍인들을 추방하고, 그들의 자리를 차지해야한다. 우리가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면, 우리 마음대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
- 1948.05.14. 벵구리온은 ‘에레츠 이스라엘(고대 이스라엘 땅)에 유대국가로서 이스라엘 창설’을 선언 “이스라엘 땅은 유대민족 발생지, 정신적, 종교적, 정치적 정체성이 형성된 곳. 1897년 유대국가의 정신적 아버지 데오도르 허츨의 요구로, 제 1차 시온주의 대회가 소집 및 유대민족이 그 자신의 국가에서 민족적 경쟁의 권리선언-이 권리는 1917년 11월 2일 벨푸어 선언으로 승인-1922년 7월 국제연맹의 위임통치 결의안은 유대 민족과 에레츠 이스라엘 사이의 역사적인 관계를 국제적으로 승인-1947년 11월 29일, 유엔 총회는 에레츠-이스라엘에 유대국가의 창설 요구 결의안-유엔이 유대민족국가 건설 권리를 승인한 것은 변경될 수 없음”. 하임 와이즈만을 대통령으로, 12명의 각료로 임시정부 수립.
- 1948.05.15. 미국과 05.18. 소련이 이스라엘국가 공식 승인. 1949.05.11. 이스라엘 유엔 가입- 59번째 회원국.
- 1948.07.18. 일기에서 벵구리온은 **“우리는 팔레스타인인들이 결코 돌아오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해야 한다 ... 노인은 죽고 젊은이들은 잊을 것이다.”**라고 주장 -> 벵구리온은 1948년 전쟁을 주도하여 팔레스타인인들 75만 명 이상 추방.

▷ 1994. 총리 이츠하크 라빈(재임:1992.07~1995.11.)이 오솔로 협상과 동시에 E1계획 수립

- E1계획:** 예루살렘-마알레 아두뮴 정착촌을 연결시켜서 예루살렘 영역을 확장하려는 계획, 서안을 북부와 남부로 완전히 분할, E1지역에 거주하는 18개 베두윈 공동체에 속한 3,700명 이상 팔레스타인인들 축출, 이스라엘인들 거주지 건설함->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 무력화.**
- 1994.04. 라빈은 마알레 아두뮴 시장 베니 카슈리엘에게 E1지역 합병 서류 제출. 1994.10.05. 총리 라빈은 이스라엘 의회에서 “통합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주권하에 이스라엘 수도로서 마알레 아두뮴과 기바트 제브 포함.”라고 선언함. 이후 총리 시몬 페레스(재임:1995.11.~1996.06)는 “이스라엘은 영구적인 합의의 틀 안에서 마알레 아두뮴에 이스라엘 주권 적용을 주장할 것”이라는 정부 입장 재확인. **라빈 이후 네타냐후에 이르기까지 여섯 명의 이스라엘 총리(페레스, 바락, 샤론, 올메르트)가 공개적으로 E1 정착촌을 건설하겠다고 선언했으나 국제사회의 반대로 30년 이상 절차가 시작되지 못함.**

▷ 2025.08.20. 이스라엘 내각은 30여 년간의 머뭇거림을 털어내고, E1지역에 3,401채의 정착촌 주택 건설을 최종 승인. 이 때 재부장관&국방부 소속/서안지구 행정 업무 총괄 스모트리치는 “팔레스타인 국가는 슬로건이 아닌 행동으로 테이블에서 지워지고 있다. 두 국가 해결책을 물어버리겠다.”고 선언.

▷ 2025.09.12. 총리 네타냐후 예루살렘 인근 마알레 아두뮴 정착촌에서 열린 E1(East1 area, 12 km) 정착촌 건설 프로젝트 착공식에서 **“팔레스타인 국가는 없을 것이다. 이곳은 우리의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유산, 우리의 땅, 우리의 안보를 지킬 것이다.”**라고 선언

- 같은 날 유엔총회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두 국가 해법 이행에 관한 뉴욕선언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찬성 142, 반대 이스라엘과 미국 등 10개국, 기권 12개국으로 채택.

5. 2018, 2024 이스라엘의회 결정: 유대민족국가, 이스라엘 규정 및 팔레스타인 국가 거부

▷ 2018년 7월 19일 이스라엘 기본법 제정: 유대민족을 위한 민족국가로서의 이스라엘
2018년 7월 19일, 이스라엘 의회는 '유대민족 국가법'을 120명 의원 중 찬성 62표 대 반대 55표, 기권 2표로 통과

- 세 가지 기본 원칙
 - 이스라엘 땅(서안, 가자 포함)은 이스라엘 국가가 건설된 유대인들의 역사적 고향이다.
 - 이스라엘 국가는 유대인들의 천부적, 문화적, 종교적, 역사적 자결권을 실행한다.
 - 이스라엘 국가 내에서 민족적 자결권을 행사할 권리는 유대인들에게만 있다.
- 국가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 통합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
- 이스라엘의 공식 언어는 히브리어다.
- 이스라엘은 유대인 이민과 귀환을 위해 개방될 것이다.
- 이스라엘은 유대 정착촌 개발을 민족의 가치로 간주하며, 정착촌 건설과 강화를 고무시키고 촉진시키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 점령지에서의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과 강화를 규정함으로써, 1967년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점령한 팔레스타인(동예루살렘, 서안, 가자)과 시리아 지역(골란고원)으로 이스라엘 국가 영역 확장 시도.

▷ 2024년 7월 17일 팔레스타인국가설립 거부 결의안

- 2024년 7월 17일, 이스라엘의회는 팔레스타인국가설립 반대 결의안을 찬성 68표, 반대 9표로 통과
- '요르단 강 서쪽의 단 한 뼘에도 on any piece of land west of the Jordan River' 팔레스타인국가 설립에 반대한다. 이스라엘 심장부에 팔레스타인국가의 존재는 이스라엘 국가와 이스라엘 시민들에게 '실존 위협'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아랍 분쟁을 더욱 확대하고, 전체 역내 불안정성의 원천이 될 것이다.

▷ 2024년 7월 22일, 이스라엘의회는 하마스와 협력했다고 비난하면서 UNRWA를 테러조직으로 선언 및 관계 단절 승인

6. 2026년 네타냐후의 목표: ?

- 2026.02.28. 미국(압도적인 분노 작전)과 이스라엘(사자의 포효 작전)은 이란 공격 시작.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 공격을 "이란의 핵-미사일 위협 제거를 위한 선제 조치"라고 발표
- 2026.03.19.31. **네타냐후** Newsmax 인터뷰: **호르무즈 해협을 대체할 새로운 경로가 필요하다. 장기적인 해협 봉쇄가 이스라엘에 잠재적 이익이 될 수 있음을 시사.** "석유 파이프라인과 가스 파이프라인을 아라비아 반도를 가로질러 서쪽으로 연결, 이스라엘과 지중해 항구까지 이어지게 하면, 이런 병목 지점(choke points)은 영원히 사라질 것. 나는 이것이 이번 전쟁 이후 나타날 진정한 변화라고 본다." (중략 참조: <https://www.youtube.com/watch?v=GW7ZD0Hk8Y>, 13분경, <https://www.newsmax.com/newsmax/tv/metanyahu-israel-ruddy/2026/03/20/41251243/>, <https://www.jpost.com/israel-news/benjamin-netanyahu/article-891721>)
- 2026.05.30. **기드온 레비: 이스라엘의 가자 공격은 단순한 대(對)하마스 군사작전이 아니라, 더 장기적인 정치-사회적 재편 과정.** 현재 하마스 통치의 유일한 대안은 무정부 상태-> 이 혼란은 이스라엘이 추구하는 전후 구상, 즉 사회 해체와 주민 추방 여건 조성. (<https://www.haaretz.com/opinion/2026-05-30/hy-article/premium/israels-solution-to-the-gaza-problem-is-well-underway/0000019e-79d5-d12e-41df-ffff5b890000>)

□ 무엇이 문제인가: 이스라엘을 새로운 경제회랑 중심 교차로 만들기 ?

▷ 네타냐후 발표: 이 새로운 운송로는 우리역사상 가장 위대한 프로젝트, 이스라엘은 새로운 관문, 중심 교차점이 될 것

- 2023.09.10. G20 정상회의 중, 인도-중동-유럽 경제 회랑(IMEC) 건설 MOU체결: 사우디, 미국, EU, 인도, UAE,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서명. IMEC 서명한 8개국은 세계경제의 약 50%, 세계 인구의 40% 차지
- 2023.09.22. 78차 네타냐후 유엔총회연설-New Middle East: [인도-아라비아 반도- 이스라엘-유럽] 연결 환상적인 계획,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회랑 건설
- 2024.09.27. 79차 네타냐후 유엔총회 연설- **New Order**, 밝은 축복의 지도: 회랑의 미래/어두운 저주의 지도: 절망적인 미래: 인도양과 지중해 사이, 아시아-유럽 잇는 육로, 철도, 에너지 파이프라인, 광섬유 케이블을 설치, 전세계 국가는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막는 데 동참해야 함. 지난 1년 동안, IDF는 테러리스트 4만 명 중 절반 이상 죽이거나 체포, 로켓 무기의 90% 이상을 파괴, 테러 네트워크의 주요 부분을 제거, 하마스 24개 대대 중 23개 파괴 완료. 전후 가자에서 하마스 역할 거부, 우리는 가자에 재정착하지 않음. 비무장화되고, 급진적이지 않은 가자. 평화 공존 및 가자 지구의 지역 민간 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역내 및 기타 파트너와 협력 준비가 되어 있음.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 전투에서 승리할 것임.



2026.03.31. 호르무즈 해협과 수에즈운하 우회 파이프라인 구상



Ⅲ. 팔레스타인인들의 국가 건설 노력과 좌절

1. 팔레스타인 아랍회의(1919~1934)

- 팔레스타인 무슬림-기독교인들은 벨푸어 선언과 유대 이민에 대한 대응으로 1918.05 부터 주요 도시마다 무슬림-기독교인 협회 창설하여 팔레스타인 아랍회의(1919~1928) 조직. 팔레스타인아랍회의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무사 카짐 알 후세이니(예루살렘 시장:1918~1920)를 위원장으로 하여 9명으로 구성된 아랍집행위원회 선출, 런던으로 대표단 파견 및 민주적인 다수에 토대를 둔 민족의회 및 정부 구성 결의->1920년 영국 당국은 무사 카짐 알 후세이니의 예루살렘시장 직위 박탈.
- 팔레스타인 아랍회의는 런던으로 대표단 파견 및 유대 상품 보이콧, 유대인에게 땅 판매 금지, 유대 이민 금지, 유대인 민족 고향 설립 절대 반대 등 반시온주의 운동-> 영국은 대표성이 없다고 탄압, 1934년 3월 무사 카짐 알 후세이니가 사망한 이후, 부의장이며 기독교인인 야콥 파라지가 의장 권한대행이 되었으나, 더 이상 회의는 열리지 않았음.
- 1919년 제 1차 팔레스타인 아랍회의는 파리평화회의에 대표단 파견하였으나 참석 못함-> 팔레스타인 알 쿠드스 대학 교수 알리 끌레이보에 따르면, 영국과 시온주의자들이 주도하는 파리평화회의에서 어떤 역할도 할 수 없었음.

제1차 팔레스타인 아랍회의 결의안: 파리평화회의의 대표단 파견

- 시온주의자들이 팔레스타인으로 알려진 남부시리아지역으로 이주하여 자신들의 민족국가 건설을 위한 식민지를 만들고 있음.
-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지역주민들, 단체들, 고관들이 지역 단위로 대표자들을 선출하여 예루살렘으로 파견했음. 이렇게 선출된 팔레스타인 지역 대표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팔레스타인아랍회의를 개최했고, 시온주의자들의 주장과 위협에 반대한다는 증거를 포함한 결의안을 만들어 영국군사정부에게 제출했음.
- 팔레스타인 지역 대표자들은 파리평화회의에 팔레스타인 대표단을 파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결의, 타우피끄 하마다, 아흐마드 알 다자나, 지브란 카라마를 파리평화회의의 파견 대표로 선출하였음. 시온주의자들의 위협에 맞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방어하고, 민족주의적 염원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을 선출하여 협의할 수 있는 권한도 대표단에게 위임했음.
- 1919년 2월 8일, 이 회의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알리기 위해 팔레스타인 지역 대표자들이 작성. 23명이 서명함.



4차 팔레스타인아랍회의-예루살렘



3차 팔레스타인아랍회의-하이파

2. 반시온주의 정당들 및 아랍고등위원회와 전체-팔레스타인 정부(1932~1959)

▷ 반시온주의 정당들과 아랍 고등위원회 창설 및 해체

- 1932년부터 아랍 민족주의-팔레스타인 민족주의-반시온주의 정당들 Independence Party(아와니, 압둘하디, 아흐마드 힐미 바끼), Youth Congress Party(야콥 알 구세인), National Bloc Party(아흐마드 라티프 살레), Reform Party(후세인 알 칼리디, 사회주의), Palestine Arab Party(자말 알 후세이니, 우파) 등이 활약하였고, 특히 Independence Party 슬로건은 "영국은 모든 병의 근원이며, 모든 재앙의 토대다."였으며 Youth Congress Party 등과 함께 반영국 정서를 활성화하고 확산시키는데 커다란 역할 함.
- 1936.04.19. 예루살렘 그랜드 무프티&최고무슬림샤리아 위원회 의장 하지 아민 알 후세이니가 주도하는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의 중앙정치 조직인 아랍고등위원회가 '유대인 이민 금지, 유대인에게 땅 판매 금지, 아랍민족정부 수립' 등 3개의 요구사항을 내세우며 전국 총파업을 선언, 의장 하지 아민 알 후세이니, 사무총장 아와니 압둘 하디,위원들은 자말 알 후세이니, 후세인 알 칼리디, 야콥 알 구세인, 푸아드 사바, 라깅 나사시비, 아흐마드 힐미 바끼, 아흐마드 라티프 살레, 알프레드 락.
- 1936.04.20~30, 아랍고등위원회 산하 아랍민족위원회들이 모든 팔레스타인 도시와 마을들에 설립
- 1937.09.30. 영국위임통치정부의 '추밀원의 팔레스타인 명령 1937': 하지 아민 알 후세이니를 예루살렘 그랜드 무프티&최고무슬림샤리아 위원회 의장 직위에서 해임, 아랍고등위원회 아랍 민족위원회들 해체, 민족주의 정당들을 모두 불법단체로 규정하여 해체, 그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외국으로 추방. 반면 National Defense Party(라깅 나사시비)는 아랍 반란이 진행되면서, 1937년 7월 창설자 나사시비가 아랍고등위원회 위원에서 탈퇴하고 영국 및 시온주의자들과 적극 협력함.

▷ 전체-팔레스타인 정부 창설 및 해체

- 아랍연맹의 후원으로 재건된 아랍고등위원회가 1948.09.22. 가자에서 전체-팔레스타인 정부(All-Palestine Government, 1948.09.22.~1959.06)를 창설: 대통령 하지 아민 알 후세이니, 총리 아흐마드 힐미 압델 바끼(1948.09~1959), 12명의 장관 선출
- 10월 1일, 아랍고등위원회가 가자에서 전체-팔레스타인 국민평의회(All-Palestinian National Council) 개최하여 예루살렘을 수도로 팔레스타인 독립 선언(1차), 임시 법령 발표
- 1948.10.15. 트랜스 요르단을 제외한 아랍연맹 6개국은 전체-팔레스타인 정부 인정-> 1948년 12월 전체-팔레스타인 정부는 카이로로 이전되어, 1959.06. 해체될 때까지 망명 정부 상태를 유지
- 아흐마드 힐미 압델 바끼는 1948.09~1963 레바논에서 사망할 때까지 전체-팔레스타인 정부 대표로 카이로에서 열린 아랍연맹 회의에 계속 참석.
- 전체-팔레스타인 정부는 통치권, 행정기구, 자금과 군대도 없었음. 트랜스 요르단을 제외한 아랍연맹국가들이 수사적, 외견상으로는 전체-팔레스타인 정부를 승인하였으나 정부 운영을 위한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고, 이스라엘의 압도적인 화력과 서안을 합병하려는 트랜스 요르단의 팽창주의가 팔레스타인 지도부를 무력화 시킴.
- 1959.06. 나세르 이집트 대통령은 전체-팔레스타인 정부를 해체하여 아랍연합공화국으로 합병. 결국 1959년 하지 아민 알 후세이니는 레바논으로 망명.

3. PLO의 팔레스타인국가 건설 노력(1964~1996)

▷ PLO창설 및 팔레스타인국가 헌장

- **1964.01.카이로 아랍연맹 정상회의:** 팔레스타인인들을 대표하는 조직을 창설하기로 결정. 당시 아랍연맹에서 팔레스타인 대표는 아크레 출신의 법률가 아흐마드 슈케이리.
- **1964.05.제 1차 팔레스타인 국민평의회:** 예루살렘에서 모든 팔레스타인 파벌들을 대표하는 민족주의자들 422명이 회의를 개최하여 연합조직으로 PLO를 창설, 의장으로 아흐마드 슈케이리(재임: 1964.05.28~1967.12.24) 선출. 팔레스타인 국민평의회, PLO집행위원회, 팔레스타인 해방군 설립, **팔레스타인국가헌장(전체 29조)제정**
- PLO는 1948년 아랍연맹이 승인한 전체-팔레스타인 정부의 국기를 그대로 팔레스타인 국기로 수용.
- 슈케이리는 PLO 조직 관리, 즉 파타를 비롯한 게릴라 부대들이 활성화된 것에 대한책임지고, 1967.12. 사임.
- 1968.07.10~17, PLO가 카이로에서 제4차 팔레스타인국민평의회: 팔레스타인국가헌장 29개 조항에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무장투쟁을 강조하는 제7조~제10조를 추가함으로써, 전체 33개 조항으로 확장.

팔레스타인국가헌장Palestine National Charter, 1964, 1968

제1조: 팔레스타인은 팔레스타인 아랍인의 조국.
제2조: 팔레스타인은 영국위임통치 시대 경계를 갖는 분할될 수 없는 영토 단위다.
제3조: 팔레스타인 아랍인은 자신들의 조국에 대한 합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고, 자신들의 희망과 의지에 따라 조국해방을 달성한 후 운명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제4조: 팔레스타인인 정체성은 진정하고 본질적이며, 타고난 특성으로,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전해진다. 시온주의자 점령과 재난을 당한 팔레스타인 아랍인의 분산은 팔레스타인 정체성과 팔레스타인 공동체의 구성원 자격을 상실하게 하지 않으며, 이를 부정하지도 않는다.
제5조: 팔레스타인인은 1947년까지 팔레스타인에 일상적으로 거주하던 아랍 시민이다. 추방당했던 그곳에 남았던 상환없다. 1947년 이후 팔레스타인인이었던 외부에 있던지 간에, 팔레스타인인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팔레스타인인이다.
제6조: 시온주의 침공이 시작될 때까지, 일상적으로 팔레스타인에 거주했던 유대인은 팔레스타인인이다.
제19조: 1947년 팔레스타인 분할안과 이스라엘국가 설립은 팔레스타인인들의 의지와 팔레스타인인들의 조국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의 자연권에 반하고, 유엔 헌장에 명시된 원칙, 특히 자기 결정권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관계없이 완전히 불법이다.
제20조: 벨푸어 선언, 팔레스타인 위임 통치제도 및 그에 근거한 내용은 무효다.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땅 간의 역사적 또는 영적 유대감에 대한 주장은 역사적 현실과 일치하지 않으며 건전한 국가지위를 위한 진정한 토대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유대교는 신성한 종교이고 독립적 민족성이 아니다. 유대인은 독립적인 특성을 가진 한 민족이 아니고, 오히려 자신이 속한 국가의 시민이다.
제22조: 시온주의는 국제 제국주의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세계의 모든 해방과 진보 운동에 적대적인 정치 운동이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인종차별적이고 광신적인 운동이며, 그 목적에서 공격적이고, 팽창주의적이며, 식민지적이며, 수단에서 파시스트적이다. 이스라엘은 시온주의 운동의 도구이며 아랍 국가의 해방, 통일 및 진보에 대한 희망에 맞서기 위해 아랍 본토의 중앙에 전략적으로 배치된 세계 제국주의의 지리적 기반임. 이스라엘은 중동과 전 세계의 평화에 대한 끊임없는 위협의 원천. 팔레스타인의 해방은 시온주의와 제국주의의 존재를 파괴하고 중동에 평화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므로, 팔레스타인인들은 모든 진보적이고 평화로운 세력에게 지원을 요청하고, 소속과 신념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조국의 해방을 위한 정의로운 투쟁에서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모든 도움과 지원을 제공할 것을 촉구.
제33조: 이 헌장은 팔레스타인국민평의회 전체의원 2/3 이상 찬성투표를 제외하고는 개정될 수 없다.

▷ 1988년 PLO 정치 성명과 독립 선언(2차)

- 1974.10.14. 유엔총회결의 3210호는 PLO를 팔레스타인인들의 단독 합법적 대표로 승인. 1974.11.22, 47차 유엔총회결의 3237호는 '**PLO가 북한, 대한민국, 스위스 등 유엔 비회원국들이 갖는 것과 동일하게 유엔총회의 토론에 참석할 수 있는 옵서버의 자격을 획득**'했다고 명시.
- 1976.01 유엔총회는 안보리 결의 242호에 토대를 두고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가 제출하였고 PLO가 지지한 '1967년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에서 팔레스타인국가 건설'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논의-> 이스라엘 미국 제외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지지
- 1977년 초부터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1977.01~1981.01)의 중재 아래 이집트-이스라엘 사이에 협상-> 1979.03. 이집트-이스라엘 사이의 국경 획정 협정 체결,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 논의는 국제사회에서 사라짐-> 이후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의 묵인 아래 점령지에서 정착촌 건설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
- 1987년 12월 9일 가자 소재 자발리아 난민 캠프에서 시작된 이스라엘 점령에 반대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의 민중항쟁인 제1차 인티파다(1987.12.09~1993.09.13.)가 점령지 전역으로 확산
- PLO가 알제에서 1988.11.12~15. 개최한 제19차 팔레스타인국민평의회는 유엔 안보리 결의 242호(1967년) 및 338호(1973년)에 토대를 두고, 1988년 11월 15일 정치성명 및 독립선언서발표

PLO 정치성명Political Communiqué, 1988, 11, 15

유엔안보리결의안 605호(1987.12.22), 607호(1988.01.05), 608호(1988.01.14.) 및 유엔총회 결의들은 팔레스타인으로부터 팔레스타인인들 추방 및 점령지에서 이스라엘의 억압과 테러에 대항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의 권리를 승인. 유엔총회결의안 43/21(1988.11.03.)은 전 세계 국민과 국가의 압도적 다수가 이스라엘 점령에 반대하고 팔레스타인인들의 정의로운 투쟁과 해방과 독립에 대한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지지한다는 증거. 이에 따라 팔레스타인국민평의회는 점령된 조국 안팎에서 우리 대중의 뜻에 부응하고, 전사, 부상, 구금된 사람들을 추모하기 위해 우리 민족의 저항과 영광스러운 봉기를 확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정.
1. 이스라엘 점령에 반대하는 인티파다를 강화하고 지속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
2. 정치 영역
a) 안보리결의안 242호(1967)와 338호(1973)에 근거하여, 유엔의 후원하에 안보리 상임이사국 및 PLO를 포함한 이 지역 분쟁의 모든 당사자가 동등한 자격으로 참가하는 국제회의의 소집. 유엔헌장의 원칙과 규정 및 팔레스타인 문제에 관한 유엔 결의에 따라, 팔레스타인민족의 자결권, 무력 또는 군사 침략에 의한 타인 소유 토지 압류 불가, 팔레스타인 민족의 합법적 민족 권리보장
b) 1967년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아랍 예루살렘을 포함한 모든 팔레스타인 및 아랍 영토에서 철수
c) 1967년 이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및 아랍 영토에 설정한 모든 부작물 및 합병 조치의 취소 및 정착촌 제거
d) 아랍 예루살렘을 포함한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를 제한된 기간 동안 유엔의 감독하에 두고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국제회의의 성공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 포괄적인 정치적 합의의 달성, 상호 수용과 만측을 통한 모든 사람의 안전과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 그리고 팔레스타인 국가(Palestinian State)가 해당 영토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
e) 유엔 결의안에 따른 팔레스타인 난민 문제 해결
f) 모든 종교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위해 팔레스타인의 성지에서 예배의 자유와 종교 의식 수행 보장

PLO 독립선언서Declaration of Independence, 1988, 11, 15

현대 세계가 새로운 가치 체계를 창출하던 시기에,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 우세한 힘의 균형은 팔레스타인인을 공동 운명에서 배제했다. 이미 깊은 상처를 입은 팔레스타인인들은 고통스러운 차별화가 이루어졌을 때 더욱 심화되었다. 독립을 박탈당하고 새로운 종류의 외국 점령에 시달리는 민족은 팔레스타인이 '민족 없는 땅 a land without a people'이라는 거짓말을 일반화하려는 시도에 부딪혔다. 이러한 역사의 왜곡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1919년 국제 연맹 규약 22조와 1923년 로잔 조약에서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이 오스만 국가에서 분리된 다른 아랍인들과 다르지 않으며 자유롭고 독립적인 민족이라고 인정했다.

팔레스타인인 아랍국가와 유대국가로 분할한 1947년 총회결의안 181(II) 채택이후,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이 난민이 되고 자결권을 박탈 당하는 역사적 불공정에도 불구하고, 이 결의안은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에게 주권과 민족독립권을 보장하는 국제적 정당성을 계속 부여 한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영토와 다른 아랍 영토의 일부를 점령하고, 조직적 협박을 통해 팔레스타인인 대다수를 뿌리 뽑고 집에서 쫓아내고, 나머지 사람들을 점령, 억압, 독특한 민족적 생활 양식을 파괴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인민들의 귀환권, 자결권, 독립 및 조국 영토에 대한 주권을 포함하는 민족적 권리를 인정하는 유엔 헌장 및 유엔결의안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현재 점령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민중 봉기와 조국 안팎의 전설적인 진영의 굳건함은 팔레스타인 문제의 실체와 팔레스타인 민족의 권리에 대한 인류의 이해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은 팔레스타인 조국에서 양도할 수 없는 권리와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려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요구를 다시 한 번 주장한다.

팔레스타인국가(The State of Palestine)는 유엔헌장과 유엔결의안에 따라 평화적 수단으로 국제적 및 지역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믿으며, 자연적 방어권을침해하지 않고, 영토보전 및 정치적 독립 또는 다른 국가의 영토 보전과 정치적 독립에 대한 위협이나 무력, 폭력 및 위협을 거부한다.

- **1988.12.15. 유엔총회:** “1988.11.15. 팔레스타인 독립선언을 인정”하는 결의 43/177호를 채택. 이 결의는 팔레스타인인들이 1967년 이후 점령된 팔레스타인의 영토에 대한 주권을 행사할 필요성을 확인하면서, UN 결의안 및 관행에 따라 UN 시스템 내에서 PLO대신에 ‘Palestine’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결정하고, 유엔 사무총장에게 이를 위한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요구. 이 결의에 대하여 104개 국가가 찬성 투표하였고,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 36개 국가가 기권하였으며, 미국과 이스라엘만 반대투표.
- **1993년부터 미국의 중재로 시작된 이스라엘-PLO간의 오슬로 협상:** 1988.11.15. PLO의 팔레스타인 독립선언을 무력화시키면서 점령지에 대한 이스라엘의 지배권을 승인하고, 이스라엘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한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이스라엘 꼭두각시 팔레스타인자치정부를 창설.

▷ 아라파트 수반이 클린턴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

- 아라파트 수반이 클린턴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는 오슬로협상의 본질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오슬로 협상이 진행되면서, 1968.07. 제4차 팔레스타인국민평의회가 제정한 ‘팔레스타인국가헌장’이 거의 파기
- **1996.04.21~24일 가자 시티에서 개최된 제21차 팔레스타인국민평의회가 “팔레스타인국가헌장”은 1993.09.09~10. PLO와 이스라엘 정부 간에 교환된 서한들(오슬로협상)에 反하는 모든 조항을 취소함으로써 개정된다.”를 찬성 504명, 반대 54명, 14명 기권, 97명 불참(전체 669명: 외국거주자 483명, 서안 가자 거주자186명)으로 결의함으로써 오슬로 협정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조항이 파기. 이 때 많은 팔레스타인인들이 팔레스타인자치정부를 비난하였고, 에드워드 사이드는 팔레스타인국민평의회를 탈퇴함.**

야세르 아라파트 수반이 클린턴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 1998.01.13.

친애하는 대통령 각하.

저와 고(故)이츠하크 라빈 총리 간의 1993.09.09/10일 상호 인정 서한(오슬로 협상)에서 PLO는 이스라엘 국가가 평화롭고 안전하게 존재할 권리를 인정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 242호와 338호를 수용하며, 양측 간의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로 약속. PLO는 또한 이러한 약속을 반영하기 위해 팔레스타인국가 헌장에서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변경하기로 동의.

이에 따라 팔레스타인국민평의회는 1996년 4월 22일~25일 사이에 가자시에서 열렸고, 특별 회의에서 “팔레스타인국가헌장은1993.09.09~10일에 PLO와 이스라엘 정부 간에 교환된 서한(오슬로 협상)에 反하는 모든 조항을 취소함으로써 개정된다.”고 결의.

위에 언급된 팔레스타인국민평의회 결의안은 미국 행정부와 이스라엘 정부의 동의를 얻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함. 그 후 저는 이 역사적 팔레스타인국민평의회결의안에 대한 서한을 각하와 시몬 페레스 총리에게 보냈고, 나중에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게도 비슷한 서한을 보냈음.

각하와 페레스 총리는 모두 팔레스타인국민평의회 결의안을 따듯하게 환영했음.

이스라엘 노동당은 팔레스타인국민평의회 결의안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정치 강령에서 팔레스타인국가 수립에 대한 반대를 철회했음.

때때로 팔레스타인국민평의회 조치의 효과, 특히 팔레스타인국가헌장의 33개 조항 중 어느 조항이 변경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음.

우리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함. 이번 팔레스타인국민평의회 결의안은 팔레스타인규약 제 33조에 대한 포괄적인 개정임. 이스라엘을 인정하고, 이스라엘과 나란히 평화를 살겠다는 PLO의 공약(오슬로 협정)과 일치하지 않는 팔레스타인규약의 모든 조항은 더 이상 효력이 없음.

그 결과 제6-10조, 15조, 19-23조, 30조가 무효화되었고, 위에 언급된 공약(오슬로협정)과 일치하지 않는 제1-5조, 11-14조, 16-18조, 25-27조, 29조도 부분적으로 무효화되었음.

저는 PLO와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를 대신하여, 1993년 9월 9일/10일 라빈 총리와와 약속(오슬로 협상)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팔레스타인국가헌장의 모든 조항이 무효화되었음을 확인시켜 드릴 수 있음.

나블루스, 1998년 1월 13일, 야세르아라파트, P.L.O 집행위원회위원장, P.N.A.수반

- 폐기된 내용들은 ‘영국의 팔레스타인 통치 전까지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던 유대인을 팔레스타인인으로 규정 한 것, 팔레스타인인들의 팔레스타인 땅에 대한 권리 주장 및 무장 투쟁을 통한 탈환 강조한 것, 제국주의의 격퇴 및 시온주의 제거 독려 내용, 1947년 팔레스타인 분할안과 이스라엘국가 설립을 불법이라고 규정한 것, 시온주의를 인종차별운동으로 규정한 내용’ 등이다.

4. 1997.10. 하마스 창설자 아흐마드 야신의 연설

: 이스라엘과 우리의 분쟁은 종교 문제가 아니라 땅 문제

-> “팔레스타인 ... 분쟁을 이슬람화하는 것은 착각(환상)”

▷ 이슬람저항운동, 하마스 슈라위원회 의장 세이크 아흐마드 야신(1936~2004.03.22)이 1997년 10월 6일, 이스라엘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 연설

-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세상에 큰 소리로 선포하고 싶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죽이고, 우리의 땅, 집, 자녀, 여성을 빼앗고, 그들이 우리를 흠어버려서, 우리는 고향이 없는 민족이 되어 사방으로 흩어졌기 때문에 그들과 싸운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원한다.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지만, 그들은 평화를 미워한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빼앗는 사람들은 평화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싸우지 말아야 하느냐? 우리는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가 있다”(New York Times 1997, Oct.23).
- “이스라엘과 우리의 분쟁은 종교간 분쟁이 아니라, 땅 분쟁이다. 우리는 우리의 땅을 지키기 위해 싸운다. 우리는 유대인들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들은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살았고, 그들과 우리의 관계는 매우 좋았다. 우리는 그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과 모든 사람들이 잘 지내기를 바란다. 문제는 우리 땅을 빼앗고, 우리 나라를 빼앗고, 우리를 추방한자들이다. 내 어머니와 아버지의 아들이며, 나와 같은 종교를 가진 내 형제가 내 집을 빼앗고 나를 내쫓는다면, 나는 그와 싸울 것이다. 내 사촌이 내 집을 빼앗고, 나를 쫓아낸다면 나는 그와 싸울 것이다. 유대인이 내 집을 빼앗고, 나를 쫓아낸다면 나는 그와 싸울 것이다. ...나는 또한 선거에서 승리하는 사람을 위한 권력을 가진 민주적이고 다당제적인 국가를 원한다!” 질문: 공산당이 이기면 당신의 입장은 어떻게 될까요? 세이크는 이렇게 대답했다. “공산당이 승리하더라도 나는 팔레스타인 국민의 염원을 존중하겠다!”(Aljazeera 2017, Dec.18).

▷ 아흐마드 야신은 휴전 제안: 이스라엘과 협상을 거부하지 않았다.

- 1994.11. 아흐마드 야신은 Al-Hayat(런던소재-사우디 왕가 소유) 신문과 감옥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서안지구, 동예루살렘에서 완전히 철수한다면 하마스는 이스라엘과 10년간 지속되는 휴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1997.10.06. 8년간의 이스라엘 감옥 수감에서 출소한 후(1989년 체포) “서안지구, 가자지구, 동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전면 철수를 조건으로 10년간의 휴전 제안을 되풀이했다.
 - 에후드 바라크가 총리로 선출되기 직전인 1999년 5월, 야신은 이집트 Al-Ahram newspaper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가장 대담한 휴전 제안을 하면서 “우리는 현실적이어야 한다. 우리는 오래 전 1948년과 1967년에 다시 도난 당한 조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오늘 우리 세대는 이스라엘에게 **‘1967년 국경을 기준으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말하고 있다.** 일시적인 휴전을 선언함으로써 이 분쟁을 종식시키자. 더 큰 문제는 미래 세대가 결정할 수 있도록 남겨두자.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과의 관계의 본질에 대해 앞으로 결정하겠지만, 이는 민주적인 결정이어야 한다.” We have to be realistic. We are talking about a homeland that was stolen a long time ago in 1948 and again in 1967. My generation today is telling the Israelis, **‘Let’s solve this problem now, on the basis of the 1967 borders. Let’s end this conflict by declaring a temporary ceasefire. Let’s leave the bigger issue for future generations to decide ...**
 - 2003.12.01. 야신은 “하마스는 적(이스라엘)과 장기 휴전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적은 모든 팔레스타인 영토로부터 철수하고, 모든 형태의 점령을 종식시켜야 한다. Hamas was ready to reach or to go with this enemy [Israel] into a long-term truce. But the enemy must pull out from all the Palestinian territories and remove all shapes and kinds of occupation.”고 선언했다.
 - 2004.03.22. 야신은 이스라엘 헬리콥터 미사일 공격으로 암살당함.
- ▷ 압델 아지즈 란티시(1947~2004.04.17)는 2004년 1월 26일 기자들에게 “하마스는 예루살렘과 가자지구를 포함한 서안지구의 [팔레스타인] 국가를 수용한다. [이스라엘] 철수와 국가 설립에 대한 대가로 10년간의 휴전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 2004.04.17. 이스라엘 헬리콥터 미사일 공격으로 암살당함.

The Washington Institute for Near East Policy(2004, Mar.16). Hamas Ceasefire Proposal: Peace or Pause?, <https://www.washingtoninstitute.org/policy-analysis/hamas-ceasefire-proposal-peace-or-pause>

5. 2026.05.16. 지리&역사 학자 살만 아부 시타의 Middle East Monitor기고문

: 벤구리온(침략자)과 나(원주민): 개인적인 원한/ 귀환권의 당위성

- 데이비드 벤구리온: 폴란드 출신으로, 팔레스타인 땅으로 건너와 원주민을 살해& 축출, 결국 베르세바에 묻힘
- 살만 아부 시타: 베르세바 아부 시타에서 태어남, 1948.05.14 벤구리온이 이스라엘 국가 선언한 날 난민 됨.

나, Salman Abu Sitta(1937~, 영국에서 활동)는 내가 태어난 곳에 묻히기를 바란다.

나는 팔레스타인의 지리와 인구를 기록해 왔다. 이후 여러 해 동안 보고서와 지도책(아틀라스)을 제작했는데, 그 속에서 나는 특히 "귀환의 권리는 법적으로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유대인의 90%가 927개 지역 중 77개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지역 수의 8%에 해당. 이들이 차지하는 면적은 이스라엘 면적(1967년 이전 영토:20,770)의 6%에 해당하는 1,400km². 팔레스타인의 나머지 땅은 비어 있어 군사 캠프로 사용.

나는 우리가 잃어버린 팔레스타인이 여전히 대부분 비어 있으며, 그곳에 사는 유대인의 90%는 전체 영토의 6~10%만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왔다. 이는 530개의 도시와 마을에서 추방된 대부분의 난민들이, 유대 정착민들에게 큰 이주를 강요하지 않고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의미다.

2026년 5월 15일, 오늘 나는 난민이 된 지 28,489일이 되었다. 나는 단 한 순간도 그것을 잊은 적이 없다. 나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나는 알 마인 아부 시타(al Ma'in Abu Sitta)에서 태어났으며, 그곳은 우리 가족이 200년 넘게 살아온 고향이다. 알 마인은 가자시에서 남동쪽으로 약 30km 떨어진 베르세바지역에 위치해 있다. 1948년 4월, 유대 민병대 하가나는 데이르 야신을 포함해 여러 학살을 저질렀다.

6주 뒤인 1948년 5월 14일, 하가나라는 유대 민병대가 내 고향 알 마인을 공격하여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을 죽이고, 집과 건물을 불태우고 파괴했다. 특히 슬픈 것은, 1920년에 내 아버지가 세운 학교까지 철거했다는 점이다. 그날 나는 난민이 되었다.

같은 날, 한 러시아계 폴란드인이 텔아비브에서 다른 정착민들에게 말하며 그들을 위한 국가의 수립을 선언했다. 그의 이름은 다비드 그뤼엔(벤구리온)이다.

이 남자는 플로츠크(Plonsk)에서 베르세바까지 약 4,800km를 이동해 왔다. 그의 여정은 내가 태어난 베르세바에서 끝났다.

이 사람은 선택에 따라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했고, 처음에는 스스로를 팔레스타인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평화롭게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그의 목적은 자신을 받아준 나라를 파괴하는 것이었다.

그는 뜻을 같이하는 이민자 집단을 모아 팔레스타인에 정착시키고, 호스트를 살해하거나 추방하기 위한 비밀 군대를 조직했다. 1948년 3월, 영국 위임통치 하에 있던 팔레스타인에서 그는 "플랜 달렛"을 시작했고, 하가나라는 군대를 동원해 공격, 점령, 추방을 실행했다.

10개월 만에, 9개 여단으로 구성된 12만 명 규모의 하가나는 530개의 도시와 마을을 공격해 주민들을 내쫓았다. 이는 쉽게 수행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최소 95건의 학살이 수반되었고, 그 과정에서 최소 1만 5천 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살해되었다.

나의 삶의 여정은 여러 나라를 떠돌며 이방인으로 살아온 것이지만, 결국 시작된 곳, 알 마인 아부 시타에서 끝나야 한다.

나의 적 벤구리온은 폴란드 출신의 한 사람으로, 그의 출생지에서 멀리 떨어진 내 고향에 묻혀 있다.

그리고 나는 살만 아부 시타(Salman Abu Sitta)로서, 내가 태어난 곳에 묻히기를 바란다.

Salman Abu Sitta: "Ben Gurion and I: A personal feud" (2026, May 16), *Atlas of Palestine 1917-1966* 팔레스타인 지도집(2010), *Palestinian Right of Return: Sacred, Legal, and Possible* 팔레스타인인의 귀환권: 신성하고, 합법적이며, 가능하다(1999), *Mapping My Return: A Palestinian Memoir* 내 귀환의 지도를 그리기: 한 팔레스타인인의 회고록(2016), *The Palestinian Nakba 1948: The Register of Depopulated Localities* 1948년 팔레스타인 나크바: 인구가 유실된 지역들의 기록(2000), *The Return Journey* 귀환의 여정(2007), 런던에 '팔레스타인 토지 연구소'(Palestine Land Society) 2000년 설립 [https://www.plands.org/en/articles-speeches/articles/2026/a-forensic-account-of-the-horrors-my-family-experienced-during-the-nakba-\(2\)](https://www.plands.org/en/articles-speeches/articles/2026/a-forensic-account-of-the-horrors-my-family-experienced-during-the-nakba-(2)).

IV. 국제사회

▷ 1949년 설립, UNRWA 활동

- 1949년 12월 8일 유엔총회결의 302호는 근동 지역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난민을 위해서 UNRWA 창설. '1952년 6월 말 현재, 팔레스타인 난민 명부에 88만 1천 6백 명 정도가 등록, 1967년 전쟁으로 약 40만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서안과 가자 지역에서 추방됨으로써 2차로 대량 난민이 발생, 이 중 17만 5천 명 UNRWA 등록. 2024년 6월, UNRWA에 등록된 팔레스타인 난민은 600만 명 이상으로 전 세계 팔레스타인인의 40% 이상을 구성

▷ 1993년~ 이스라엘-PLO 오슬로 협상

- 미국이 중재한 오슬로 협정은 1988.11.15 팔레스타인 독립선언 무력화, 점령지에 대한 이스라엘 지배권을 승인, 이스라엘 꼭두각시 팔레스타인자치정부 창설.
- 조지 W. 부시(2002.06.24): [an independent, democratic, viable Palestinian State](#) 제시.

▷ 2012.11.29. 유엔총회 결의 67/19호, State of Palestine 옵저버 국가 승인

- 유엔총회 결의 67/19호(2012.11.29): 팔레스타인을 비회원 옵저버 국가로 승인: 두 국가 해결안 제시 [an independent, sovereign, democratic, viable and contiguous State of Palestine](#) living side by side in peace and security with Israel on the basis of the pre-1967 borders.

▷ 2024.04.18. 안보리에 팔레스타인국가 정회원 요청(안보리 및 총회 승인필요)-> 미국 거부

- 미국의 입장- 두 국가 해결책 강력 지지, 팔레스타인의 국가지위는 당사자들의 직접협상으로부터 나와야 함.

▷ 2024.05.10. 유엔총회 결의(A/ES-10/23)

- 유엔 총회는 팔레스타인이 유엔 가입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인정, 안보리에 국가 인정을 재고할 것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통과 시킴, 유엔회원국들과 나란히 앉을 수 있는 권리, 제안 발의권, 위원회 참여권 등 추가(143개국 찬성-대한민국 찬성, 미국, 이스라엘 등 9개국 반대).

▷ 2024년 7월 19일, 국제사법재판소 판결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점령당한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이스라엘 정책 및 관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결과」 5가지 문제들이 '전쟁지역 민간인에 대한 인도적 보호를 규정'한 1949년 제4차 제네바협약 및 1907년 '국제분쟁에 관한 평화적 해결'에 관한 헤이그협약 위반

- 장기 점령: 1967년 이후 57년 이상 장기적인 점령.
- 1967년 이후 정착촌정책: 점령지로 민간인 이주, 토지몰수 및 징발, 천연자원 착취, 이스라엘법의 확장, 팔레스타인 주민 강제 퇴거, 이스라엘정착민들과 이스라엘 보안대의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폭력.
- 점령당한 팔레스타인 영토 합병: 동예루살렘 합병문제, 1950년 부재자 재산법, 이스라엘 정착촌.
- 차별법과 조치들: 이스라엘법이 적용되는 동예루살렘 거주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시민권 대신 영주권 부여, 점령지에서 팔레스타인인들 이동 제한 및 재산파괴.
- 자결권 부정: 이스라엘정착촌 정책이 서안지구를 토막 내고, 동예루살렘을 서안으로부터 단절시킴, 분리장벽의 문제, 천연자원 약탈 문제 등.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모든 점령지 팔레스타인의 영토 통합, 연속성, 완전성이 보존되어야 함.

-> 1967년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점령한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서안과 가자 지역에 대한 57년간의 점령을 불법으로 선언하고, 팔레스타인인들의 권리 옹호.

▷ 2024년 8월 30일, 팔레스타인 점령지에 관한 유엔특별 조사위원 프란체스카 알바니스는 점령지 전역에서 이스라엘 철수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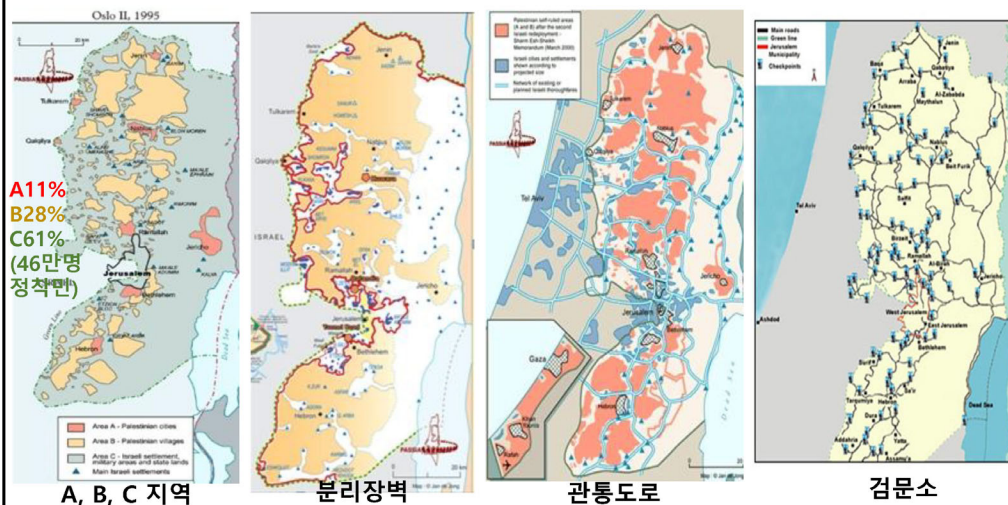
- "이스라엘은 서안에서 하고 있는 일이 정당방위라고 주장. 그러나 점령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자위권 주장은 타당성이 없음."
- 2024년 8월 현재 유엔총회 회원국 145개국/193개국이 팔레스타인국가 승인, 대한민국외교부는 팔레스타인을 Palestine National Authority로 표기, 팔레스타인국가를 인정하지 않음. 2005년 6월부터 대한민국은 팔레스타인과 양자관계 수립하고, 2014년 8월 라말라에 대표부 설치.

▷ 유엔 총회의 일반 토론(2023년 9월 19일~26일) : 두 국가 해결안

- 중국 부주석 한정: 팔레스타인 문제는 중동 문제의 핵심. 근본적인 **출구는 두 국가의 해결책**.
- 러시아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 :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분쟁의 주요 쟁점 해결 없이, 중동 정세의 완전한 정상화는 불가능. 중재과정을 독점해온 미국이 모든 수단을 동원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 막음.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직접 협상 촉구.
- 사우디외무장관 파이잘 빈 파르한: 이 지역의 안정은 팔레스타인의 대의와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1967년 경계에 기반한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위한 공정하고 포괄적인 해결책에 달려있음.**
- 튀르키예 대통령 에르도안: 중동의 항구적인 평화는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분쟁의 항구적인 해결을 통해서만 가능. 1967년 국경에 기반한 **독립적이고 연속적인 팔레스타인 국가(an independent and contiguous Palestinian State) 수립.**
- 요르단국왕 압둘라 2세: 500만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시민의 권리 및 이동의 자유 없이 점령하에서 살아가고 있음. 평화와 안보, 번영 속에서 이스라엘과 나란히 존재하는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1967년 6월 4일 경계로 **독립적이고 생존 가능한 국가(independent and viable state) 수립.**

▷ 2023.08.25.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UNOCHA)

- 645개의 이동식 장애물을 서안 전역에 설치(2020년 초 593개 장애물보다 8% 증가).
- 712km 분리장벽(현재 65% 건설 완료) 대부분은 요르단강 서안 내부를 관통하며 사람들 이동에 커다란 장애물 -> **거대한 감옥**
- 2021년 OEC 통계.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의 세계 3위(6.49%, 전기, 석유, 물, 식료품 등) 수출시장(미국 26.5%, 중국 7.86%, 인도 4.41%).



▷ 해결책은?

- 인종, 종교, 종파라는 갈라치기 프레임에 갇혀 치우는 것 만이 민주주의와 평화로 가는 길이며, **비인종-비종교-비종파 민주 정부 구성을 위한 민주주의 선거만이 유혈 분쟁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보인다.**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을 포함하여 중동 지역 분쟁을 인종, 종교~종파 분쟁 구도로 설명하는 것은 분쟁의 본질, 정치-경제 문제를 은폐한다.
- 20세기 영국이 중동을 분할 통치하기 위하여, 인종, 종교, 종파 간 갈라 치기 정치 프레임을 만들었고,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다.
- 1936년 4월, 아랍대반란시작: 시온주의 반대, “유대 이민 금지, 유대인에게 땅 판매 금지, 아랍민족정부 수립” 요구
- 1936년 5월 19일, 벵구리온: “우리와 그들은(팔레스타인인들) 같은 것을 원한다. 우리는 둘 다 팔레스타인을 원한다. 그것이 근본적인 갈등이다.” ; 1948년 7월 18일, 벵구리온: “우리는 팔레스타인인들이 결코 돌아오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해야 한다 ... 노인은 죽고 젊은이들은 앓을 것이다.”

중동 지역 불교 수용의 변화상

정진한 (안양대학교)

Why is there a giant Buddhist sculpture on Sheikh Zayed Road?

It is part of the second Highway Gallery by Louvre Abu Dhabi, which is currently being installed



The statue is a reproduction of the wooden Guanyin, Bodhisattva of Compassion from China, as part of the Louvre Abu Dhabi Highway Gallery. Photo: The National

중동지역 불교수용의 변화상

2026. 6. 13.

정진한 (안양대)
zynaii@hanmail.net

고대 중동과 불교

파르티아 출신 중국 불승 안세고(2c)



헤초 스님의 우마위야조 여행(8c)



중세 중동과 불교



3대 칸국: 불교/텡그리>(기독교)>이슬람



1996년 아프간 바미안 석불



현대 이슬람 세계 속 불교의 지위 (예: UAE)

연방헌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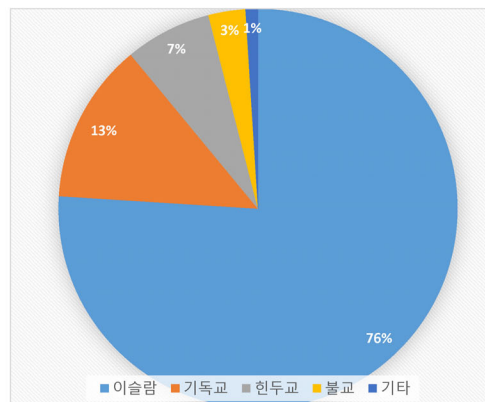
-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연방 시민은 인종, 출신지, 종교적 신념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른 차별은 없다. (25조)
- 이슬람은 연방의 공식 종교이고, 이슬람 샤리아(종교법)는 연방 입법의 주요 원천이며, 연방의 공식 언어는 아랍어이다.(7조)

형법 362조

- ...
1. 이슬람의 신성함이나 의례를 모독하는 행위
 2. 공인된 아브라함 계통 종교를 모독하는 행위
 3. 죄를 조장, 권장 또는 부추기거나, 타인을 죄로 유혹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행위
- ... 징역 1년 이상 (과/또는) 벌금 10만 디르함 이상

출신 국가별로 구성된 불교 집단 (UAE)

	출신국	명(만명)	비중
1	인도	439	38.0%
2	파키스탄	194	16.7%
3	UAE	133	11.5%
4	방글라데시	85	7.4%
5	필리핀	80	6.9%
8	스리랑카	37	3.2%
9	네팔	37	3.2%
계	전체 인구	1135	100%



[illegible]

UAE의 종교 관용 정책

아부다비: 아브라함 가족의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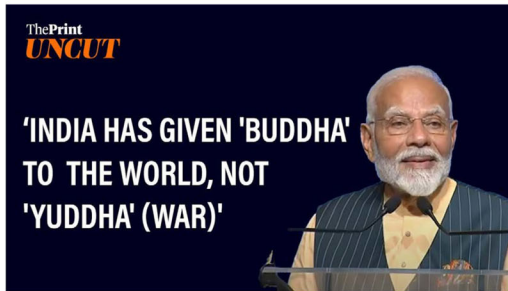


아부다비: BAPS 힌두 Mandir



모디 : 힌두교 + 불교

불교를 통한 인도 마케팅



모디의 불교 외교 정책



공식 힌두교 종교 시설 (GCC)

이름	위치	특징
Shrinathji Temple	마나마	중동에서 가장 오래된 힌두 사원 (약200년)
Shri Motishwar Mahadev	무스카트	1909년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 모디 총리 방문. 무트라 위치
Shri Krishna Temple	무스카트	인근 교회 단지(카톨릭, 콥틱, 정교회 등 다양)
Shiva Mandir	두바이	부르 두바이 위치 (다수 비이슬람 종교 시설 위치)
Krishna Mandir	두바이	대형 시설. 인근 시크교/기독교 종교시설 위치
BAPS Hindu Mandir	아부다비	세계급 초대형 시설(33,000평), 개원식에 모디 총리 참석
사우디, 쿠웨이트, 카타르는 공식 힌두 종교시설 부재 (쿠웨이트와 카타르에는 다수의 기독교 시설 운영)		

비공식 종교 시설

쿠웨이트 힌두 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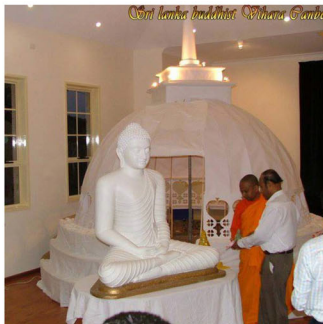


바레인 시나고그



주요 불교 시설 (GCC)

오만



바레인



카타르



공동체별 주요 불교 관련 시설 (UAE)

모임 명칭(가칭/등록명)	위치	주 대상 및 규모	성격 및 허가 형태
Mahamevnawa Monastery	Dubai, Al Garhoud	스리랑카계 (일 300~500명)	유일한 공식 승인 시설. 단독 종교 건물이 아닌 주거지 내 허가
Thai Buddhist Meditation Center	Dubai, Jumeirah 1	태국계 (여성/서비스직 중심)	'문화 진흥 및 명상 센터'로 등록. 태국 대사관의 간접 지원.
Lumbini Buddhist Society	Abu Dhabi, Mussafah M-14	네팔/인도계 노동자 (200명 이상)	산업단지 내 창고/홀 임대. 네팔 노동자 연합 산하 활동
SGI-Gulf Center	Dubai, Knowledge Village 인근	일본/다국적 (엘리트/전문직)	NGO/문화단체로 등록. 고소득층 대상 철학 강의와 명상 중심
Zen Meditation Group	Dubai, Al Barsha	서구권/한국/일본 (소규모)	개인 빌라 내 소그룹 명상회. 공식 종교 활동보다는 '마인드풀니스' 교육 형태

공동체별 불교 활동

송크란 : 태국



공통: Vesak (석가탄신일)



중동의 불교 종교 시설

공인: 마하메브나와 불교 사찰 (UAE)



비공인 사찰 / 불교 문화 시설



변화하는 중동 내 불교 사회

불교 웰니스 센터 (커뮤니티/외교/관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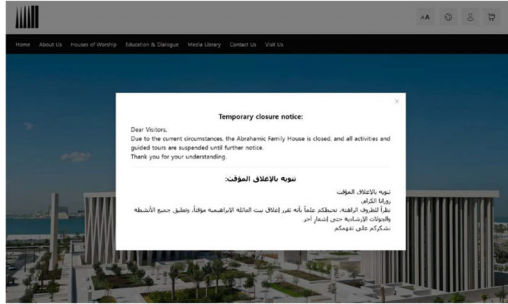


터키 청년층의 불교 문화



이란 전쟁과 소수 종교

아브라함 가족의 집



마하메브나와 불교 사원



이란 전쟁과 불교 (UAE)



SGI: 인류형제애를 위한 Zayed상 (2026)



이란 전쟁 이후의 불교 (중동)

스리 크리쉬나 사원(무스카트)



결론과 전망

- 인식: 이슬람 > 아브라함계 종교 > 소수종교 > 무교
- 불교 신자수: 외국인 노동자 (대다수) > 부유층 외국인 > 관광객 > 자국민 (희박)
- 우상숭배 논란 (인물/신/동물 형상의 회화/조각/건축), 비아브라함계 종교
- 위협적이지 않은 평화적 이미지, 고급스런 문화 활동(명상, 봉사, 요가, 템플 스테이...)
- 외국 노동자 위주 → 부유층 관광객 유치 → 자국내 부유층의 고급 문화 취미
- 불교 정책: 실용 위주 (외교, 관광, 문화, 사회안정, 소프트 파워 증진,...)
- 반이스라엘 기류 → 종교간 화합에 부정적 → 표면적 지원 축소 (물밑 간접 교류/의존 확대)



이란의 환경 문제와 소수민족 권리 문제의 영향

황 의 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서론

건조 기후대에 있는 이란은 기후 변화에 따른 가뭄에 취약하며, 자연적 요인은 비효율적인 수자원 활용과 열악한 수자원 인프라 등 인간이 초래한 요인과 결합하여 이란의 수자원 위기를 심화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란의 물 부족 문제를 사례로 정치적·사회적 요인이 환경 변화의 영향을 어떻게 증폭하는지 분석한다. 특히 이 연구는 물 부족과 환경 파괴를 아제리인, 쿠르드인 등 이란 내 소수 민족의 정치적·사회적 불평등과 중앙의 주변 착취라는 측면에서 이해한다. 이란에서 소수 민족은 법적으로 이란 국민임에도 주류 집단인 페르시아인과 구별되는 타자로 규정되며, 이러한 차별과 타자화는 문화적·사회적 측면만이 아니라 정치적·경제적 측면에서도 나타난다. 이란 서부의 쿠르디스탄과 같이 소수 민족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은 중앙정부로부터 착취되고 개발에서 소외되어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비효율적인 수자원 관리와 수자원 인프라에 대한 투자 부족도 중앙의 지방 착취 또는 주류 집단의 소수 집단 착취로 이해할 수 있다.

우르미야 호수와 아제리인과 쿠르드인

이란 서부 우르미야 호수는 이란의 수자원 위기의 심각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우르미야 호수는 가뭄 변화로 인한 강수량 부족이 과도한 관개 용수 사용, 댐 건설에 따른 유입수량 감소 등 인위적 요인과 결합하여 호수 면적의 약 90%가 감소했고, 이에 따른 농업 용수 염화는 인근 농민들에게 큰 피해를 초래했다. 이란 서부는 아제리인과 쿠르드인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이들이 호수 고갈로 가장 큰 영향을 입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아제리인과 쿠르드인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다. 아제리인 농민은 쿠르드인 농민보다 적응력이 높고 농촌을 떠난 이주민도 아제리인이 쿠르드인보다 소득이 높다.

이러한 차이는 아제리인이 정치적·사회적·경제적으로 쿠르드인보다 견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농촌에서 관개 수로 관리와 농업 용수 분배 권한을 행사하는 마을 유지들은 주로 아제리인이며 쿠르드인은 물 분배에서 소외되거나, 허가되지 않은 우물을 사용하다가 정부의 규제를 받기도 한다. 또한 농촌을 떠날 때 아제리인은 농촌과 도시를 연결하는 사회적 관계망이 존재해 취업과 정착 자금 대출 등에서 도움을 받으며 서비스업이나 공공 부문 고용 기회를 얻지만, 쿠르드인의 관계망은 농촌에 집중되어 있어 이주 시에 활용하기 어려워 이주 후에도 일용직 노동자 등 저소득 일자리에 종사한다.

아제리인과 쿠르드인이 정부와 맺는 관계 차이도 두 집단의 적응력 차이의 원인이다. 아제리인은 페르시아인 엘리트층과 협력 관계를 맺어 소수 민족임에도 이란에서 가장 정치적 영향력이 큰 민족으로 여겨지는 반면, 쿠르드인은 혁명 이래로 이란 정부와 갈등한 역사로 인해 정부와 관계가 좋지 않다. 이러한 차이는 정부가 우르미야 호수 지역 재건 정책을 추진할 때 두 집단이 보여주는 반응 차이로 이어진다. 아제리인은 정부 지원 정책에 관한 정보 접근성이 높아 실제 혜택을 받는 반면, 쿠르드인은 정부에 대한 불신과 정보 부족으로 인해 정책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우르미야 호수 고갈이 아제리인과 쿠르드인에 미친 상반된 영향은 환경 문제가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독립 변인이 아니라, 지역과 정부의 관계라는 맥락 내에서 해석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쿠르디스탄 환경 문제의 안보화

이란 중앙정부는 쿠르디스탄을 내부 식민지(internal colony)로 활용하여 수자원 등 천연 자원을 중심부를 위해 착취하는 양상을 보인다. 쿠르디스탄의 내부 식민지화는 지역의 환경 문제가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더욱 심화한다. 쿠르디스탄에 건설된 댐과 수로는 테헤란, 이스파한 등 다른 지역으로 물을 공급해 쿠르디스탄에서 가뭄 피해를 악화하고 지역 공동체 붕괴를 조장하고 있다.

국경 지역인 쿠르디스탄의 안보 유지라는 이유 또한 중앙정부가 쿠르디스탄 환경 파괴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혁명수비대는 자연보호구역에 미사일과 군사 기지를 건설했으며, 훈련 과정에서 산불과 삼림 파괴가 발생한다. 또한 안보 상의 이유로 댐 관리권은 쿠르디스탄 지방정부가 아니라 중앙정부가 행사하며 따라서 현지 기후 상황에 적합한 관리가 시행되지 못한다. 쿠르디스탄의 내부 식민화의 결과 중심부는 저렴하게 수자원을 공급받는 반면 쿠르디스탄은 보상 없이 자원이 유출되는 문제에 직면했다.

이러한 상황에 반발해 해 수자원 보호를 위한 쿠르드인 중심 환경 단체가 등장했지만, 이란 정부는 환경 운동을 정권 안보를 위협하는 문제로 규정하는 안보화(securitization)로 대응해 탄압한다. 이란 정부는 환경 운동 단체를 잠재적 도전 세력이 될 수 있는 풀뿌리 시민사회 운동으로 인식하고 환경 단체들이 쿠르드인을 결속, 동원하여 쿠르드 민족운동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경계한다. 환경과 지역 사회의 필요, 소수 민족의 권리 등에 토대를 둔 환경 운동 담론 또한 혁명수비대가 주도하는 안보와 국가 발전 담론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진다.

대표적인 쿠르드 환경 단체 치야(Chya)는 환경 단체에 대해 정부가 가진 불안의 전형적 사례다. 치야는 환경 운동뿐만 아니라 정부의 환경파괴적 개발에 대한 반대 운동, 가정 폭력과 조혼 등 악폐습 근절, 쿠르드어 교육, 인권 침해 비판 운동 등 다양한 부문에서 활동하며 이란의 공식적인 사회, 안보, 개발 담론의 대안을 모색한다. 쿠르디스탄을 '쿠르드 조국'으로 보고 환경 보호를 촉구하는 치야의 담론은 쿠르드 민족주의의 씨앗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이유로 이란 정부는 치야를 정권 안보를 위협하는 단체로 규정하고 운동가 살해, 대규모 체포, 고문 및 가혹 행위를 자행한다.

결론

독재 체제는 본질적으로 지방과 소수자, 주변부의 요구에 둔감하며 핵심적 권력 기반인 중심부에 경제적 자원을 집중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외된 주변부는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이 크게 제한된다. 이란의 사례는 이란에서 환경 문제가 단순히 기후변화의 결과가 아니라 페르시아인과 소수 민족, 중심부와 주변부, 정권과 시민사회 사이의 갈등과 결부된 정치적 사안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즉 환경 문제와 농촌 경제 쇠퇴, 농민의 도시 이주 등 환경적·사회적 현상은 권위주의적 통치와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라는 정치구조적 맥락 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Allan Hassaniyan(2020), "Environmentalism in Iranian Kurdistan: causes and conditions for its securitisation." *Conflict, Security & Development* 20(3): 355-378.
- Maja Ženko and Sanjin Uležić(2019). "The unequal vulnerability of Kurdish and Azeri minorities in the case of the degradation of Lake Urmia, Iran." *Journal of Political Ecology* 26(1): 167-183